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장 영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공동생활가정 거주 미혼양육모를 중심으로-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윤 장 숙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공동생활가정 거주 미혼양육모를 중심으로-

장영희 교수지도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4月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유아교육전공)

윤 장 숙

# 인 준 서

윤장숙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 신 여 자 대 학 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적응해 나가는 과정은 어떠한지, 미혼양육모들의 영아를 양육하는 양육환경은 어떠한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 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공동생활가정 거주 미혼양육모의 영아기 자녀 양육환경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만2세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공동생활거주 미혼양육모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 등을 하였으며 각 면담 자료와 참여 관찰노트, 참여자 저널, 동영상과 녹음자료, 시설관련 문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참여관찰 및 면담 내용은 현장기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범주화 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범주를 중심으로 양육환경 및 적응과정을 제시 하였다.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로 상위 범주화 하였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하여 각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적 진술과 함께 하위특성들로 범주화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 후 적응과

정에서 시기별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과 두려움의 탐색기에는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할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갖는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미혼양육모와 영아 모두 환경에 점차 적응하면서 주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주변 탐색 행동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혼양육모간 불화감도 형성 되면서 상호 불신적, 공격적인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아들은 눈치 보며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성인을 경계하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준비기인 입소말기에 접어들면서 미혼양육모는 퇴소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피하며 우울해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은 영아에게 매우 제한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갖게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양육환경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들이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영아와의 결속감과 영아를 잘 키웠다는 주변의 격려, 외부로부터 지원 받은 다양한 육아용품 및 후원 등으로 모성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와 생활 할 거주 공간의 확보로 얻는 안도감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혼양육모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발견된 환경으로는 물리적 환경 구성에 있어서 보호기능이 약하고 이주과도기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영아의 운동과 인지발달을 촉진 시켜 줄 수 있는 영아용품 및 환경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영아용품의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성인중심의 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가 영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상태에서는 자립에 대한 압박감과 거처 문제로 인한 불안함이 있었으며, 공동생활 가정 내 종사자 및 동거하는 미혼양육모와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맺고, 원가족과의 관계도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가 전혀 없는 상호 갈등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7
3. 용어 정의 .....	8
4. 연구자 .....	9
II. 이론적 배경 .....	16
1. 미혼양육모의 개념 및 양육 실태 .....	16
1) 미혼양육모의 개념 .....	16
2) 미혼양육모의 현황 .....	17
3)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	20
4) 미혼양육모의 출산과 양육 .....	21
(1) 출산과 양육 환경 .....	22
(2) 영아발달과 양육 환경 .....	24
2.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 .....	29
1) 미혼양육모 관련 국내 정책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	29
(1) 관련 법 .....	29
(2) 관련 정책 .....	31
(3) 관련 사회적 지원 서비스 .....	33
2) 미혼양육모 관련 국외 정책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	36
(1) 관련 법 .....	36
(2) 관련 정책 .....	38
(3) 관련 사회적 지원 서비스 .....	40

3. 선행연구 ..... 45

**III. 연구 방법** ..... 51

1. 연구 방법의 배경 ..... 51

2. 연구 참여자 ..... 53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 54

    2) 미혼양육모 시설의 특성 ..... 60

3.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 64

    1) 연구 절차 및 기간 ..... 64

    2) 자료수집 ..... 65

        (1) 참여관찰 ..... 65

        (2) 심층면담 ..... 68

        (3) 집단면담 ..... 70

        (4) 개인 저널 ..... 71

        (5) 미니홈페이지 ..... 71

        (6) 동영상 촬영과 녹음 ..... 71

        (7) 문서자료수집 ..... 72

    3) 자료 처리 및 분석 ..... 73

**IV. 결과 및 해석** ..... 75

1.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 ..... 75

    1) 기대감과 두려움의 탐색기 ..... 75

        (1) 미혼양육모 :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 ..... 75

        (2) 영 아 : 두려움과 불안한 생활 ..... 77

    2) 친밀감이 형성 되고 탐색이 활발한 적응기 ..... 79

        (1) 미혼양육모 : 친밀감 형성 ..... 80

        (2) 영 아 :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생활 ..... 81

    3) 불신감과 경계심으로 제한된 갈등기 ..... 83

(1) 미혼양육모 : 서로 상처내며 공격하기 .....	83
(2) 영    아 : 성인들 눈치 보며 생활 .....	85
4) 우울함과 무반응의 퇴소준비기 .....	87
(1) 미혼양육모 : 막막함과 우울함으로 관계 회피하기 .....	87
(2) 영    아 : 개인생활공간 내에서는 허용되는 놀이 .....	91
2.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영아 양육환경 .....	96
1) 물리적 양육환경 및 심리적 지원 .....	97
(1) 영아와의 결속감 유지 .....	97
(2) 모성양육 의지 독려 .....	101
(3) 양육 거주 공간 확보 통한 안도감 .....	105
2) 미혼양육모의 영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	108
(1) 보호기능 약한 이주과도기적인 공간 .....	108
(2) 건강과 안전에 부적합한 환경 .....	118
(3) 영아의 인지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	127
3) 미혼양육모의 영아양육을 위한 심리적 상태 .....	130
(1) 자립에 대한 압박감 .....	130
(2) 불안한 거처 .....	138
(3) 공동생활가정 내 불편한 대인관계 .....	142
(4) 원가족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혼란스러움 .....	148
<b>V. 논의 및 결론</b> .....	153
1. 논의 .....	153
2. 결론 및 제언 .....	166

## 참고문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국내 외 입양아 수와 미혼모 자녀 비율 .....	19
<표 2> 부모의 법적혼인상태별 출생아 수 .....	20
<표 3>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현황 .....	22
<표 4> 미혼양육모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및 서비스 .....	31
<표 5> 미혼양육모 관련 고용지원 정책 및 서비스 .....	32
<표 6> 미혼양육모 관련 시설지원 정책 및 서비스 .....	33
<표 7> 한부모 가족시설의 현황 .....	34
<표 8>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서비스 내용 .....	35
<표 9> 국외의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 및 제도 .....	44
<표 10>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5
<표 11> 연구대상자가 기거하는 미혼양육모 시설 .....	61
<표 12> 연구 진행일정 .....	63
<표 13>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 목록 .....	72
<표 14> 개인 생활 공간 특성 .....	109
<표 15> 주요 공용 생활공간 특성 .....	112
<표 16> 공동생활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현황 .....	135

## 그림 목 차

[그림 1]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기거하는 공동생활가정의 개인생활공간 예시 .....	110
[그림 2]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의 공용생활 공간 예시 .....	113
[그림 3] 미혼양육모의 공동생활가정 내부구조 예시 (C시설의 1층 예) .....	114
[그림 4] 미혼양육모의 공동생활가정 내부구조 예시 (C시설의 2층 예) .....	11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 문화 구조가 변화 되었으며 그에 따른 가치관과 삶의 양식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확대 가족의 감소와 핵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출현을 불러왔으며 결혼에 대한 인식과 자녀관이 변화 되어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도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자녀 및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출산률 저하를 초래하여 저출산고령사회로 진입하게 하였고,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과제를 풀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 왔다. 즉 출산률 저하로 야기 될 문제에 대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sup>1)</su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 라는 과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家’ 중심의 호적제가 개인 별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 사항을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sup>2)</sup>도 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과거에 비해 자립적으로 출산 및 자녀양육을 선택하는 미혼양육모<sup>3)</sup>의 수를 크게 증가시켰으며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 중에서도 상당수가 경제적 지원만 이루어지면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미혼모의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미

1)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제 확립, OECDE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대한민국정보, 2006)

2) 기존의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가(家)와 호(戶)의 개념이 개인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모의 성 사용가능하고, 친양자제도에서 성을 변경할수 있다(보건복지부, 2008).

3) 본 연구에서는 미혼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양육미혼모, 미혼양육모 등으로 불리는 용어를 모두 미혼양육모로 통일하고자한다.

혼양육모들의 증가와 그동안 사회적 냉대를 받아왔던 이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 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통계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의 입소인원이 2003년 2,246명에서 2008년 2,991명으로 증가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5년 202명에서 2008년 391명으로 증가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러한 증가 현상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에서 추정한 2010년 미혼양육모의 수가 26,034명이라고 보고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 통계현황은 미혼양육모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통계청관련 자료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통계, 국내외 입양아동 수 등을 합한 것이므로(이미정, 2010) 그만큼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스로 아이를 양육하겠다는 미혼양육모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음을 나타내준다.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최근 미혼양육모의 자녀 양육지원을 위한 시설이 양적으로 증가 되었다.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09)에 의하면 2003년에 10개소였던 미혼모자시설<sup>4)</sup>이 2005년에는 18개소, 2009년에는 27개소로 증가 하였으며,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sup>5)</sup>도 2003년 5개소에 비하여 2008년에는 19개소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시설의 이용자 수는 90년대 1,000여명에 불과하다가 2009년 현재 연 2,000명을 상회하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이와 더불어 미혼양육모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사회적지원서비스도 비교적 다양화 되었다. 현재 미혼양육모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2007년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이는 저소득계층의 한부모, 미혼모, 조손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제외한 미혼 여성이 아동을 양육할 경우 한부모자로 인정

---

4) 대상은 출산을 앞 둔 미혼모로 분만 혜택과 숙식 지원, 6개월 미만 거주 가능.

5) 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양육모와 영아이며 숙식과 자립지원, 2년 거주가능

하여 복지급여, 복지자금 대여, 고용촉진, 공공시설 내 매점 시설 설치 우선권, 교육급여 및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한부모가족지원법, 2007).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지원서비스는 저소득 모자가정 및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자격제한이 있어 시설 이용자 및 일부 저소득 미혼양육모자가정에게만 한정된다. 때문에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은 아직 미흡하며, 시설보호정책과 저소득층 모자가정 정책 등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유경, 2007).

이처럼 미혼양육모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시설 중심이고 저소득미혼양육모만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는 미혼양육모지원정책이 미혼모의 산전후 회복과 임시구호의 기능을 갖춘 긴급구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미혼모와 그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시설의 운영과 지원의 근거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우선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지원의 폭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이다(김혜영 외, 2009). 이는 아직까지도 미혼양육모에 대한 시각이 개인적 결함이 있거나, 혐오대상으로 보는 관점(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정부의 미혼모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주로 국내 및 해외 입양으로 해결(이미정, 2010),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를 입양 시킨 후 입양이 안된 아이는 대부분 시설에서 양육되도록(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혼양육모가 지원 받기 위한 기본요건은 정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확보이다. 그러나 미혼양육모 가구는 낮은 평균연령과 미혼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지원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즉 연령이 낮게 되면 부모로부터 부양자 의무규정에 의해 원가족의 소득구조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혜영외, 2009). 미혼모 가족의 이러한 입양과 시설보호로의 문제해결방

법은 아동이 친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과 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미혼양육모의 문제를 요보호 여성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미혼모를 요보호여성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은 입양기관 혹은 미혼모 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김근조, 1984; 유유박, 1980), 다른 연구의 조사 자료를 분석(황옥자, 윤미현, 1996; 강영실, 2000)한 연구들로 주로 미혼모가 겪는 어려움 및 문제점, 미혼양육모를 선택하지 않는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과 체험에 관한 연구로 미혼양육모가 자녀의 양육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 및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 양육의 의미 등에 관한 연구(박숙희, 2001; 김혜선, 김은하, 2006; 김윤아, 이형아, 김혜선, 2008; 임선희, 2008; 김유순, 김은영, 2008; 이성원, 2009)에서는 미혼양육모들이 자녀양육을 의지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점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한편 미혼양육모의 사회적 관계 및 가족체계와 관련하여 미혼모가 가족, 친구보다 친부에게 낮은 수준의 지지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어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하였다(정마리아, 1997; 주숙남, 1999; 이재정, 2003; 이복숙, 전영주, 2004; 김유경, 2007; ). 또한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연구(공일숙, 2005 ; 민선희, 2004; 이종수, 2003 ; 정용순, 2003; 문의승, 임애덕, 2005; 김혜영, 안상수, 2009)가 있었으며, 미혼양육모의 양육태도와 자립에 관한 연구(이양미, 2000; 이유정, 1996; 이지은, 1995; 최용희, 1997; 이미정, 2010)로 미혼양육모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방안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미혼양육모들의 생활전반에 걸친 어려움과 양육결정에 따른 상황적 변인들, 양육을 체험하면서 겪는 어려움 등을 영아관점이 아닌 미혼양육모 관점에서 주로 다루었다. 이는 미혼양육모들의 양육 경험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자료로서는 중요한 가치가 있으나 미혼양육모들이 출산

후 본격적인 자녀 양육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고충과 이 시기에 영아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영아를 둔 미혼양육모의 자녀양육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으며, 현재의 제도는 미혼양육모들의 영아양육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혼양육모의 자녀 양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미혼양육모 뿐 아니라 양육 대상인 영아의 관점에서도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혼양육모가 영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의 양육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양육자들과 영아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영아기는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기능이나 사고 과정을 위한 기초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성장 발달 단계에서 특정한 발달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즉 영아기는 지각·운동의 발달이 현저하며, 언어발달에 의해 이해력이 증대되며 두뇌 능력의 80%가 결정된다(김재은, 2000). 이러한 발달 과업이 이 시기에 수행되지 못하면 그 손상이 누적되며 이후에 그 손상을 치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달과업을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결정적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다(Havighurst, 1972). 영아기는 반드시 학습해야 할 신뢰감이나 자율성, 주도성, 언어능력 등 인생전체의 기초적 발달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이란 자연스런 모성적 애정의 표현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데 모성적 애정의 표현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모성실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Ainsworth, 1973). 모성실조 환경에서 자란 영유아는 어머니의 애정을 느끼면서 자란 유아에 비해 문제해결과제 실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추상적 개념화와 성인에 대한 모방행동에서도 뒤떨어지며, 언어능력과 시간 및 공간개념, 추상적 개념화의 능력에서도 뒤떨

어진다(Zigler, 198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성실조 환경인 입양아의 예를 보면 친모 양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입양아들은 성장하면서 행동·정서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현상이 비입양아동보다 입양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입양아동과 비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조사한 66개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Wierzbicki(1993)의 연구는 입양된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비입양아동들에 비하여 부적응의 위험요소가 훨씬 높다고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입양아동관련 연구에서도 입양모가 인식하는 입양아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행동, 정서적 문제인 것으로 조사되어(변미희 외, 2007) 비입양아동보다 입양아동이 행동, 정서, 학습 문제 등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모양육의 필요성이 강조 된다.

이처럼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와 이 시기를 친모에게서 양육되어지지 않을 경우 일어 날 수 있는 부정적인 모성실조현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여성이 혼전 임신으로 미혼모가 된 후에 환경만 허락한다면 자신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김혜선, 김은하, 2006), 영아의 복지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와 함께 살 권리(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89, 문선화, 2009 재인용)를 충족 시켜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는 인공 유산 혹은 입양보다 그가 태어난 부모에게서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혼양육모의 문제는 단지 미혼양육모 자신뿐 아니라 새로 태어난 아동의 인권과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 해 볼 때 한 개인의 문제이기 전에 사회와 국가의 공동적 책임과 해결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요컨대 미혼 양육모들의 영아에게도 아동의 권리적인 차원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됨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영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자,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생활환경으로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 불가결의 요소 (문선화 외, 2009)인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미혼양육모들의 양육환경과 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미혼양육모들의 영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인 자녀양육을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2. 공동생활가정 거주 미혼양육모의 영아기 자녀 양육환경은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미혼모

미혼모는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또는 임신 중절한 경우의 여성과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한국여성개발원, 2008). 또한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의한 미혼모의 정의에서는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도 아닌 상태에서 임신함으로써 아동을 출생한 여성을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혼모란 합법적인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을 말한다.

## 2) 미혼양육모

미혼양육모란 모성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로서 아동을 출산한 후 입양이나 시설 입소를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임신 중인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의 미혼모를 말하는데(정용순, 2002)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출산한 후 스스로 양육을 결정하여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미혼양육모를 의미한다.

## 3) 영아

본 연구에서는 출생에서 만 2세까지의 어린이를 영아로 정의한다.

## 4)공동생활가정(중간의 집)

본 연구에서 공동생활가정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2008)에 근거한 제도권 안의 시설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 모자 가족이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중간의 집이라고도 불리며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란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 되던 시기의 명칭으로서 현재는 양육모 중간의 집, 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등과 동일하게 불려진다. 이러한 공동생활가정은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숙식 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양육모를 입소 대상으로 하며, 주소지에 따른 제한은 두지 않는다. 기간은 2년이고 교육 및 취업 등 상황에 따라

서 1년에 6개월씩 2회 연장가능하다. 단 본 연구가 진행 되는 2009년 12월까지는 1년 동안 거주 할 수 있었지만 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부터는 보호기간이 2년 이내로 변화 되었다(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령, 2010).

#### 4. 연구자

연구자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양육환경 및 양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입양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친지로서의 관심과 유아교육을 한 입장에서의 개인적 관심, 다른 하나는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 고령화 대안으로 미혼양육모에 대한 증폭된 사회적 관심이다. 먼저 미혼양육모와 영아에 대한 친지로서의 관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까운 친지 중 뒤늦게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출산이 계획대로 되지않아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은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하게 되었다. 입양 사실은 가족 중 소수만 알았고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연구자가 입양 사실을 알아서일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친지들과 아이에게 연구자도 공범이 되어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이 생겼고, 매우 중요한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자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부부가 한 말로는 아이를 위해서 숨기기로 하였다고.....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무엇을 위해서? 아이와의 관계가 출발에서부터 비밀을 기초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아이를 위해서라는 것이 성립이 될까? 언제까지 입양 사실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숨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더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 보았다. 부부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가능한 한 친지들 모임에 안 나갈 것이고, 혹여라도 어느날 갑자기 친부모라며 아이를 찾아올까 두려워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부부와 이를 알고 있는 친지들에게조차 이 아이의 출

생의 비밀은 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부부의 고통보다 비밀을 모른 채 언젠가는 터질 시한 폭탄을 보유하고 살아야 하는 아이가 더욱 애처롭게 보였다. 입양 사실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 모두 나름의 두려움과 좌절과 충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공개했을 경우에 당하는 고통보다 훗날 비밀이 터졌을 때 받는 고통이 더욱 큰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입양은 입양부모에게 금단의 열매인가? 또한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출생의 비밀은 그 누구도 대신 해 줄 수 없는 당사자인 아이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인가? 하고 생각하니 혼란스러웠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연구자는 입양아들의 입양 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해외입양아들의 입양 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고, 연구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입양부모들이 비밀로 해야 할 것인가, 공개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 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와 인종이 다른 지역으로 입양된 아동들은 입양부모들이 공개할 것인지, 비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조차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이들이 만약 영아기 때 입양 되었다면 자라면서 채 5년도 안 되는 시점부터 자신과 다른 인종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것이며 이러한 의구심에 입양부모는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선택의 여지없이 공개를 해 줄 것이다. 다만 ‘어떻게’가 중요할 뿐이다.

친부모에게서 분리되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나가야 하는 한 해외 입양아의 길을 미리 추적해 보고 있노라니 현기증이 났다. 같은 피부색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을 것이고 민족성에 대한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 아이는 결혼할 대상자를 같은 인종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도 가능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혈연관계일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또한 특히 성장기에 부딪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문제로 비입양아는 겪지 않아도 될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으로 사춘기를 보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고민과 혼란은 길러준 입양부모와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입

양아도 이들의 정체성의 문제는 입양아 당사자의 몫이 되고 그 기간은 국내 입양아보다 길고 모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s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에서 간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여성복지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연구자로서는 여성문제와 여성복지 현장 및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s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란, 「사회복지사업법」 7조의 규정에 따라 「s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민관 협력 기구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복지 자원을 확충하며 수요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조직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협의체는 지역 내 대표성을 가진 대상별 민간과 공공의 협의체로서 s 지역 안의 사회복지 사업의 중요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을 검토하고 심의하며, 지역 사회의 복지 계획을 수립, 변경, 평가와 서비스 연계 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실무 협의체는 각 실무분과의 대표들의 협의체로서 사회복지 연계와 조직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 사례를 통합 논의 한다. 실무 분과에서는 아동, 여성, 장애, 청소년, 자활 등으로 대상별 세분화 되어 있으며 각 대상별 복지 서비스를 조정, 연계하기 위해 실무적 논의를 하며 실제적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을 전달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s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의 여성분과는 s시의 여성관련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며 실행하는 실무분과로 역할과 기능상 s시의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로 이루어진 협의체이다. 이러한 관계로 초기 여성분야 실무분과의 구성원들은 s시의 여성정책과에서 추천한 여성관련 복지 기관 및 단체들로 이루어졌다.

s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2006년도

상반기에 잠시 미혼모에 대해서 논의 된 적이 있었다. 시간상 미혼모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입양관련기관으로부터 입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화된 입양 정책과 미혼모의 자립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완화 된 입양 정책을 접하면서 입양기관이어서인지 미혼모의 출산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강조하였으며 여성분야에서 일하는 분들도 한결같이 미혼모의 자립과 빠른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성복지단체 NGO들은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를 요보호여성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에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의 자립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지 모성을 지지해 주는 지원방안에 관한 고민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성을 지원해 줘야 할 상황이라면 단지 양육을 선택한 미혼양육모인 여성의 자립을 지원 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고 그 정책에서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구로 보육의 필요함이 강조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분과에서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모성 지지차원에서 양육지원과 함께 고민하길 바라는 나의 관점은, 여성의 모성은 곧 보살핌이고 그 보살핌의 내용은 노동이기에 희생을 전제로 한 모성에서 탈피 해야만 여성 개인이 행복 해 질 수 있다는 관점과는 차이가 있었다.

영아의 발달적 측면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모성이 여성의 행복에 방해물이 된다는 발상은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었다. 아니 이해조차 되지 않았다. 모성이 무엇인가? 엄마로서 자식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하는 자연스런 보호 본능 아닌가? 그렇다면 남성은? 남성도 부성애가 있고 부성애의 저변에는 자식을 사랑하려는 본능적인 마음과 그 마음이 보호본능으로 표출되는데 남성도 여성처럼 부성을 보살핌이고 노동이라 여기며 희생이라 생각한다면 부성 때문에 남성 개인이 행복해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일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 여성주의자들은 그럴 것이다 가부장제의 특권을 부성애에다 견줄 것인가 하고 말이다.

부성은 댓가가 있어서 희생이 아니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모성은 희생? 무척 혼란스러웠다. 연구자가 여성분과에 참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여성문제를 지엽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기인 탓도 있었지만 모성이 여성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 봐도 ‘그렇다’ 라는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모성이 여성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라는데 동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모성이 여성의 행복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명확히 떠오르지 않아 설득하기가 까끔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한계가 한동안은 혼란스럽게 하였다. 연구자의 마음속에서는 모성과 여성의 행복은 분리될 수 없다고 외쳐대면서 말이다.

얼마 후 여성상담소를 운영하는 대표에게 진지하게 여성에게 있어서 모성 즉 양육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말하였다. 그러자 아동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아동밖에 모른다는 말과 함께 여성문제에 대하여 의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양육에 관한한은 아동 보육분과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라고 하였다. 아래는 여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여성 NGO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생각이다.

남녀 성관계의 부산물(?)로 생겨난 임신은 모든 여성들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커다란 짐이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치 않는 아이로 인해 ... 그 여성이 자신의 길을 가기에 얼마나 힘든지 겪어 보지 못한 여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2006. 04. 여성상담소 대표 개인면담-

임신과 출산은 기쁨이기보다는 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하였다. 그래서 불현 듯 연구자가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 보았다. 연구자의 대답은 쉬웠다. 임신은 기쁨이었고, 출산은 설레임이었고, 모성은 기능적이 아니라 본능적이었으며, 양육은 아이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준비하지도 않았던 대답이 연구자의 입에서 나왔다. 머리가 뺨 뚫리는 것 같았다. 왜, 그 누가 연구자의 모성을 희생이라고 단정 지으려드는가? 몇몇

여성 개인의 힘든 양육 경험을 여성 모두에게 일반화시키려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미혼모 및 미혼양육모의 복지를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만 해결하려 든다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특히 미혼양육모에게 있어서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는 것은 무인도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진 결정이다. 즉 자녀를 선택하면서 아이의 친부와 원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친구들과 단절되며, 순결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찍히고, 홀로서기가 힘들 정도로 가난하며, 아이가 있어 구하기 힘든 직장, 혹은 아이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아이를 선택함으로써 모두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선택하였다는 것은 가시밭길 험난한 인생길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스스로 양육을 선택한 미혼양육모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모성애의 충실함을 반영한 결과라는 믿음이 생겼다. 즉 미혼양육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은 여성이라는 ‘性’을 넘어, 자신을 통하여 만들어진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의 이행이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자 미혼양육모들의 양육에 대한 결정에 숭고함마저 느끼며 이들의 선택과 결정에 힘을 주어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생겼다.

미혼양육모들의 양육 결정과 이들의 양육의지를 지원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신념이 형성 될 때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난제가 마치 국가관처럼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 양육지원과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면 나의 관심은 더욱 고무되었다. 미혼모 관련 입양 정책과 미혼양육모 관련한 이슈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출산이라면 출산 장려정책이 정답일진대 현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가 되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자녀관도 많이 변화 되어 아이를 원치 않는 부부일 경우에는 출산을 독려할 방법이 많지 않을 거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의미에서 아동을 입양시키지 않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양육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즉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을 결정한 미혼양육모의 양육에 관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매년 천 명 이상 해외로 입양 되어 나가는 입양아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친모가 직접 양육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안정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예측은 출산 중심의 미혼모 시설을 퇴소하여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임을 감안한다면 생애초기 전반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양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미혼양육모의 개념 및 양육 현황

#### 1) 미혼양육모의 개념

미혼양육모는 양육미혼모라고도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미혼모가 미혼양육모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어법상 미혼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의미에서 미혼양육모로 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혼 양육모의 개념을 살펴본다면 미혼양육모란 혼전에 임신했다는 미혼모라는 개념과 아기를 양육하는 엄마라는 두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미혼양육모는 모자인 한 부모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혼전 임신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두어 '미혼모'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되어 왔다(이재정, 2003).

여기에서 미혼모(unmarried mother, unwed mother)란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NASW, 1965, 797, 최경화, 2006에서 재인용), 정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가정'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한부모가정'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홀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자나 모자 가정, 거기에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모(母)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자 가정,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동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미혼모의 자격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 여성이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복지대상에서 제외되며 미혼모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한편 황옥자와 윤미현은(1996) 미혼모가 결혼제도를 통하지 않고 성관계를 갖고 임신함으로써 비합법적인 아동을 출생시킨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미혼모의 개념을 아기를 임신하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별거, 이혼 과부로서 본 남편 이외의 아기를 가진 여성. 즉 미혼은 물론 기혼까지 포함해서 미혼모라 정의하고 있다(한인영, 1998).

미혼모의 정의가 이처럼 문헌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미혼 양육모의 개념은 미혼모처럼 활발하게 문헌상에서 정의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정용순(2002)에 의하면 국내에서 처음 사용된 미혼 양육모의 개념은 '미혼모들 중 아기 장래 결정에서 입양 등이 아닌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로서 아동을 출산한 후 입양이나 시설 입소를 결정하지 않고 스스로 양육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임신중인 아동을 스스로 양육하겠다는 결심을 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외국의 경우는 미혼으로 임신 했을 때 대부분 아기의 양육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나 미혼 양육모를 'single mother'로 칭하며, 10대 모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십대 한부모'( young single mother) 또는 '십대 모'(teenage mother)로 분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한부모 안에서 분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혼 한부모' (unmarried lone mother', 'young unmarried lone mother)라고 불린다(이재정, 2003).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미혼양육모의 다양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의 정의를 내린다면 '합법적인 혼인관계에 의하지 않고 자녀를 분만하여 직접 양육을 하는 여성' 이라고 할 수 있다.

## 2) 미혼양육모의 현황

미혼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주로 시설이나 입양 아동의 입소 수

와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아동 발생 수, 통계청의 출생아 수 통계로 측정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09년 가족통계현황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수는 2000년 1,273명, 2002년 1,673명, 2005년 2,123명, 2008년 2,65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보건복지가족부 통계, 2009). 표1은 국내외 입양아 수와 미혼모 자녀 비율을 나타낸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자료이다.

<표 1> 국내 외 입양아 수와 미혼모 자녀 비율

(단위: 명, %)

년도	국내 입양			해외 입양		
	입양아	미혼모자녀	비율	입양아	미혼모자녀	비율
1997	1,412	1,064	75.4	2,057	2,018	98.1
2000	1,686	1,369	79.3	2,409	2,253	93.5
2003	1,564	1,181	75.5	2,287	2,283	99.8
2005	1,461	1,095	74.9	2,101	2,069	98.5
2007	1,388	1,045	75.3	1,264	1,251	99.0
2008	1,306	1,056	80.9	1,250	1,114	89.1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정책과(200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아동의 대부분은 국내입양 평균 75%이상, 해외 입양 평균96%로 미혼모의 자녀들로 이루어져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입양아 중 미혼모의 자녀는 2005년 74.9%, 2007년 75.3%, 2008년 80.9%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입양아동수도 줄어들었지만 그 가운데 2008년도에 들어서서 국외 입양아동이 1,250명, 국내 입양 아동이 1,306명으로 국내 입양아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미혼양육모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 현상은 통계청(2008)의 출생아수에서도 알 수 있다. 통계청 2008년 인구동향 조사 내용 중 부모의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아수에 의하면 ‘혼인외의 자’의 수는 1997년도 4,196명, 2003년 6,082명, 2007년 7,774명으로 현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을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8).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모의 법적혼인상태별 출생아 수

연도	총 계	혼인중의 자	혼인 외의 자	미 상	(단위: 명,%)
					혼인외의 자 비율
1997	668,344	664,148	4,196	0	0.6
1999	614,233	608,155	4,716	1,362	0.8
2000	634,501	627,336	5,540	1,625	0.9
2003	490,543	480,110	6,082	4,351	1.2
2005	435,031	425,653	6,459	2,919	1.5
2007	493,189	483,275	7,774	2,140	1.6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8. \*주: 미상은 영아사망자, 버려진 아이들의 수치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년도 별 ‘혼인 외의 자’의 수가 점차 증가 하고 있으며,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의 자’의 수도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997년 ‘혼인 외의 자’의 수는 전체 출생아 수 대비 0.6%를 차지하였으나, 2003년도 0.9%, 2007년도에 1.5%를 차지하여 전체 출생아 수 대비 혼인중의 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혼인 외의 자’ 수는 매우 높히 증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미혼양육모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양육의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미혼모시설의 미혼모 1,120명을 대상으로 양육의사를 조사한 연구에서 31.7%의 미혼모가 양육의사를 표현하였으며(허남순, 2005), 이미정(2008)의

조사연구에서도 2001년도에는 11%였으나 2007년도에는 65%이상이 양육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미혼 양육모의 양육의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혼양육모의 연령층이 과거에 비하여 고연령이 되어 가는데 2005년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1996년은 10대가 63.8%, 2004년 43.9%로 감소하지만, 20대는 33.7%에서 2005년에는 43.6%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05). 또한 미혼모의 학력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김유경(2006)에 의하면 1980년대에 중학교 이하의 비율이 46%, 1990년대 25%, 2000년 15.1%이고, 고등학교는 각각 48.1%, 65.7%, 대학이상은 각각 6.0%, 8.8%, 19.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06).

### 3)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은 생후 24개월 전의 영아와 미혼양육모를 위한 생활시설이며 2년 동안 거주 할 수 있고 교육 및 취업 등 시설장이 판단하여 연장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1년 정도 더 머무를 수 있다. 이 곳에서 지원 되는 서비스로는 숙식과 생활비를 제공해 주며 미혼양육모의 자립을 위한 교육도 지원해 주고 있다.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은 2003년도에 ‘중간의 집’으로 불리며 시범적으로 사용 되다가 이후에는 ‘양육모 중간의집’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 ‘양육모그룹홈’으로 변경 되면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미혼모 지원 현황 및 대책 관련 자료에 의하면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은 전국에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현황

시설명	시설수 (정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양육모 그룹홈 (중간의 집,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19개소 (391명)	2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숙식제공, 생활비 지급, 직업교육 등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내부자료

한편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은 각 공동생활가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취업교육, 심리 상담, 육아지원,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주로 간호조무사과정, 피부미용사 과정, 네일아트 과정, 조리사 과정 등 기능을 익히는 교육들이 많으며 미혼양육모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자립을 위한 육아지원으로 보육시설을 연계해 주거나 아이 돌보미를 지원해 주며,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및 상위학교 진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미혼양육모의 출산과 양육

우리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출산에 계약을 매개로 하는 현행 법률혼은 이들의 출산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따른다(차선자, 2010). 이는 사랑이 전제된 남녀의 혼전 성관계가 더 이상 부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녀 출산만은 합법적인 남녀관계, 즉 결혼제도를 통과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가족제도에 가두고 있다(김혜영, 2009). 이런 점에서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공개 될 수 없는 개인사이자, 당사자인 여성에게는 평생에 걸친 불명예의 낙인을 안겨주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김혜영, 선보영, 2010). 이처럼 낙인을 출발점으로 자녀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양육모들의 생활과 문화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미혼양육모가 각종의 사회적 진출을 하는데 장애로 작

용하게 된다. 때문에 자립을 전제로 자녀의 양육을 선택한 미혼양육모들의 입  
장에서는 사회적 진출의 벽이 높아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한 자립과 자신의 선택에 의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노  
출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미혼양육모의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 결  
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출산과 양육 환경

### 가. 미혼양육모의 출산환경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거나 가족들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와 관련한 감정들과 어려움을 가족들에게 토로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교류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있다(최승희, 2010). 그 이유  
로는 미혼양육모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낙태시기를 놓치거나, 낙태  
시술에 대한 두려움 등 낙태요인과 관련하여 결정하게 된 경우가 절반 이상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김지혜, 안재진, 2004). 입양결정과정과 출산 후  
미혼모의 슬픔에 미치는 대상이 가족보다 미혼부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김지혜, 안재진, 2004).

김유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홀로 자녀를 출산해야하기에 대부분 미혼모  
는 출산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  
한 상태에서의 출산은 미혼모 중 대다수가 피임방법을 모르거나 피임사용에  
실패한 경우, 임신을 인지한 시기가 늦었거나 임신 후 이에 대한 의논 상대가  
미혼부와 친구 등으로 매우 제한됨으로서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출산 결정을  
한 미혼모의 출산 환경은 대부분 비의료기관으로 출산에 대한 주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려움과 정보의 부족,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한 출산  
을 보장해주는 보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김유경, 2007).

#### 나. 미혼모양육모의 양육 결정 동기와 양육의 어려움

미혼양육모의 열악한 출산환경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입양할 것인지, 혹은 자신이 직접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미혼양육모들의 양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으로는 미혼모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미혼모의 부모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김혜영, 선보영,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에 따르면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게 되는 동기로 ‘내 아기는 내가 키워야 하므로’가 가장 많았고, ‘아기를 사랑해서’가 두 번째로 많아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이 양육결정 동기라고 하였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모자신이 임신을 원했을수록, 자녀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모로서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범적인 양육가치관을 지닌 양육미혼모들이 양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김혜영, 선보영, 2010).

한편 미혼양육모가 입양을 선택했다가 양육결정을 뒤늦게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2009년 최영희 국회의원실 주최로 열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제시한 3가지 양육결정 어려움은 친권포기각서의 중용, 충분하지 않는 양육 및 입양결정 상담,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를 입양하였다가 양육으로 변경할 경우 그동안의 자녀 위탁비를 미혼모에게 부담시키는 부분 등은 양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최형숙, 20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위한 국회공청회’ 자료 재인용). 또한 어려움 끝에 양육을 결정하였지만 양육을 선택하였으면서도 미혼양육모들은 양육 결정이 잘 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후회를 하기도 하며(김윤아 외, 2008), 임신과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 즉 미혼부와의 관계정리, 가족과의 관계 개선 문제, 자신이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임선희, 2008).

이러한 다양한 과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결정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양육모들은 또 다른 문제와 부딪히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의 조사에 의하면 미혼양육모가 양육 결정 후 가장 힘든 점이 경제적문제가 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임을 뜻한다. 또한 미혼양육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빠가 없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여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주거문제, 취업문제, 보육시설 부족 문제, 의료서비스 미흡 문제, 미혼부와의 관계 문제, 양육모의 부모역할 미숙으로 인해 쌓이는 양육스트레스, 낙인화된 삶(이재정, 2003)등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과제와 함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미혼양육모의 어려움은 양육결정에 있어서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 (2) 영아발달과 양육 환경

영아기(0-만2세)는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아의 발달적 특성과 발달을 촉진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양육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우선 영아 시기 발달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아의 신체적인 발달을 살펴보면 누워있던 영아가 앉고, 기고, 서고, 이동하는 능력이 형성되며,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울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던 영아가 웅얼이, 한 두 단어 시기를 거쳐 완전한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서적으로는 부모나 자신을 돌보아 주는 대상에게 애착심을 형성하며,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점차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이러한 영아기의 발달은 전 영역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이는 영아

기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질 때 자극을 받은 한 영역의 변화는 곧 다른 영역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른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Thelen, 1990). 이처럼 영아발달의 모든 영역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예컨대 영아기의 높이 지각은 공포심을 발달시키고 이는 영아의 신체 발달이 곧 인지 및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아가 걷기 시작하면 영아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영아기는 신체발달에 있어서 급속히 진행 되는 성장 급등기이기도 하다. 즉 출생 후 자신의 몸을 조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에서 최소 생 후 일 년 후면 스스로 이동 가능한 독립된 존재로 발달 한다. 말하자면 기고, 앉고, 서고, 걷고, 뛰기를 만 2세경이면 할 수 있으며, 운동 발달을 성취하는 속도는 개인차가 있으나 운동 발달을 성취하는 순서는 일정한 계열성을 갖고 있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때문에 영아기동안의 운동 발달의 정상적인 흐름은 뇌 신경계와 인지발달의 정상적 발달을 예측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아기는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여러 영역에 있어 발달의 기초를 이루는 결정적 시기가 된다(Snow, 1998). 이러한 영아기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갖는 의미는 이 시기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영아기의 심리 정서발달은 미소로 시작하여서 분리 불안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컨대 영아는 생후 6개월 이내에 사람의 얼굴에 대해 미소로 반응해 주고, 생후 1년 이내에는 낯선 사람에게서 낯을 가리며, 생후 1년 반에는 친숙한 사람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사람을 보면 미소 짓거나, 눈으로 좇거나, 입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내거나 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관심의 출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특성은 이 시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정서발달과 함께 1년 6개월경부터 약 3세경까지의 유아 전기에는 운동 능력 발달과 함께 이동능력이 발달하면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적응해 갈 수 있으며 언어 발달도 눈부시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김재은, 2000).

이처럼 영아기는 개인의 발달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기능이나 사고과정을 위한 기초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성장 발달 단계에서 특정한 발달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한편 영아기에 있어서 양육환경의 중요성을 물리적인 환경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cCartney 와 Scarr(1983)는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사고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물리적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영아기 발달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중앙보육정보센터, 2010)에서는 소규모 보육시설 내의 가정에 알맞은 항목으로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며, 시설과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아 전용 보육실 내지는 영아가 주로 활동하거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실내 환경은 넓은 거실, 포복실, 유희실, 영아용 침구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습과 발달을 자극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재와 교구 등이 눈에 잘 띄는 곳에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실은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소화용 기구와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추 두어야 한다. 그리고 영아가 만 2세경이 되면 활동 범위가 넓어지므로 이를 대비하여 모든 출입문은 바깥 쪽에서 열수 있게 하고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않도록 손끼임 방지나 완충장치를 설치하며 모든 약품 및 위험 물품은 영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중앙보육정보센터, 2010). 이와 더불어 영아는 배변, 낮잠, 휴식, 식사, 간식, 세면 등 생존과 건강에 관련된 기본생활을 위한 시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한 기본적인 영아용 생활 용품 외 애정과 관심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적 자료도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영석, 2006).

영아기의 물리적 환경이 갖는 의미는 영유아들이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내는 표현의 장이라기보다는 생득적 수단의 획득을 위한 첫 학습의 장(場)이 된다. 따라서 건강, 위생, 청결,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와 생체리듬을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한편 영아기는 발달적 특성상 심리사회적 양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양육환경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 Bowlby(1969)는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의 표상은 어린시기에 완성되고 일생동안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후 Ainsworth는 애착의 개념을 아동이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성하는 애정적 유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아동으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안정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Ainsworth et al., 1978; Sroufe & Waters, 1977). 이와같이 애착발달이론에서는 영유아기 부모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였으며,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생후 초기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불안정한 애착의 형성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서적인 불안감이나 우울증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으며(Colins & Read, 1990)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

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hn, 1991).

이처럼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아동의 이후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에 비해 이후의 발달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경향성을 갖는다. 생후 1세 전후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들은 2세가 되었을 때 문제 해결력이 더 높았고(Frankel & Bates, 1990), 상상놀이에서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놀이를 보였으며(Pipp, Easterbrooks, & Hamon, 1992), 또래들에게 더 매력적인 놀이 친구로 선호되었고(Fagot, 1997), 놀이를 주도하고 또래들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하며,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좋았다(Waters, Wippman, & Sroufe, 1979)고 한다. 이와같이 영아기 초기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 행동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Webster-Stratton & Herbert, 1994).

한편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행동 특성(Becker, 1964)으로, 자녀에 의해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양식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부적 행동을 통칭한다(오성심, 이종승, 1982). 이러한 양육행동은 영아의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양육행동의 질적 특성 중에서 자녀에게 갖는 긍정적인 태도, 자녀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 상호 작용에 있어서의 조화와 일치 여부, 다양한 자극과 정서적 지지는 영아의 안정적 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 된다(박경자, 2001). 영아의 안정적 애착을 위한 핵심적 요소 중 민감성은 Douville(1994)에 의해 어머니의 민감성을 양육행동에 반영하기 위한 개념으로 강조되었다. 그는 양육행동의 주요 요소로 3A's를 제시하였는데 3A's란, 어머니가 영아에게 보이는 민감한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절한 주의(attention)를 기울이고 온정적인 신체적, 정서적 애정(affection)

표현을 하며 영아의 행동에 대해 승인(approval)을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3A's 원칙을 양육시에 적절하게 실천 할 경우 영아는 양육자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안정성은 특정한 행동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신뢰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에서부터 얻어진다. 이러한 3A's를 바탕으로 영아가 요구하는 신호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 영향은 영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측 할 수 있다. 이렇듯 영아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 영아의 안정적 애착 형성은 어머니의 민감성이 전제된 양육행동과 관련이 높다.

## 2.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 및 서비스

### 1) 미혼양육모 관련 국내 정책 및 사회적 지원서비스

#### (1) 관련 법

미혼양육모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와 사회보장 서비스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혼양육모를 위한 법률 관련 지원 서비스는 민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가. 민법

제781조에서는 미혼모 아동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이 개정된 것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에 의하여 양육되는 한부모가정을 포함 한부모가족의 한 유형인 조손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취학 중 아동의 보호연령을 20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였으며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지원 사업,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생계비, 아동양육

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 복지자금 대여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나 전세금 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급여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라. 영유아보육법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마. 모자보건법

가족계획사의 기초법으로 이에 근거하여 성교육과 피임 계몽 및 서비스, 임신중절 등을 통한 미혼모 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바. 의료급여법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아. 아동복지법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및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내외 입양사업의 기본법으로 입양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자. 건강가정기본법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와 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소외가정(장애인가정, 모부자 가정, 미혼모가정, 자활공동체가정, 노인단독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차. 기타: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기본법으로 인적, 시설적 서비스를 통한 보호, 지도, 치료, 재활 등의 비금전적 급부를 실시하는 법의 총체를 말한다.

## (2) 관련 정책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은 2005년 1월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국이 맡아 왔지만 2008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지원과에서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미혼양육모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서비스와 고용지원정책서비스, 시설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지원정책 및 서비스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 미혼양육모 관련 경제적 지원 정책 및 서비스

구분	근거	지원내용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가 지급되고 중·고교생의 교복비, 급식비, 부교재비 등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로는 중·고교생의 학비지원.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양육수당 5만원 만 10세 미만
복지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법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장기저리의 복지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한다.

다음은 미혼양육모 관련 고용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해당되는 사업들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지원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과 저소득 창업지원 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이며 대상은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미혼양육모 관련 고용지원 정책 및 서비스

구 분	지 원 내 용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자활후견기관은 가장 대표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근로능력 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으로 자활 촉진에 필 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가장들 역시 자활후견사업, 복지자금대여 등을 통해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
저소득 창업 지원사업	정부에서 저소득층 개인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생업자 금 융자'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의한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을 들 수 있 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족의 가장들 역시 창업지원사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 공동체에 대한 창업자금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등 사전, 사후관리서비스 를 제공하여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 유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기초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고 시 군 구청장의 대출 추천을 받은 자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표 6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혼양육모 관련 시설지원 정책 및 서비스 내용이다. 즉 정부에서 지원 해 주는 시설 보호서비스와 상담서비스,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미혼모지원 거점기관 선정 등으로 이루어졌다. 시설보호서비스는 정부주도적인 서비스이며 시설의 입, 퇴소는 시,군,구청에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걸쳐서 결정된다. 그리고 상담 서비스로 는 한부모가족의 가족지원정책과 요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수준이 며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는 여성 가장 희망센터의 사 례관리 사업으로 빈곤가장 여성들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 서비스에 해당된다.

또한 미혼양육모 관련 독립적 서비스인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은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미혼모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미혼모(부)가 위기생활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로 지원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 미혼양육모 관련 시설지원 정책 및 서비스

구 분	지 원 내 용
시설보호서비스	우리나라 한부모 가족이 제공받는 시설보호서비스는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다. 시설의 입·퇴소는 시 군 구청의 담당자와의 상담을 거쳐서 결정된다.
상담서비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관한 상담, 지역사회 내 한부모가족시설의 이용안내 및 알선, 기타 요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정보제공 수준의 상담으로 평가되며 실질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의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여성가장희망센터의 사례관리 사업으로 빈곤 여성가장들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서비스이다. 여성가장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점관점의 해결중심 접근의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개별상담서비스 및 가족상담서비스, 집단상담서비스, 부모교육 제공, 결연후원 연계,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미혼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미혼모 임신 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운영. 이를 통하여 미혼모(부)가 위기생활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임신초기부터 상담 및 정보제공, 자녀 출산 양육 및 응급 상황시 도움을 지원하고, 전국적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거점기관을 운영 한다.

### (3) 관련 사회적 지원 서비스

다음은 우리나라의 미혼양육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는 모부자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미혼모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에 모두 이용 가능한 시설에 해당된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표 7> 한부모가족 시설 현황

(단위: 개소)

년도	모부자보호 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 시설	미혼모자시 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계
2005	40	4	14	18	9	85
2006	41	4	14	20	16	95
2007	42	4	14	25	15	100
2008	42	3	14	27	19	105

\*보건복지가족부[200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9.

위의 한부모가족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점차 미혼양육모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영육아기 자녀를 둔 미혼모 및 모자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원하는 미혼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혼양육모 보호시설 및 자립지원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의 미혼모자시설 퇴소 후 아동양육을 위해 입소하게 되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시설 현황을 보면, 2005년 9개소, 2006년 16개소, 2007년은 15개소로 잠시 감소하는 듯하다가 2008년도에 19개소로 또다시 증가 하였다. 그나마 충남, 전북, 경남은 미혼모자시설이 없고, 대전, 충북, 전북, 경남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도 없다(보건복지부, 2008).

다음의 표 8은 미혼양육모 관련 시설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미혼모자 이용 및 생활시설에 관한 운영 내용이다.

<표 8>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서비스 내용

시 설 종 류	입 소 대 상	지 원 내 용	보호기간 (연장기간)
모자보호시설 (42개소)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 (2년)
부자보호시설 (1개소)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지원	3년 (2년)
모자자립시설 (3개소)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족 및 모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이 미흡한 세대	주택편의 제공	3년 (2년)
일시보호시설 (14개소)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숙식, 의료,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	6월 (6개월)
미혼모자시설 (27개소)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 아동의양육지원이 요구되는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분만 의료 지원, 인성교육 및 상담, 자립지원	1년 (6개월)
미혼모자공동 생활가정 (19개소)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 양육교육	2년 (6개월 2회)
요보호여성 긴급 피난처	*위기에 처한 모자가족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의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보호가 가능 *전국 28개소		
재가저소득 모자가족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정부가 주는 저소득 모자가족 혜택 받음 *2000년도 저소득 모자가족 선정기준 : 2인 기준 450만원 이하의 재산과 월 54,000원 소득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도 모.부자복지사업」,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공포 2009년 12월 146호)

한편 미혼양육모 복지대책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노동부이며, 지방자치단체(시, 도, 구, 군) 등으로 전달된다. 시, 도에서는 가정복지국이나 사회국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미혼양육모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만 실제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된다.

## 2) 미혼양육모<sup>6)</sup>관련 국외 정책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 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로 인해 이혼·별거 등 한부모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특히 미혼부모로 구성된 한부모 가구 비율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Jones, 2007; Gonzalez, 2005).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미혼양육모 지원 정책은 대부분 한부모가정지원 정책하에 발달 되어온 보편적인 가족복지정책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각 국의 미혼모라는 명칭은 single parent, lone parent, single mother, unsupported mother로 불리는데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가 가장 널리 쓰인다. 간혹,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하여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미혼모를 비혼모, 미국의 경우에는 편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무의탁모 unsupported mother)로도 불리고 있지만 정책 및 제도 영역내에서는 포괄적 개념인 독신모(single mother)로 통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통용되고 있는 미혼양육모 가족의 국외 정책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관련 법

가족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서 국외의 미혼양육모 가족을 위한 관련법은 서로 다른 나라

---

6)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이 별도로 없이 한부모 정책하에 시행 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미혼모 정책도 독신모, 독신부모 정책하에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법률상 명칭(독신모, 독신부모)과 미혼모를 병행해서 사용하기로 함

와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발달 되어 왔다. 그러나 각 국의 미혼양육모 관련 법은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양육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양육모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의 미혼양육모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미혼양육모 정책을 독신모 정책에서 실시되며 가정(female-headed single parents families)을 위한 공공부조 즉, 복지수당(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을 「모자 및 과부복지법」에 근거하여 각종 세제혜택, 취업교육, 주택보호, 소득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또한 모자가정 등에 대해서 육아, 생활지원책, 취업지원책, 양육비 확보책, 경제적 지원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유연규, 2009). 사회보장 제도가 전반적으로 잘 된 캐나다는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은 아동을 키우는 독신모(lone parents with children) 관련 정책의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의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만 18세 이하 자녀에게는 매월 c\$160-200가량의 양육비가 제공되며, 이혼녀나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은 생활비 및 학비 무료혜택과 자녀 양육비 등 생활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독신모에게 매월 자녀 수당이 지급되며,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특성과 아동의 연령 및 수에 따른 세제혜택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독신모들의 자립 및 취업에 정책적 목표를 두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 10대 미혼모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인 영국은 미혼모 관련 정책을 모자가정 혹은 독신부모(lone parent)의 커다란 정책적 틀 안에서 다룬다. 10대 미혼모의 문제를 아동의 발달과 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한 「Sure Start」의 일환으로 「20 Sure Start Plus」에서 10대 및 20대 미혼모들의 교육기회 및 학업성취와 취업기회의 제공을 강조 한다. 또한 영국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운동을 포함한 아동보호 전략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가 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경로를 마련하여 노동시

장에 참여하는 한부모들의 전체적인 숫자를 증가시키고 있다(유연규, 2009).

독일은 제도적 복지체계를 갖춘 사회보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 부분과 비교하면 국가의 개입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일의 미혼모 관련 정책 및 제도는 미혼모 중심이 아니라 아기 양육지원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특화된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 독신모 가정으로 통합되어 관리되며 독신모가정과 혼인가정 사이에는 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독신모 가정의 아동은 혼인가정의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큰 흐름이다. 또한 스웨덴은 미혼모 양육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제도가 발달한 국가로 미혼모에 대한 낙인이 없고, 미혼양육모 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특성이 있다. 때문에 신생아 3명 중 1명이 미혼모에게 태어난다 할 정도로 미혼모가 많은 나라이며, 재산권이나 아동양육권 등에 미혼양육모 가족이 법적 차별을 받지 않으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우위성을 부여받고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09, 재인용).

## (2) 관련 정책

가족정책이란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조와 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 문제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더 건강한 가족과 사회를 유지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다(송정애, 정혜은, 2007).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며 분야와 대상도 다양하기에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각국의 미혼양육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미혼양육모 복지 정책은 청소년의 10대 임신을 예방하는 방향과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며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계 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정부는 직업훈련제공, 취업알선 등 여성가

구주의 취업을 통한 모자가정의 자립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본의 미혼모 정책 방향은 공공부조나 저소득층 모자가정 정책이 핵심이며, 여성의 취업을 통한 모자가정의 자립을 강조하여 3세 미만의 아동을 둔 모든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공공보육시설의 보급도 높은 편이다. 또한 빈곤 모자가정에 대한 현금적 지원에서 벗어나 직장의 제공과 알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정책 방향은 독신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조 혜택과 취업에 초점을 둔다. 예방차원에서 아동에게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여 미혼모의 발생률을 줄이고, 미혼모에게는 다양한 보육시설, 사회적 서비스, 교육수당 등을 제공하여 빈곤과 복지의존에서 탈피하도록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통해 아동양육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고 있다(유연규, 2009).

한편 영국의 미혼양육모 복지 정책의 방향은 독신부모 정책과 통합되어 관리되며, 10대 미혼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10대 미혼모를 위한 정책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의 비율을 줄이고 미혼모와 자녀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통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독일의 정책방향은 1998년부터 시작된 「The Act on the Equal Rights in Inheritance Law」의 개선으로 모든 아동은 부모의 혼인상태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 면에서는 독신모 가정에게 불평등한 부분이 있으나, 미혼모를 독신모로 통합 이해하면서,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유연규, 2009).

스웨덴은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를 위한 보험 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의 독자적 권리를 확보하고 아동가구와 비아동가구간 생활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남녀간 성별분업의 철폐를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목적으로 한다(유연규, 2006). 따라서 스웨덴의 미혼양육모를 가족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양성평등주의에 입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관련 사회적지원 서비스

국외의 미혼양육모 가족을 위한 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는 가족복지정책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한부모 가족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와 국가가 지향하는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유형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각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미혼양육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미혼양육모 복지 정책내용은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sup>7)</sup>, 아동세액공제(CTC-child tax credit)<sup>8)</sup> 등의 세금정책을 시행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로는 복지수당(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sup>9)</sup>이 시행되며, 의료지원으로는 의료보호, 모자건강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10대 임신예방 프로그램, 특별학급 및 대안학교가 제공되고, 주거지원으로는 모자원, 양육모그룹홈 등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미혼부를 대상으로 양육비지급 강제제도가 시행되고,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영양보충프로그램(WIC-Women, Infants, and Children)<sup>10)</sup>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미혼모 정책내용은 보편적 사회보

7)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하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다

8) CTC( child tax credit): 17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납부자의 세액을 공제하는 환급제도

9) TANF(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월 소득 평균이 \$784 이하일 경우, 또는 자산이 \$,1000 이하일 경우 복지수당을 제공받게 된다. 4년간 제한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1세 이상의 자녀를 둔 수급부모는 일을 해야만 지급대상이 된다.

10)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저소득층 유아와 아동, 그리고 임산부와 산모들에

장으로는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며,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모자 및 과부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부양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모자 과부복지대출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자립지원 교육훈련급부금사업, 모자가정고등지능 훈련촉진비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성교육 등 예방정책과 주거지원으로 공영주택 우선입주와 편부모월세조성제도 등이 시행되고, 기타 다양한 모자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생활지원 및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내용은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으로 자녀세금우대(CCTB)<sup>11)</sup>, 장애아동급여 등이 제공되며, 저임금 고용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이나 직장내의 보충급여제도를 시행하고, 공공부조 자격요건에 한부모가정을 포함하여 공공부조를 실시하며, 의료지원으로 국민건강프로그램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지원으로 학자금대출 보조, 수입에 따른 상환 용자제도, 학교 계속다니기 운동프로그램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성교육 등 예방정책과 주거지원으로 정부보조 주택 입주 혜택을 주며, 주택수리비용을 보조하고, 기타 부성책임을 강조하고 있다(유연규, 2009).

영국의 정책내용은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SMP-Statutory Maternity Pay)<sup>12)</sup>가 지급되고, 16세 미만의 아동 또는 16~18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 아동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취업부모들을 대상으로 보육세금 공제, 육아보조금의 확대,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 및 저소득층 모자가정 정책으로 출산수당, 소득보존 부모가정아동 임시급부와 가계소득보조

---

게 최소한의 영양과 필수 예방접종을 국가와 주정부가 제공해서 이들이 노출될 수 있는 더 큰 보건상의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민들의 위험도 줄이자는 것

11) CCTB(Canada Child Tax Benefit) : 저소득층의 자녀(가구소득 3만5천달러 미만)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

12) SMP(Statutory Maternity Pay): 법정출산급여

급부, 편부모를 위한 추가 소득보조, 보조급부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는 가정으로부터 무료서비스와 산전·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및 훈련 지원, 성교육 및 예방정책을 제공하며, 주거지원으로 시설제공, 임대료와 세금의 할인 및 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유연규, 2009). 독일의 정책내용은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으로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세금공제를 실시하고, 아동의 출생후 18세까지 아동수당과 아동양육수당이 제공되며, 10세 이하의 부양아동이 있는 여성에게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로 부모 1인당 월152유로 지급되는 아동조세감면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혜택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아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아동조세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09, 재인용).

또한 3세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독신모에게 공공부조, 모부자가정 생활비지급 청구제도 등을 실시한다.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독신모에게 아동 1인당 연 20일 유급간호휴가를 제공하고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학업지속 교육, 직업교육비 및 자녀학비 보조금과 장기유자 등을 제공하고 주거지원으로 주택보조금, 자택추가수당, 사회주택, 건축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기타 미혼부의 생활비지급을 의무화하며 자녀양육비산정 및 이행확보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모시간’이라는 제도가 있어 아동양육을 위하여 취업활동을 중단해도 되는 시기를 고용보호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모시간은 사용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으며, 부모시간을 사용하는 모 혹은 부는 주당 30시간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스웨덴의 정책내용은 보편적 사회보장과 수당으로 출산급여를 제공하고 부모보험제도로 임신휴가수당, 부모휴가수당, 임시부모휴가수당, 아동수당, 생활보조비 등을 제공하고 있다(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09, 재인용).

용).

한편 미혼부와 관련된 법을 보면 미국은 미혼부를 대상으로 양육비지급 강제제도(CSEP-Child Support Enforcement Program)를 시행한다. 일본은 미혼부를 대상으로 강제사항이 없으며 캐나다는 부성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존재한다. 영국은 특히 남성을 프로그램에 적극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부성책임을 강조하며 독일은 미혼부의 생활비 지급을 의무화하여 자녀양육비산정 및 이행확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국외의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 및 정책 방향, 서비스 내용 등은 미혼양육모와 아동에 대한 처우가 미혼양육모를 바라보는 각 사회의 시각과 그 나라에 발달한 복지제도 유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로서 서비스의 수혜는 국민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제도적 복지체계를 발달시켰으나, 독일은 제도적 복지체제로 발달한 최초의 사회보장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개입이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국민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은 위험한 것으로 보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는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른 잔여적 복지체계를 갖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미국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모자가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 가운데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에서 다른 수급자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게 된다. 최근 이혼과 동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결혼형태 또는 가족형태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대되어, 미혼모자가정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인정받고, 모자가정과 미혼모의 개념이 통합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국외의 미혼양육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 국외의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 및 제도

구분	미 국	일 본	캐 나 다	영 국	독 일	스 웨 덴
관련 법 및 특	독신모가정을 위한 공공부조제공 (TANF;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모자 및 과부복지법] 아동부양수당제도 시행 -엄격한소득조사에 의하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심함	독신모 (lone parents with children) 관련정책	-모자가정 또는 독신부모의 정책들 안에서 다루어짐 -Sun Strat, 20 Sure Start Plus 에서 미혼모 교육, 취업제공	미혼모관련 특화된 정책 없음, 독신모가정으로 통합되어 관리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 아동양육권 등에 법적 차별권 받지 않음, 근로자로서 지위의 우위성 부여받음
정책 방향	10미혼모 예방, 청소년들의 절제 강조	공공부조나 저소득자가정 강조	독신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조혜택과 취업에 초점,부성책임강조	독신부모 정책과 통합되어 관리, 10대 미혼모 감소와 미혼모자녀의 사회적 배제문제 해결위한 통합적(교육부, 보건부)대책 수립	부모의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 누려야 함, 가족의 한 형태로 간주	가족형태의 다양성 인정, 여성들의 고용안정, 아동의 독자적 권리 확보- 아동가구와 비아동가구간 생활수준격차 축소
정책 내용	-보편적 사회복지: 저소득층 근로소득공제, 아동세액공제, 공립보육시설 무상이용 -의료지원: 의료보호, 모자건강서비스 -교육 및 훈련 지원: 10대 임신 예방 프로그램, 대안학교 제공 -주거지원: 모자원, 양육모그룹홈 제공	-보편적 사회복지: 아동수당제공, 세제 지원 통한 소득보장, 보육비용 부담, 모자과부복지대출제공 -교육 및 훈련: 자립지원 교육훈련부금사업, 모자가정고등지능훈련촉진사업, 성교육 -주거지원: 경영주택 우선입주, 편부모월세조정제도	-보편적 사회복지: 자녀세금우대, 장애아동급여, 저임금고용자 대상 근로소득이나 직간내 보충급여제도 시행, 공공부조에 한부모포함, 보육제공 -교육지원: 학자금대출보조, 수업에 따른 상환용자제도, 학교 계속 다니기 운동프로그램, 성교육예방 -주거지원: 정부보조임대주택입주혜택, 주택수리비보조 -의료지원: 국민건강프로그램등록제도	-보편적 사회복지: 출산급여(취업모) 지급, 아동수당, 아동세액공제 실시, 보육세금 공제, 육아보조금확대, 방과후 보육시설 확대 -공공부조, 저소득 모자가정 정책; 출산수당, 소득보존임시급부, 가계소득보조급부, 편부모위한 추가소득보조급부 제공 -교육 및 훈련: 성교육 예방 -주거지원: 시설제공, 임대료와 세금 할인 및 공제 실시 -의료지원: 산전후관리서비스, 가정의료부터 부상서비스	-보편적 사회복지: 세금공제(16세 이하 자녀), 아동수당, 아동양육수당, 연금수급권보장(10세 이하 자녀), 보육시설 제공(3세-취학전), 최저생계미유지 독신모에게 공공부조, 모부자가정 생활비지급 청구제도 실시 -교육 및 훈련: 학업지속, 직업교육비, 자녀학비보조금, 장기용자 -주거지원: 주택보조금, 자택추가수당, 사회주택, 건축보조금 지원 -의료지원: 아동1인당 연20일 유급간호휴가	-보편적 사회복지: 출산급여, 부모보혈제도로 임신휴가 수당, 부모휴가수당, 임시부모휴가수당, 아동수당, 생활보조비 제공
법적 용어	-독신모 -싱글모어	-한부모 (single parent)	-독신부모 (lone parents)	-독신부모 (lone parents)	-독신모 single mother	-독신모 single mother
미혼부 관련	양육비지급강제제도	강제사항 없음	부성책임강조	부성책임의 강조 성향: 남성을 프로그램에 적극포함	미혼부의 생활비 지급 의무화: 자녀양육비산정 및 이행확보제도 실시	
기타	여성, 영유아를 위한 특별영양프로그램 시행	모자복지시설 통한 생활지원 및 상담 사업				

#### 4. 선행연구

미혼 양육모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기본적인 현황이나, 미혼양육모들의 배경변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 되었다. 이 후 미혼양육모의 증가와 더불어 미혼양육모의 자녀 양육결정 요인과 양육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원과 정책, 성인식과의 상관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최근에 이르러 미혼양육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혼양육모 관련 선행연구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양육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입양기관 혹은 미혼모 기관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거나(김근조, 1984; 유유박, 1980), 다른 연구의 조사 자료를 재분석(황옥자, 윤미현, 1996; 강영실, 2000)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들은 미혼모의 문제 및 자녀양육을 선택하지 않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방법의 다양한 접근도 시도 되었는데 미혼모시설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미혼모 실태 및 의식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김현진, 2002; 박성희, 2002)는 미혼양육모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하여 알리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고숙경(2002)의 연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혼모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밝혀냄으로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중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규명하였고, 김귀덕(2001), 홍혜경(2003), 노현조(2000), 심영란(2001)은 미혼모 복지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마리아(1997)는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을 다룬 연구에서 미혼모가 가족, 친구, 그리고 시설 관계자에게서 보통 수준의 지지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혼부에게서 적은 지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 미혼모의 사회관계망의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 또한 주숙남(1999)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0대와 20대 초반의 미혼모 8명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 경험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미혼모의 출산 경험을 임신 중, 분만, 산 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늦은 임신 사실의 인지와 충격의 영향으로 임신사실을 부정하거나 대안 마련의 어려움으로 고통스러운 임신을 지속하거나 미혼부와 헤어짐으로써 이중적인 고통과 부정적 시선으로부터 임신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순(1998)은 모자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자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혼모자세대의 경우 입소동기가 경제적 빈곤이며 가족 및 사회의 지지율이 낮으며 아동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양육모는 기술훈련을 받은 기회를 제공해도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어 바로 취업이 가능 한 안정성이 없는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빈곤이 악순환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

박숙희(2001)의 연구는 미혼양육모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아동양육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는데 결정요인으로는 아동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 아동양육으로 미혼부와의 재결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입양을 의뢰했을 경우에 찾아 올 상실감과 죄책감에 대한 우려 등을 질적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위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 노승미(2002)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양육과 입양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미혼모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미혼모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미혼모들의 시각에서 그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 가족의 기능적 결손, 학업실패, 성에 대한 자기결정 결여, 피임실패 등이 미혼모가 된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사연경(2002)의 우리나라 미혼모의 아동양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미혼양육모의 어려움을, 미혼양육모를 국가와 사회가 죄악시 하는 것과 경제적인 문제, 미혼부의 책임 부재, 시설수의 부족 문제로 나타내어 미혼양육모의 복지 개선 방안을 제안 하였다. 하지만 사례 수에 비하여 연구대

상 기관은 한군데라는 점에서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미혼양육모의 사회적응 활성화와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이종수(2003), 정용순(2003)의 연구에서는 미혼양육모의 양육 어려움과 요구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재정(2003)은 양육미혼모 6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양육미혼모의 욕구를 알아본 결과 양육미혼모들은 원가족과 미혼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육을 결정함에 따라 양육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경제적 문제이며 아동보육문제, 취업문제 등도 공통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백(2002)은 미혼양육모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미혼모의 성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연구는 미혼모의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하여 미혼모, 양육미혼모 면접조사, 모자보호시설 36개소, 모자자립시설 12개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미혼모의 집단이 단일 집단이 아니라 그 내부가 다양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미혼모 집단의 성격이 전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고,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상가정, 고학력을 가진 미혼모의 수가 증가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울러 양육미혼모의 경우 아이 양육과 취업이라는 이중부담의 고통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들은 아동양육을 결정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고, 시설입소기간의 연장, 양육과 사교육비 지원, 구직과 연결되는 직업교육,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전환, 시설 내부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최양자, 김귀분(20004)은 미혼모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 후 산욕기 미혼모 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혼모 경험의 의미구조는 가벼운 성인식-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 성에 대한 호기심, 성관계와 결혼은 별개의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개방적 인식을 미혼모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

혼모의 성인식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미혼모 및 미혼양육 모 예방을 위한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이복숙, 전영주(2004)는 입양미혼모 5명과 양육미혼모 3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에서 미혼모 발생 배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성장가족(원가족)의 관계에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결핍되었고 가족의 응집력이 낮았으며 부모로부터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미혼모와 사회문화적 관계인 가족의 지지기반의 약함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이명희(2007)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영아를 둔 18세에서 36세까지의 미혼양육모 10명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을 근거이론<sup>13)</sup>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 과정은 원치 않는 임신의 충격, 낙태시도하기, 출산마음 다지기, 양육의지 굳히기, 홀로 아기 엄마 되기의 5단계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정과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방적인 선형적 관계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한편 김유경(2007)은 미혼모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에서 미혼 양육모의 사회적 지원을 위한 미혼모 발생 현황, 원인, 임신 출산의 실태, 가족 자원과 가족의 정서적 측면 등을 분석하였으며, 시설입소 미혼 양육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지지 실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임선희, 2008). 김혜선, 김은하(2006)는 '미혼모 중간의 집' 거주자 20대와 30대 7명을 대상으로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결정 체험에 관하여 현상학적으로 접근, 미혼양육모가 양육을 결정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면서 미혼양육모가 임신하면서 겪는 혼란스러움, 홀로 겪는 현실의 모짐, 아이에게 정을 느끼고, 아이 양육에 대하여 갈등하며, 결국

---

13) 사회적 맥락 내 인간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방법(Glaser & Strauss, 1967;Denzin & Lincoln, 1994), 이론과 가설이 없이 연구를 시작하여 자료에서 의미있는 개념들을 이끌어내고 개념들과의 관계를 도출해내는 것(이명선, 1996).

은 스스로 양육을 결정하면서 희생의 희망을 가진다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김혜선, 김은하, 2006). 이와 더불어 이성원(2009)은 미혼양육모의 부모 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 결정 및 체험에 대한 피상적인 어려움이 아닌 실제로 양육 하면서 느끼는 양육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양육 의지가 부모역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성원(2009)의 연구는 미혼 양육모가 체험하고 있는 양육결정경험을 이해하고 체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개입 방안에 대한 거리를 좁혀놓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미혼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로 문의승, 임애덕(2005)과, 김혜영, 안상수(2009)의 연구가 있는데, 전자는 제주도 주민 54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한 것이고 후자는 전국의 70세 이하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하여 면접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 한국인들은 대체로 미혼모의 내적인 자질이나 성적인 부도덕성보다는 이들의 판단력과 책임감의 부족을 문제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여부에서 동성애가족 다음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인들이 미혼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일자리 제공이 시급하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혼양육모와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미혼모 관련 정책 수급 대상자 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었던 미혼양육모의 수치를 다양한 자료를 참작하여 약 26,000명으로 추정하였다(이미정, 2010). 또한 김혜영(2010)은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입양모와 양육모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을 비교 분석하여 양육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살펴본 것처럼 미혼양육모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대부분 미혼양육모에 대한 시각으로 주로 현황과 양육 결정에의 어려움 및 양육스트레스 등으로 다루었고 양육의 대상인 영아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미혼양육모의 문제를 여성의 문제라는 시각

에서 다루고 있으며 주로 미혼양육모에 대한 실태 및 현황과 육구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배경과, 연구참여자, 연구 절차, 연구도구,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 1. 연구방법의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미혼양육모들의 양육 환경은 어떠하며, 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의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은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양육모 가족들이 소규모로 생활하는 비공개 시설이다. 몇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경직된 이론 체계의 분석틀로는 포착하기 힘든 미혼양육모들과 영아의 다양하고 풍부한 일상의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이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문화기술적 연구란 문화공유집단(culture-sharing group)을 선택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연구로서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의미한다(Creswell, 2003). 이는 종종 외부인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의 내적 역동성을 조명하는 특성이 있으며(Bogdan & Biklen, 1991), 문화적 만남을 통해서 문화를 해석하고 번역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윤택림, 2004). 이러한 문화기술적 연구는 문화공유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자세한 기술, 주제, 또는 관점들에 의한 문화공유 집단에 대한 분석,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와 인간의 사회생활에 대한 일반화를 위한 문화공유 집단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Wolcott, 1994). 또한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상을 특징 짓는 주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발견하고, 맥락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의

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유혜령, 1997). 특히 문화기술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하는 상황이나 사건, 사람들 전체에 잠재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무시하기 쉬운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Peshikin, 1988).

이러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문화기술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일상생활에 몰입된 특정 집단에 대한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집단 구성원들과의 심층적인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한다(Creswell, 2003). 또한 연구참여자인 미혼양육모와 영아들이 느끼는 체험적 의미의 심층을 파악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에 관한 장기간의 개방적인 내부자적 관찰이나 면담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에 관련된 다양한 일상적 자료, 담화 내용 등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유혜령, 1997).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들의 일상생활을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해 진행하기 위하여 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 내부자로 머물면서 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미혼양육모와 영아들의 양육 환경과 양육과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 위하여 참여관찰(Bodan & Biklen, 2006)하였다. 참여관찰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자연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동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요구되며 드러난 사건이나 행동의 의미는 맥락과 함께 관찰될 때 암묵적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이혜숙, 2007) 사실만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는 특정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위와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 표현양식, 행동패턴, 사고, 지식, 경험, 문제해결 방법, 감정, 신념 등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묘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수집해야한다(홍용희,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참여 관찰의 특징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혼양육모들의 영아 양육환경과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 적응하는 과정을 참여관찰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면대면(face-to-face)접촉을 통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면담은 연구자로부터 정보나 의견,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 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가진 의사교환이다(Bogdan & Biklen, 2006).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과거의 사거들이나 기억들, 연구 참여자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 심층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주변 세계의 사람, 과거 또는 현재의 사건, 상황들에 대한 감정, 생각 의도 그리고 해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홍용희, 199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인 연구를 통하여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와 영아들의 적응과정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반영하는 한편 영아의 양육환경에 대한 특징을 있는 그대로 드러냄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영아 양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의 영아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양육환경과 적응과정은 양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는 영아와는 다른 양육환경을 지녔다. 즉 미혼양육모와 영아는 제한된 선택의 범위 내에서 낮은 환경에 대한 별도의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낮은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대상은 만 2세미만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공동생활 거주 미혼양육모 7명이다. 이들은 자녀와의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숙식과 직업교육 및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 받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또는 다성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다.

연구자가 특별히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sup>14)</sup> 또는 다싱하우스<sup>15)</sup> 이용자를 선택한 이유는 미혼양육모로서 자녀를 낳아 입양을 선택하지 않고 양육을 선택하였다는 점과 영아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비록 공동생활가정이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와 생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혼양육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거주 할 수 있는 시설은 미혼모시설<sup>16)</sup>과 모자보호시설<sup>17)</sup>, 모자자립시설<sup>18)</sup> 등 다양하지만,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와 미혼양육모만 대상이 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으므로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거주 하고 있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양육모로, 미혼부가 영아의 존재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양육 의지가 약한 경우이다.

둘째,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혼양육모이다

셋째, 본 연구에 동의하고, 자신의 경험을 본 연구자와 자발적으로 공유를 수락한 미혼양육모이다.

## 1)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4개월 이내의 영유아와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 또는 다싱하우스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 7명은 모두 4곳의 시설

14)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 입소기준은 미혼양육모와 24개월 미만의 자녀로, 입소기간은 1년이며 최대 6개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2009년 기준).

15) 다싱하우스: 주거공간이 없는 자녀를 둔 미혼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16) 미혼모시설: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미혼모 생활시설

17) 모자보호시설: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이 3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시설

18) 모자자립시설: 모자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이 미흡한 모자세대가 3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시설.

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0과 같다.

<표 1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참여자7
연령	25세	25세	36세	22세	30세	34세	20세
학력	대학 재학	고졸	고졸	전문대졸	고졸	대졸	고졸
종교	카톨릭	무교	무교	무교	카톨릭	무교	무교
자녀연령	6개월	14개월	6개월	17개월	9개월	5개월	5개월
자녀성별	여	남	여	여	남	여	여
임신시 건강상태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분만유형	자연분만	자연분만	제왕절개	자연분만	자연분만	제왕절개	자연분만
가족관계	인식/지원 무	인식/지 원무	인식/지원 무	인식/지원 무	인식/지원 무	인식/지원 무	인식/지원 무
소속시설	A시설->D	A시설->D	A시설->C	B시설	B시설	C시설	C시설
거주한 기간	2개월/ 7개월	9개월	2개월/7개월	7개월	8개월	2개월	4개월
개인후원 (정기후 원수혜)	기저귀 , 분유	기저귀, 이유식, 옷	기저귀, 분 유, 옷	무	무		무
건강상태	질병 있음	외상 있음	양호	양호	질병 있음	경미한 장애	양호

다음은 연구 대상자의 개별 생애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 (1) 참여자 119)

6개월의 딸을 둔 25세의 여성으로 대학을 중퇴하였다가 09년에 복학하여 지방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하고 있다.

19) 연구에 사용된 인명은 모두 가명이며, 참여자의 일련번호는 임의로 부여하였음을 밝힘.

참여자1은 공무원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되었으나 성적이 낮아 진학을 못 하고 공장으로 취업하였다. 취업해서 2년간 모은 돈으로 대학을 진학하여 그곳에서 연하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고, 임신이 되자 친부와 낳기로 결정하고 시택에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시부모는 아이의 출산을 반대하였고 나중에는 유산시키 위하여 참여자 1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 아이의 아버지와도 자주 다투었고 그러던 중 아이의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기게 되어 만삭이 된 몸으로 헤어졌다.

한편 참여자 1의 원가족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으나 출산을 반대하여 입양을 권하였기에 아직까지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친정집 갈 때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에게 맡겨놓고 혼자 내려가며,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원가족의 지원이 없다. 원가족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고 학생 신분인 수진엄마는 임신해서부터 여러 곳의 미혼모관련 또한 미혼양육모 시설을 옮겨 다녔다. 현재 있는 D 시설이 5번째이고, 이전의 시설에서 나오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 재조사에서 탈락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참여자1의 앞으로 계획은 중단했던 학업을 마무리 짓는 것과,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 근처에서 직장 구하여 딸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 (2) 참여자 2

14개월의 아들을 둔 25세의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신과 함께 일을 정리하여 현재는 무직상태이다. 나이차가 10년 이상이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1남1녀 중 둘째로 태어나 성장하던 중 초등학교 5학년 때 모친을 여의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 오빠와 함께 생활하다가 좋지 않은 일로 독립하였고 현재까지 왕래가 없다.

참여자 2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개인회사에 취업하여 저축한 돈으로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실패하여 일본의 이모택으로 갔다. 일본에서 업무상 장기 해외 출장 나와 있는 8살 연상인 아이의 아빠를 만났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유산시키려고 병원을 찾았으나 그곳의 의사가 아이의 심장이 뛰지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하여 아이의 출산을 결심하게 되었다.

출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참여자2는 결혼을 전제로 한 아이아빠와의 교제였기에 아이아빠는 시택에 보호를 부탁하였고, 시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은 올리지 않은 채 홀로 3개월간 시택살이를 하였다. 시부모님이 맞벌이인 관계로 집안의 일은 모두 참여자 2에게 시켰고 힘들면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는 가운데 임신 8개월 쯤 시택을 나왔다.

당장 갈 곳이 없었던 참여자 2는 미혼모시설로 들어갔으며 이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 참여자2의 원가족은 출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동안 왕래도 없었을 뿐아니라 오랜 실직과 무직으로 채무가 많아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친부의 가족은 아이가 출산되자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보육원에 보내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고 얼마 후 친부는 새로운 여자 친구가 생겨 모자와 소식을 끊었다. 후에 친부와 친부의 모친이 아이만 강제적으로 데리고가려하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인 공동생활가정을 여러차례 옮겨 다니면서 숨어 살게 되었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이 4번째이다.

### (3) 참여자3

6개월된 딸을 둔 36세의 여성으로 1남 3녀중 차녀로 자랐으나 17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해 길거리에서 성폭행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후 포기한 인생이라 생각하고 대학입학은 꿈도 꾸지 않은 채 유흥가에 취업하여 그곳의 사장으로부터 인정받아 주임격으로 일하였다. 이 곳에서 일하면서 아이의 아빠를 만났고, 교제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였

지만 임신기간 중 친부의 외도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러다 친부의 모친이 알게 되어 미혼모시설로 찾아와 아이의 존재를 반기는 했으나 아이의 아빠가 복잡한 여자문제가 많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친부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로인해 아이의 존재를 반기던 친부 쪽 가족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였다.

참여자 3의 원가족은 시골에서 집 한 채 없이 남의 집 농사 지어주며 사는 홀어머니라,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않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지원은 전혀 없다.

참여자 3은 공동생활가정에 있을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이의 양육에만 전념하고 싶어하며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교육은 아이가 더 성장 후 모자원<sup>20)</sup>에 들어가서 생각해본다고 하였다.

#### (4) 참여자 4

17개월의 딸을 둔 26살의 여성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 회사원인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남매가 함께 별 문제없이 자랐고, 대학교 다니면서 아이의 아빠를 만나게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의 아빠는 결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출산일이 가까워오자 양육과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떠났고 친부의 가족들로부터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거나 입양을 시키거나하라고 협박당하고 있어서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마저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없다.

참여자 4의 원가족과는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거부와 외면을 당하고 있다. 아이를 입양시키지 않으면 가족관계를 끊겠다고 하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한 아무런 협조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원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해 주

---

20) 모자보호시설: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이 일정기간 보호 및 생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기간은 2년 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권자도 될 수 없어서 시설을 퇴소할 경우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생계능력마저 마련할 수가 없다.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전공을 살리자니 아이가 있어서 전공관련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현재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의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많다.

#### (5) 참여자 5

9개월의 아들을 둔 30살의 여성으로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을 여의고 삼촌댁에서 자라서 가족이라고는 없다.

고등학교 졸업까지 삼촌댁에서 자랐으며 졸업 후 취업하여 여기저기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임신하게 되었다. 아이 아빠는 출산을 앞두고 2달 전에 사라졌으며 아이의 출산을 위하여 미혼모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 참여자 5에 따르면 아이를 낳아 처음엔 입양하고자 하였으나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하면서 정이 들어 양육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시설 외에 지원 받는 것은 없으며,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낳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립을 위하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전문 음식점에 취업하여 서빙으로 일하고 있는데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하여 네일아트센터를 개업하려고 한다.

#### (6) 참여자 6

5개월의 딸을 둔 36세 여성으로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와 매 맞고 사는 엄마와의 사이에 1남 2녀중 장녀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였다.

참여자 6에 따르면 자라면서 부모의 다툼과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으며 때문에 아버지를 죽도록 미워한다고 하며 청소년 시절 늘 가출에 대한 충동을 자제하며 생활하였다. 이런 성장환경이 참여자 6을 미혼모로 만들었다고 부모

를 원망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왕래도 끊어진지 오래되었다.

아이 아빠와는 3년 사귀다가 임신이 되었는데 임신 소식을 듣고는 얼마 안가 도망갔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다.

참여자 6은 아이를 낳기 전에 피아노교습소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전공은 이과인데 어렸을 때 배운 피아노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100만원도 안 되는 박봉에다가 자격미달이어서 피아노 교사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보다는 미혼모시설에 있으면서 직업훈련을 받아 기술을 익혀 나가려고 한다. 참여자 6은 미혼모시설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3개월이 지나 이곳 C 시설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기간이 다 되면 모자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람이다.

#### (7) 참여자 7

5개월의 딸을 둔 20세의 여성으로 2년 중 막내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다. 직장은 다녀 본 적이 없으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아이의 아빠를 만나게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아빠가 출산을 앞두고 사라졌다.

참여자 7의 원가족은 아이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에 직접적 지원은 받을 수 없고, 결혼한 언니로 하여금 아이의 장난감과 의류 등을 물려받는 정도이다.

출산일이 다가와 아이의 아빠가 사라졌기에 미혼모 시설에 가서 아이를 낳았고 그곳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다 되어 현재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옮기게 되었다.

#### 2) 연구 참여자가 기거하는 미혼양육모 시설의 특성

연구 참여자가 기거하는 미혼양육모 관련 시설은 모두 4곳이며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시설들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연구 참여자가 기거하는 미혼양육모 시설

구분	A 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형태	중 간 의 집	중 간 의 집	중 간 의 집	공동생활주거
입소자격	3개월-24개월미만자 녀를 둔 미혼모	3개월-24개월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3개월-24개월미만 자녀를 둔 미혼모	자녀를 둔 미혼모 및 다문화가정모
보호기간	1년(3개월연장가)	1년	1년(6개월연장가)	자립할 때까지
운영내용	-숙식제공		-숙식제공	-숙식제공
	-가구당 개별 공간 지원	-숙식제공 -두가구당 한 공간 지원	-가구당 개별 공간 지원	-가구당 개별 공간 지원
	-직업교육비지원	-직업교육비지원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비 개별 수납 관리	-상담 및 진로지도 -부식 및 공과금	개별 수납 관리 -직업교육지원	개별 수납 관리 -공과금 시설 부담
	-상담 및 진로지도	시설 부담	-상담 및 진로지도	
	-주1회가구별 부식대금 지원		-부식 및 공과금 시 설 부담	
	-외출(보고후)			-외출(보고후)
	-외박 월3회 (보고후)	-외출(보고후) -외박(보고후)	-외출(보고후)	-외출(보고후) -외박 월1회(승인후)
	-9시 귀가	-공동구역청소 분담	-외박(보고후) -공동구역청소분담	-법인행사 참여 의무
	-공동구역 청소분담			-공동구역청소분담
시 설 종 사 자	-사회복지사 2명 -상근	사회복지사2명/보육 교사 -상근	-사회복지사 2명 -비상근	-시설내종사자 없음 -비상근
후 원 품 관 리	시설중심	개별적	개별적	개별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기거하는 시설은 모두 4곳으로 공동생활가정인 A, B, C시설과 공동생활주거이기는 하지만 다문화 가정 한부모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모자가 생활 할 수 있는 다성 하우스인 D시설로 이루어져있다.

A, B, C, D 시설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이 시설들의 공통점은 사회복지사 2명이 종사자로 있으며 상근을 한다는 점인데 C 시설만 비상근이다. 그 이유는 A, B 시설보다 늦게 허가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로 허가만 받고 종사자는 비상근으로 타 업무와 병행하였다. 또한 D시설은 시설 내 규정된 종사자가 없고 법인의 종사자가 파견 업무로 간혹 방문하여 거주자를 관리 한다. A, B, C, D 시설의 운영 내용은 숙식제공과 기본적인 부식 제공, 시설 수급권자 지정, 직업 교육비 지급, 상담 및 자립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공과금 부담을 부담 해 주며 후원품 관리는 A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외출과 외박을 보고하고 다녀야 하며 집 안에 허락 없이 외부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또한 청소는 공동구역 중심으로 분담하여 진행시킨다. 단 D시설의 경우 법인의 행사가 있을 시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 3.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방법

#### 1) 연구 절차 및 기간

##### (1)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영유아를 둔 미혼양육모 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그동안의 연구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표 12> 연구 진행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1)예비조사	08.4.1-08.4.10	- 미혼양육모 면담
	08.4.11-08.4.20	-공동생활가정에 거주 미혼양육모 사례자 면담
	08.4.21-08.4.30	-사전인터뷰할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양육모 관련시설 조사 -서울에 있는 e, sa 시설과 면담수락
(2)사전면담	08.5.01-08.5.12	-a 미혼양육모 시설장과의 면담
	08.5.13-08.5.20	-a 중간의 집 관찰
	08.5.21-08.5.30	-a중간의 집 미혼양육모들과의 집단면담 2회 실시
(3)연구대상자 선정	08.6.2-08. 6.08	-a시설에 미혼양육모 연구 협력 동의와 수락 -a시설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둔 미혼양육모들에게 연구참여 동의 구함
	08.6.9-08.6.20	-a시설의 연구참여동의자의 소개로 b시설 접촉
	08.6.25-08.6.30	-a시설 24개월미만의 영유아를 둔 연구참여자 5명선정
	08.10.2-08.10.30	-b시설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양육모 2명선정
(4)예비현장 관찰	08.8.1-08.8.10	-a공동생활가정1차 예비 관찰
	08.8.20-08.8.30	-a공동생활가정 2차 예비관찰
	08.9.1-08.9.13	-a시설종사자와 연구참여대상자들의 하루 일과와 운영진반에 관한 내용으로 면담
	08.9.14-08.9.30	-연구참여대상자들의 개별 생활공간 3회 관찰
(5)본 관찰	08.10.2-09.2.10	-a시설에서의 오후 2시이후의 일과 격 주 1회씩 관찰 -c, d시설 탐방
	09.2.11-09.8.30	a,c,d 시설에서의 오후 2시 이후의 일과 주1회씩 관찰
	09.03.10-09.8.30	-c,d 시설에서 오후 1시 이후 주 1회씩 집중 관찰
(6)개별면담 및 집단면담	08.9.14-09.8.30	-연구참여자들과의 개별 심층 면담총 45회,집단면담 총 10회 (집단 7회, 종사자 3회)
(7)개인자료 수집 동의	08.9.14-08.10.9	-연구참여자들에게 10개월 동안 연구자 미니홈페이지 공유 협조 수락얻음
	08.9.20-09.8.30	-연구참여자들의 저널 및 미니홈페이지 자료를 10개월동안 수집
	08.11.10-09.8.30	-11개월동안 연구자의 미니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자료 수집
(8) 동영상	09.5.20-09.7.30	-연구 참여자에 의한 다른 참여자의 일상 생활 촬영

## (2) 연구 대상 선정 과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선정에 있어 다음의 조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일차적으로 예비조사를 통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현재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한 미혼양육모를 소개받아 미혼양육모로서 자녀 양육시 힘든 점을 인터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른 미혼양육모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고, 미혼 양육모 관련 시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시설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미혼양육모들이 기거하는 시설들 몇 곳을 탐방하고 전화하여 연구 목적을 설명한 후, 허락을 받은 시설에서 시설장과 면담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장 관찰과 면담에 대한 허락을 구했고, 미혼양육모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예비 연구 대상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 기거하면서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미혼모를 소개 받아 연구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 (3) 본 연구

연구 대상자 선정 후 시설에서 미혼양육모들의 생활을 예비 참여 관찰 하였고,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중 관찰이나 심층면담을 원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 하였고,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인터넷상에서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므로 저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 의한 참여자들의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동영상 촬영과 녹음기를 활용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영아와의 상호 작용을 일상적인 상황에서 관찰하게 되면 부자연스럽다는 연구자의 제안에 특별히 협조를 해 주었다. 육아나

개인생활상 이유로 미니홈페이지에 저널을 쓰지 않는 연구 참여자는 면담을 하거나 일기를 제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현장 관찰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심층 면담 또한 연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조해 줄 것을 약속받아 이행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영유아를 둔 미혼양육모의 자녀 양육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이 기거하고 있는 ‘중간의집’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영아와 미혼양육모와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과 개별, 집단면담을 실시하고 저널쓰기, 동영상 및 일상생활 녹음, 관련 문서 자료 수집 등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 (1) 참여 관찰

질적 연구에서 참여 관찰은 연구하고자 하는 장소에 참여하여 거기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윤여각, 2000)이며,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의 세계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삶에 참여하며 관찰하는 것이다(Bogdan & Biklen, 2006).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설 및 그들의 삶에 참여하여 관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자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행위와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표현양식, 행동패턴, 사고, 지식 경험, 문제해결방법, 감정, 신념 등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묘사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홍용희, 1998b).

참여관찰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관찰작업을 스펙트럼<sup>21)</sup>과 관찰방식<sup>22)</sup>(Patton, 1990)에 따라 진행하였다. 미혼양육모들에게 연구자가 외부인이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였다.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사회복지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미혼양육모들은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연구자의 사적인 생활을 공개했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진행에 있어서 보다 유동적인 연구 방향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찰 목적과 관찰할 내용과 관찰할 범위, 관찰할 기간,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므로 연구 방향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찰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기본적인 수준의 관찰 목적을 설명하였고 관찰기간은 장기간의 관찰이며 관찰 범위는 일상생활 전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향후 연구 진행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관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문화기술적인 연구의 성격을 소개하였고 기존에 미혼양육모들이 받아 본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와는 다르다는 점도 알려 주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한 것은 이들이 대부분 공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여 안심을 시켜주었다.

현장에 들어가 처음 얼마동안은 연구자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와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를 연구의 대상자로만 취급한다면 그들 역시 실제 모습과는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는 ‘관찰자 효과<sup>23)</sup>(Bogdan & Biklen, 2006)를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

21)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평가적인 질문을 반성적으로 시도 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관찰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관찰사실의 노출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연구자는 자신의 관찰목적은 얼마나 자세하게 했는지, 관찰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관찰의 범위는 어디 정도인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22)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이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이는 관찰 방식이 현상을 특정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23) 연구자의 존재가 연구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를 생성해 주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 속으로 혼합되기 위해' 라는 생각으로 라포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외부인에 대하여 폐쇄적인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일상생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약기와 보이스레코더로 녹음을 병행하였다. 또한 관찰 시간이 주로 오후 시간이란 한계가 있어 미혼양육모가 영아에게 하는 일반적 상호 작용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미혼양육모에게 같은 미혼양육모의 영아와의 상호작용하는 장면에 대한 동영상 촬영 협조를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유하는 상황, 영아를 목욕시키는 상황, 영아가 놀이하는 상황 등 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 환경과 적응과정을 살펴보고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관찰 기간은 2008년 8월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 참여 관찰이 시작된 2008년 8월 1일에는 A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오후 일과에 대한 전반적인 관찰을 통해 연구지와 연구 대상에 관한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를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 대한 반성적인 질문들을 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체적인 맥락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가면서 관찰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후 6시사이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오후 시간으로 제한한 이유는 오전 시간에는 미혼양육모들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다르고 교육을 받는 참여자와 거리가 좀 먼 곳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참여자 때문에 미혼양육모들이 공동생활가정에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예비 관찰과 본 관찰로 나뉘어 진행된 참여 관찰은 주로 공동생활가정의 미혼양육모 방이나 거실에서 진행 되었으며 미혼양육모와 영아 관련 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현장까지 따라가서 행사 내용을 관찰하였다. 예비 관찰은 2008년 8월 1일부터 9월13일까지 주로 A시설에서 이루어졌으며, 관찰을 할 때에는 주로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상호 작용하는 모습과 영아와 영아가 놀이하는 모습, 같이 사는 미혼양육모들과의 생활, 공동생활가정 내 물리적인 환

경과 공간구성에 대하여 촬영하였다.

본 관찰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A 공동생활가정에서 8회, 개별생활공간 관찰 3회를 관찰하였으며 시간은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관찰하다가, 미혼양육모들이 이사를 하여 2009년 2월부터는 C 공동생활가정과, D 공동생활가정을 통하여 각 매 주 1회 오후 5시간씩 주로 자녀가 있는 날에 이루어졌다. B 공동생활가정은 거리가 먼 관계로 이 후 관찰에서 제외되었고 전화와 저널, 미니홈페이지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A, B, D 공동생활가정에서 주로 관찰한 내용은 이들의 자녀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 자녀와 하는 놀이,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다른 엄마들과의 생활, 종사자들과의 관계 형성 등 미혼양육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전반적인 것이다.

한편 관찰된 내용은 Sprdaley(2006)가 제시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 상황을 가능한 한 많이 기술 하는 ‘기술적 관찰’을 하였는데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비형식화된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기술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참여관찰자는 내부자인 동시에 외부자로서 자기 성찰을 통해 일상적 경험에서 새롭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객관적 관찰과 주관적 감정 모두를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Sprdaley, 2006)는 관점에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려고 하였지만 때로는 관찰자인 동시에 참여자라는 사실이 관찰한 내용을 제 시간에 기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의 관찰한 내용은 빠른 시간 안에 보충을 하거나 기록하려하였으며 현장 관찰 후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이나 느낌을 현장 일지로 기록하였다.

## (2) 심층 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정보 및 의견이나 신념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

현하도록 유도하는 언어적 의사교환의 방법이며 목적이 있는 대화로 참여관찰과 함께 문화 기술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이다(Dexter, 1970; Maccoby & Maccoby, 1954). 여기에서 대화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해석을 획득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인간 상호 작용의 방식이다. 대화가 전제되는 면담은 자연스럽게 참여자들의 관점과 생활세계, 그들의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대화를 보다 심층적 정보와 이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면담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은 심층 면담형태로 진행 되었으며 연구자가 이해 할 수 없는 관찰내용, 연구 대상자의 생각, 의도, 감정 등을 알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였다(홍용희, 1998). 공동생활가정에 상주하는 종사자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형식적 면담과 비형식면담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동 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가운데 형식적 면담과 비형식적 면담을 병행하여 면담하였다. 또한 형식적인 면담은 일상생활 및 영아 양육에 관계되는 궁금한 사항을 사전 질문 형태로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비형식적인 면담은 대화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었고 이는 형식적인 상황에서 구하기 어려운 심층적 자료들을 획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본 연구의 면담은 미혼양육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나타내는 생각과 감정 등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다. 즉 미혼양육모의 생각이나 태도를 평가하려 하지 않도록(Bogdan, 2003) 유의하며 참여자의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미혼양육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담은 총 4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중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면담은 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비형식적 면담은 관찰기간동안 미혼양육모와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경우, 관찰 상황에 대한 종사

자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담양식<sup>24)</sup>은 비형식적 대화, 비구조화된 면담, 반구조화된 면담이었다. 미혼양육모 중간의 집거실에서 집단 면담이 이루어졌고 개별 면담은 주로 개인 방에서 실시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면담은 사무실 내 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은 피 면담자가 개방적인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을 사전에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면담 과정에서 사전에 작성된 질문지 외에도 추가적인 질문을 추가하여 시행하였다. 반구조화 된 면담에서는 본 연구자가 피면담자와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면담을 하였으며 면담은 주로 저널에서 본 내용과 연구자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담을 하였다. 이러한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입장 느낌 의도, 의견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전달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3) 집단면담

집단면담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 가지는 시설별 미혼양육모들끼리 1시간씩 총 7회 공동생활하면서 자녀 양육시 어려운 점이나 같이 사는 미혼양육모의 양육 방식 등에 대해서 면담 하였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종사자가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 시설별 형식적 비형식적 집단 핵심 인터뷰가 3회 이루어졌고 인터뷰 시간은 1 시간 이상이 되었다. 이 면담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규정과 공동생활에 관한 미혼양육모들의 요구에 관한 것이다. 또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기타 출석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에게 시행 하였다. 질문지는 신중하게 구성된 개방형이고 사용목적은 면담과 같은 것으로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질문지는 대화를 통한 면담자료보다 비교가 수월하여 분석이 단순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McGee-Brown, 1995). 미혼양육모 대상 질문지는 예비 연구 때와 집단 면담 때 사용하였으

---

24) 비형식적 대화:특정한 목적없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말함. 비구조화된 면담은 피면담자가 개방적인 질문으로 응답할 수 있는 형식의 질문 사용하여 진행하는 면담유형. 반구조화된 면담은 비구조화된 면담 과정에서 유연성보다는 계획성과 질서에 초저맞춰 진행하는 면담 유형(Bogdan & Biklen, 1991; Merriam, 1994).

며, 질문지는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과 물리적 지원 관계, 보육과 자립에 관계되는 것으로 전문가와 3회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작성되었다.

#### (4) 개인저널

연구 대상자들의 저널은 미혼양육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혹은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어려움, 보람 등을 솔직하게 일기식으로 본인들의 미니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올려달라는 협조를 구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혼양육모와 영아들의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은 늦은 밤, 이른 아침,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측면들 등 이들의 진정한 내면의 어려움 및 요구사항을 듣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가 하루 생활을 일기로 기술한다면 보다 많은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아 부탁하였다. 이러한 부탁에 연구 참여자들은 흔쾌히 자신들의 생활을 기술한 저널을 쓰기로 하였고, 요일에 상관없이 주 1회 이상 쓰고 싶을 때 쓰도록 하였으며 저널의 양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일상에 대한 마음이 묻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편안하게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연구자가 저널 쓰기를 제안하자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이미 블로그에 저널을 쓰고 있는 참여자도 있어 이들에게는 연구 자료로 활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얻었다. 공동생활가정 내 컴퓨터의 수가 많지 않거나 사용 시간대 중복 등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고 저널쓰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미혼양육모는 일기를 쓰거나 개인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5) 미니홈페이지

연구자가 면담과 관찰을 하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에게 궁금했던 내용을 연구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려 이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답변을 수집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의 미니홈페이지를 비롯 연구 참여자들의 미니홈페이지 모두 비공개 홈페이지로 연구 참여자들과 연구자와 일촌관계를 맺고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만 활용하였다.

#### (6) 동영상 촬영과 녹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영상 자료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여러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관찰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을 연구자의 부탁에 연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하고 녹음한 것이다. 연구자가 볼 수 없는 일상적 상황에서의 자녀와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담은 것으로써 주로 자녀와의 일상적 모습들, 즉 미혼양육모가 영아를 목욕시키는 상황, 엄마와 영아가 놀이하는 상황 등을 촬영하였다

(7) 문서자료 수집

연구 주제와 관련된 관찰 내용 및 면담 자료, 저널 등의 분석을 위하여 연구 대상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안내책자, 외출 신청서, 입소 신청서 등을 수집하여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및 생성한 자료에 대한 내용이다

<표 13> 자료수집 방법 및 자료 목록

자료수집 유형	사용한 방법과 자료	수집한 자료
참여관찰	중간의집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찰하여 현장노트에 기록-월4회, 총40회.	현장노트
심층면담	연구 현장 및 개별적인 만남을 통한 비구조적, 반구조적 인터뷰통한 면담-총 45회	녹음자료-전사본
집단면담	연구자가 구성한 구조화된 구술면담자료에 대하여 면담-연구참여자 7회, 종사자 3회,총10회	녹음자료- 전사본
연구 참여자의 저널쓰기	-미혼양육모의 양육경험에 관해 주1회이상 작성 개인 홈페이지에 올림-각 50일씩 이상 총 600여편. A4용지 출력물 120매, 자필 일기 1권	미혼양육모의 저널
연구자의 미니홈페이지	-연구자의 홈페이지상에 올린 질문에 참여하여 남긴 답글 20여편.	미니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동영상과 MP3	미혼양육들의 일상생활을 연구 참여자가 촬영한 자료-동영상 25여편, MP3 7편	동영상 파일 기록노트 녹음자료- 전사본

### 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한 현장노트와 개인 심층면담자료, 집단면담자료, 연구대상자들이 쓴 저널, 연구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린 자료, 연구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동영상과 녹음 자료들이다

우선 개인 심층면담과 집단 면담, 참여자 개입 녹음기에서 녹음된 내용을 전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현장 노트를 참고하여 상황적 맥락을 참고하였다. 동영상 자료는 연구자가 관찰 할 수 없는 미혼양육모들과 자녀들의 일상적 생활을 촬영한 것으로 미혼양육모 스스로가 다른 미혼양육모 가족을 촬영하였기에 자녀와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참고 하였다. 연구자 참여자의 저널은 연구 참여자별로 정리하고 이것을 다시 상황별, 주제별로 옮겨 기록하여 텍스트화 하였으며, 이들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상황적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고 그 단어들을 포괄적인 용어로 통합하여 각각의 분석 주제를 잡아 나갔다.

분석은 분석적 귀납방법을 통한 개방적 코딩방법을 사용하여 수집 된 자료에 기초해서 자료 속에 함축된 의미에 맞는 주제나 용어를 연구자가 직접 찾아내거나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주제의 생성과정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이론적 참고 문헌을 탐색하여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보충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 주제와 그에 따라 나누어진 자료는 다시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 신뢰성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위해 고려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확실성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1981; Sandelowski, 1986).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표현을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고자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자료 생성 시 참여 관찰과 면담, 연구자 저널, 연구 참여자의

저널, 동영상 촬영, 녹음, 문서자료 등을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야기되는 해석 판단의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Bogdan & Biklen, 1991; Merriam, 1988). 셋째 본 연구에 대한 조언과 비평, 새로운 견해를 얻기 위하여 유아교육전문가와 연구 동료와 여성 관련분야 사회복지사와의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졌다. 질적 분석과 해석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조언을 통해 본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들은 연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상기 시켜줌으로써 신뢰로운 연구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자료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기술, 설명, 또는 이론이 전형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또는 비전형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배경의 특수성으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확인 시키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결과의 일관성 및 적합성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Sandelowski, 1986).

##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미혼양육모들의 양육환경과 이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미혼양육모들의 영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총 7명의 미혼양육모들의 개인 면담 자료, 연구자의 현장 관찰 노트, 동영상과 참여자들의 저널과 일기 등을 분석하였다.

### 1.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 적응하는 과정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혼양육모의 행동, 동거하는 미혼양육모와 종사자들과의 의사소통 유형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였다. 또한 미혼양육모의 공동생활 적응 과정에서 영아들의 놀이 형태와 엄마와의 상호작용, 주변 환경에 대한 영아의 반응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관찰한 결과 미혼양육모와 영아는 기대감과 두려움의 탐색기를 겪으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영아도 탐색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아들이 발달함에 따라 공동생활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소한 불만은 미혼양육모들간 생긴 불신감과 경계심으로 갈등을 겪게 되며, 퇴소가 다가오기 시작되면 우울함과 무반응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기대감과 두려움의 탐색기

##### (1) 미혼양육모: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

미혼양육모의 입소기는 새로 입소하는 시설에 대한 기대감이 발동하고 개인 생활공간을 꾸미는 분주한 시기이다. 새로운 시설의 구조와 프로그램, 종사자 모두가 낯설기는 하지만 시설 입소 전의 불안한 생활에 대한 청산이기

에 하루가 짧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오아 ...쓰러지기 일보직전...너무 힘들다..힘들어 충전할 시간도 없이 짐 나르고 정리하고 그래도 머 대충 하고나니.....행거 설치하는데 죽는 줄 알았네 너 무 힘들어.....땀 뻘뻘 흘려가며 결국엔 해 냈다. 이제 슬슬 짐들을 정리해 볼가나? 내일은 책상이 오겠지? 아 빨리빨리~~

(2009/01/07, 참여자 2<sup>25</sup>), 저널)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입소 시기는 새로운 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와 이삿짐 정리하느라 하루가 분주한 모습들임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접하면서 참여자 2는 ‘이 전에 있던 곳은 각 방에 놓이 하나씩 있어서 기본적인 거는 준비 안 해도 되는 데 이 곳은 저희가 다 마련해야해요. 하지만 불편한 곳에서 마음이 힘든 거 보다는 훨씬 좋아요’ 라고 하였다. 이는 저널에 실려 있는 글을 보면서 연구자가 한 질문에 씩씩한 대답을 하였으며, 몸은 힘들지만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심리적 안정이 잠재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이렇게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혼양육모의 입소는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함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의 신고는 또 한번 미혼양육모가 치러야 할 입소과제에 해당된다.

동사무소<sup>26</sup>)를 다녀왔다. 꼬치꼬치 캐묻는데 결국엔 눈물이 나드라 왜 그랬노 몰라..... 괜히 불쌍한 척?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았다. 오늘은 이마트에 가서 장도 봐오고 해서 좋았던 날.....고작 이마트 한 번 갔는데 좋아하는 내가 참.....

(2009/01/05, 참여자 1, 저널)

동사무소에서 ‘꼬치꼬치 캐물어서 눈물이 나드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

25) 연구에서 사용된 인명은 모두 가명이며 참여자의 일련번호는 임의로 부여하였음을 밝힘

26)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불림. 참여자의 저널에서 인용한 것이기에 수정하지 않고 올림

미혼양육모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한다. 소득이 없는 모자는 정부로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sup>27)</sup>과 기초생활보장법<sup>28)</sup>에 의거하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비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 수급권자 대상자 지정시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만들고 미혼양육모는 과거사가 다시 나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설수급권자가 된 미혼양육모의 입소는 물리적인 시설로의 입소가 아닌 제도권 내의 입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도권 내의 시설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이사하면서 해결해야 할 다른 과제들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혼양육모의 입소초기는 전반적으로 분주한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2) 영아: 두려움과 불안한 생활

미혼양육모가 분주한 가운데 새로운 생활과 동거할 미혼양육모들에 대한 기대로 입소 초기를 보내는 동안 영아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있어서 영아는 친밀한 환경으로는 엄마 한 사람 밖에 없다. 그래서 인적인 환경, 물적인 환경 등 모든 환경이 새롭고 낯설기만 하여 아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오늘로써 짐 정리가 '끝' 할건 많은데 우리 딸래미가 왜 이렇게 찡찡대던지  
 애 보느라, 짐 정리 하느라 빨래 하느라 정신이 이도 저도 없던 상황(중략)  
 딸래미가 30분 이상을 계속 울어대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어찌나 화가  
 나던 지,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그렇게  
 열심히 밥도 안 먹고 보채더니....결국엔 밥도 못 먹고 지쳐 뺏어 자네.....

27)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에 의하여 양육되는 한부모가정을 포함. 고용지원,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지원.

28)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가능

(2008/10/10, 참여자 1, 저널)

참여자 1은 이사 후 정리할 것이 많아 빨래도 하고 짐도 정리하면서 틈틈이 아이를 돌봐주었지만 영아는 엄마의 바쁨과 분주함은 모른 채 낮설기만 환경이라 안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영아가 불안해하는 이유로는 참여자 1이 이사한 곳은 한 집에 두 가구가 살 수 있는 곳이므로 이전부터 살고 있었던 낯선 모자세대의 왕래와 낯선 가구와 공간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 사례들은 미혼양육모가 이사하고 다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들이 엄마로부터 분리 되는 것에 불안해하는 모습들이다.

잠이 안와서 거실컴퓨터를 키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5시반경쯤 e가 울기 시작했다.. 내가 없어서 깟나보다..요즘 부쩍 그런다. 많이 불안해 하고.. 내가 없으면 잠도 잘 못자고.....

(2009/01/05, 참여자 2, 저널)

h가 이사하고 일 주일 쯤 방문 하였을 때 연구자가 들어서면서부터 안고, 업고 있다가 연구자가 잠시 내려보라고 해서 내려 뒀는데 h가 내려져 있었던 시간은 4시간동안 있으면서 고작 지금 30분이 전부예요.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말을 하거나 나갈 기미만 보여도 울기 시작해요. 이거 어떨하면 좋아요? 혹시 분리불안 아니예요? 선생님 걱정 되 죽겠어요. 우리 애기는 너무 심한 거 같아요 벌써 2주일인데도 아직 적응이 안 됐나 봐요.

(2009/03/27, 참여자 3, 개인 면담)

엄마가 잠시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안 가려고 치마바람을 살짝 일으키는 데도 울먹거렸다. 커피를 가지러 내려가니까 큰소리로 양양 울어대면서 그치질 않았다. 엄마가 와서야 진정이 되었고 옆방에 사는 m엄마가 h는 잘 놀다가도 엄마가 10센티만 떨어져도 운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아는 입소 초기에 심하게 낮가림하면서 주변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배타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참여자 3의 경우는 이사한 지 2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잠시도 엄마와 안 떨어지려하는 불안한 모습이 보이고 연구자가 면담하고 있는 동안도 8개월된 h의 경계하는 눈초리는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가 발달하는 시기의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은 낯선 환경에 대한 아이의 불안해하는 반응을 자신이 h와 세 번을 이사하면서 이사하는 곳마다 낮설어한 경험을 말하며 연구자에게 심각하게 분리 불안이 아니냐고까지 질문을 하였던 것이다. h의 이러한 불안한 모습은 같이 거주하는 m 엄마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h는 잘 놀다가도 엄마가 10센티만 떨어져도 운다고’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격리불안<sup>29)</sup>과 연결되며,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시기의 불안한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격리불안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영아와 어머니 또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 형성의 결과가 후에 발달하는 정서적 안정성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송명자, 1995) 입소초기의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는 영아의 초기 경험에 대한 성인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2) 친밀감이 형성되고 탐색이 활발한 적응기

미혼양육모의 입소초기의 분주함과 영아의 낮선 환경에 대한 불안한 시기가 지나면서 이들 모자는 점차 동거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영아는 주변 환경

---

29) 애착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 떨어지는 것을 심하게 불안해하는 증상 .생후 8. 9개월된 영아기는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격리되면 불안해져서 큰소리로 우는 반응 생후 12개월에 최고조 2세 말경에는 점차 감소된다 (이기숙, 2002).

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혼양육모: 친밀감 형성

공동생활에 정착해가면서 동거하는 미혼양육모들과 친밀감이 형성된다. 이 시기는 미혼양육모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 한 달 이후부터 2개월여까지이다. 미혼양육모는 이삿짐 정리도 다 되고 행정적인 절차도 다 거쳤으며, 공동생활가정의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알게 되어 공동생활가정에 적응이 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기간이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은 종사자들 및 주변 미혼양육모들, 주변환경에도 적응하여 친밀감이 형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들끼리 새벽에 고스톱 쳐서 오늘 저녁 간식거리 돈 내기를 했다. 4명  
이서 쳐서 1등 빼고는 다 돈을 내고 난 2등이라서 돈 내고.....그래도 머  
연말인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2008/12/01/ 참여자 1, 저널)

아주 오랜만에 실컷 웃어보았다. 혼자이면 힘들었을..그런 밝은 웃음...잃지  
말고 기억해야 할 텐데...밝게 한번 웃으면 그게 행복일 터...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겠지 나는 오늘 행복을 맛봤다(가을 단체 나들  
이 다녀온 날)

(2008/09/11, 참여자 4, 저널)

난 참 좋다 우리 집 식구들이 참 좋다. 어느 누구하나 자릴 비울려치면  
왜그리 삭막하고 조용하고.....뭔가 빠진 듯이 옆구리가 시리기만 한데...오  
늘 식구들 모두 모여서 저녁시간을 보냈다..그 시간이 아득하리만치 얼  
마나 소중한 시간인지.....새삼스레 귀하게 여겨진다.

(2009/02/28, 참여자 5, 저널)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입소하여 2개월 정도 된 미혼양육모의 생활은 함께 사는 미혼양육모들과 백화점도 가고, 나들이도 가고, 새벽까지 고스톱쳐서 내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로 공동생활자체가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 1은 이사한 지 2개월에 접어들어 같이 사는 미혼양육모와도 가까이 지내지만 윗 층, 아래층에 사는 미혼양육모들과도 친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처지의 동질감을 나들이와 저녁 식사시간을 통하여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양육모들이 이사 직 후 이런 저런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함께 사는 미혼양육모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오랜 기간 생활하지 않아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친밀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영아: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생활

영아는 입소초기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으나 2개월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아는 이 시기가 되면 주변사람들이 낯설지 않고 친밀하게 느껴진다. 또한 먼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이용자들도 새로운 입소자에게는 비적대적이므로 개인 생활공간에 새로 온 미혼양육모의 영아가 방문하더라도 대부분 거절 하지는 않는다. 다음 사례를 통하여 영아가 주변 탐색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궁시렁 궁시렁 웅알이를 하면서 지낸다. ‘응응’하는 웅알이도 자주하고.....요샌 울지도 않고 b엄마한테 안기면 웃어주는 센스~ 어디서 배운거야. “오늘도 잘 놀다가 와” 그 말이 익숙해졌다. 에허라 디옹

(2008/12/10, 참여자 4, 저널)

케익과 꽃은 멀리하고 쓸데없는 비닐봉지만 가지러 갈려는 s. “실속있는 걸 알아보고 챙겨야지...이리 실속이 없어서야 원!!” s맘이 생일이라고 꽃다발과 케익을 받았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는데 s는 케익을 담아 온 파리바के트 비닐만 만지작 거려서 s맘이 푸념하였다.

(2009/03/15, 참여자 1, 연구자 현장관찰 노트)

e가 어린이집에 갔다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집에 안들어 가신다. 또 동네를 어슬렁 어슬렁~ 강아지도 보러가고 슈퍼는 꼭 들르신다. 우리 e. 그래도 욕심은 별로 없는 우리 e.. 하나만 골라서 나온다. 계산도 얼마나 잘하는지 다 컷네~ 자기가 하나 골랐으면 계산 하라고 아줌마한테 가져다 준다. 돈도 내고~ 너무 귀여워~

(2009/04/10, 참여자 2, 저널)

참여자 4의 ‘오늘도 잘 놀다가 와’에서 엄마는 함께 기거하는 미혼 양육모를 깊이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참여자 4의 영아가 이사 와서 불안해하며 울기만 하던 영아가 다른 엄마의 방으로 놀러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또한 e도 어린이 집 갔다 와서 주변을 탐색하고 싶은지 강아지도 보고, 슈퍼도 가 보고, 호기심이 왕성한 e의 탐색 활동은 수퍼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익혔고 계산까지 하는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영아가 다른 엄마의 방에 놀러가고 주변 마을을 돌며 집에 바로 안 들어가려하는 모습은 안정적인 탐색활동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으로는 공동생활가정에 적응한 엄마의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영아에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 3) 불신감과 경계심으로 제한된 갈등기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친밀한 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만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서서히 미혼양육모들간 경계와 불신을 하게 되며 이들은 상호 공격적인 모습으로까지 변화된 생활로 일상을 보내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미혼양육모: 서로 상처내며 공격하기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들이 적응이 되어 상호 친밀한 단계를 넘어 서게 되면 공동생활권에 있는 미혼양육모들의 개별적인 성격이나 기질, 맡아야 할 책임 부분 등으로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서로가 상처까지 내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매번 똑같은 일로...언제까지 숨겨야 하는지..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알면서도 터져 오는 말들에 속상하다..

(2009/04/14 참여자 1, 저널)

요샌 왜이리 사람이 싫어질까...자꾸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  
꾸만 그 사람이 말만하면 싫어진다.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도.....쳐다  
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어진다...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다... 그냥  
이제 신경쓰지말고 나하고 w만 생각하면서 살자...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09/06/25, 참여자 7, 저널)

s와 h가 같이 감기에 걸려서 s 손수건으로 h 콧물을 닦아 준 적이 있  
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손수건을 s엄마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 통에  
확 던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불만이 있냐면서 화났냐면서 그  
러기에 나와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이가 안 좋아졌고 마주치는  
것도 멀리하게 되었어요.

(2009/03/27, 참여자 3, 개인면담)

아침부터 또 싸웠다. 나도 거의 한계에 왔기에 차라리 말 하고나니 시원하다. 본인이 옳은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이지. 부모교육 때 또 의견 충돌.....어느 정도 단념, 신경 안 써서 차라리 좋다.

(2009/06/23, 참여자 6, 저널)

아침에 식탁 얘기 발단으로 또 싸웠다. 흥분할 수록 난 침착해졌다. 싸워서 쪽팔리면 여기를 아예 오질 말아야지(싸운 h 엄마) 진짜 지킬 자존심이 뭔지 모르네..... 이 문제로 또 싸웠다. 지겹다.

(2009/07/11, 참여자 6, 저널)

이 복잡해지는 상황은 뭐지? 잘 들 돌아나는구나. 아직 폭발하기 5% 부족한데, 다 채워지는 순간 모조리 싹 다 쓸어버릴꺼야. 내 눈앞에 거슬리는 것들 다.

(2009/07/28 ,참여자 7, 저널)

이와 같이 공동생활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언제 친밀기가 있었냐는 듯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며 과격한 표현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불과 한 두 달 전만해도 같이 쇼핑가고, 분유도 나눠주고 하었는데 4개월 접어들면서부터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면서 싫어하고 증오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영아가 성장하면서 미혼양육모의 서로 다른 양육신념과 양육 지식으로 이유식을 준비하며 영아의 놀이공간 및 왕성한 탐색활동으로 다른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생활을 침범하거나 지나치게 독점하려든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한 영아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이지만 공동생활하면서 상호 억제하며 살았던 미혼양육모 개인의

기질적인 면과, 불만이 일상적인 생활까지 확대 된 것이라 보여진다. 즉 발달이 다른 영아들의 놀이공간 공용사용 및 월령에 따른 부식 종류 사용과 양의 증가로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인해 상호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2) 영아: 성인들의 눈치 보며 생활

미혼양육모가 구성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그로인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영아는 성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게 된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제 눈치를 엄청 보네요. 제가 보던 안 보던 똑 같이 하면 아기니 그러려는데 제가 볼 때만 눈치 보며 m에게 잘하는 듯...님 아기 같지 않게 영악해서.....우리 m은 저러지 말아야 하는데 말예요.

(2009/05/20, 참여자 6, 개인면담)

h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해요. 내가 m 엄마하고 큰 소리로 싸우고 났더니 그 다음 날 부터는 그 방으로 안 들어가던데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니 우리 애기도 싫어하고.....

(2009/05/28, 참여자 3, 개인면담)

아이들은 안다. 엄마가 누굴 싫어하는지, 누굴 좋아하는지 느끼나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 아이도 싫어한다.

( 2009/05/15, 참여자 2, 저널)

이러면 안 되는데....n의 무표정한 표정도 싫어요.....엄마가 싫으니깐 애도 싫은가 봐요. 사람이 완전 짜증나요...n엄마는 속이 웅졸하다고.. 그럴튼가 말든가. 선생님이 오거나 원장님이 오시면 갑자기 말 걸어요. h야~이루와.하면서 갑자기 말 걸어요. 그래서 애가 더 꼴 보기 싫어요.

(2009/05/31, 참여자 3, 개인면담)

위에서 살펴 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미혼양육모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급기야 싸움까지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아들에게도 모두 노출 되고 있으며 이를 보고 난 영아들이 미혼양육모들을 경계하고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싸운 당사자인 미혼양육모들도 영아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성인들에 대한 감정이 영아에게 전이되어 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영아가 직접적으로 미혼양육모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의 탐색활동을 하지 못했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h는 y의 방 앞으로 기어갔다. 그 방안에는 초록색 작은 애벌레 인형이 방바닥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보고 열심히 기어가더니 뒤를 돌아서서 우리들의 눈치를 한번 살폈다. 그리고는 누군가를 찾는 듯 하였다. 그때 y 엄마가 들어오자 가만히 앉아 방 앞에서 손을 뻗으려다 말고, 뻗으려다 말고를 반복 하였다.

h: (y엄마만 뚫어져라 보며 ).....

y엄마: (h를 힐끗보고는 무시한다) y야 밥 주게 좀만 기다려(y는 보행기를 빙글 돌리며 두 팔을 번쩍 든다. 엄마를 향해서라기 보다는 h를 향해. 그런 y의 보행기를 발로 잡아끌어 당긴다)

h: (y와 y엄마를 번갈아 보다가 머리를 푸르르 떨더니 포기 한 듯 거실로 힘차게 기어온다)

(2009/ 05/ 27, 연구자 현장 관찰노트)

생후 10개월부터 영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한 기능을 인식하게 된다. 이에따라 영아는 이제 자기와 타인의 이미지를 서로 다른 것으

로 변별하는 일을 잘 하게 되고, 관계 속의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Cashdan, 1988). 이로 인하여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아가 탐색활동과 감각 활동을 함과 동시에 눈치를 보는 현상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반응 양상으로 보인다.

#### 4) 우울함과 무반응의 퇴소 준비기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들간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엄마도 영아도 상호 무관심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는 과정 중 미혼양육모는 퇴소 시기가 다가올수록 거처에 대한 막막함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혼양육모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는 영아가 개인 생활공간 내에서만 놀이하고, 무반응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미혼양육모: 막막함과 우울함으로 관계 회피하기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 양육모들간 한차례 지나간 갈등기는 잠잠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가 오히려 편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내 방에서 음악 들으면서 m이랑 조용히 있으려니 좋아요. 개인생활도 있어야지요..자기는 할 일 다 하며 시끄러워서.....이제는 네 방 내 방 상관없이 드나 드는 건 싫네요. 같이 살아보지 않으면 속속들이 모르죠. 왜 불만들이 나오는지..... 지금은 익숙해진 정도.....노력도 하고 있고(중략)..... 오후엔 비. 거의 방에서 개인 시간..... 말 거의 안 함 차라리 편해요.....

(2009/07/15, 참여자 6, 개인면담)

서로 부딪칠 일도, 마주 할 일도 없이 무관심하면서도 공동생활공간에서 들

러오는 소음은 걸리지 않음 듯 혼잣말로 불만을 토해내지만 금새 잊어버리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저렇게 성질이 00 같아서 어디다 써 먹나..... 차라리 속 편하다 내 방에 혼자 있어서 좋다. 아무 때나 쳐들어 왔는데 내 볼일 못 보게.....

(2009/06/29, 참여자 5, 저널)

나.....좀 그냥 뒤..신경 쓰지마.....너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깐.....  
우린 남남이잖아.....000 나불대지마.....

(2009/06/22, 참여자 7, 저널)

무관심이 편하다고는 하지만 한 공간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공동생활공간의 이용이다. 요컨대 최소한의 자체 규정은 지켜야 할 것이고 공간이 두 군데가 아닌 이상 불편할 것이다. 그럼에도 무관심한 생활은 지속 되었다.

오히려 좋은데요..... 상대를 안 한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피해가 없어요.....  
제가 원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굽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밖에 나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텔레비전 보는 거예요. 진짜 2층에서 3층 올라간 지 5분도 안 되었거든요 방문 열어놓고 에어컨 켜놓고.....

(2009/07/11, 참여자 3, 개인면담)

저는 고립된다고 생각 안 해요 자유롭고 좋아요 왜냐면 생활에서 결부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이지만 생활이 결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밥을 안 먹었지요. 대부분 같이 안 먹어요. 반찬은 같이 먹다가도 저가해서 먹고 그러니까 말도 안 나고. 저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고립감이라든가 외롭다는가 안 그래요.  
인생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안 불편해요.

(2009/07/11, 참여자 3, 개인면담)

아기 봐도 무표정하게 되고 남의 애긴가부다....m이 울어도 다른 엄마들  
보면 무표정이에요 n이 날 봐도 무표정이구요 엄마들 사이가 무표  
정이고 하니까 애들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내가 갔을 때만 문을 열어놓  
지..밥을 먹었니? 빨래 다했어 그럼 돌린다~ 애기하고 기본적인 말만 해  
요~

y 엄마도 요새 너무 변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마음에 안 들구요 예전  
의 y 엄마가 아니에요 어제도 낮에 대한사회복지회에 예방 주사 맞히  
러 갔는데 y가 열이 있다고 안 봤나봐요 근데 그걸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같은년, 같은년”하고 욕을 하는데 저한테 하  
는거 같았어요. 나한테 불만이 있는지 큰 소리로 막 욕을 해 댔어요 내가  
옆에 있는데 말예요.

(2009/06 /18, 참여자 3 개인면담)

미혼 양육모들은 퇴소가 다가오면서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혼 양육모들 사이에서 무관심으로 나름 편안하게 보낸 시  
기를 지나게 되면 퇴소가 다가온다. 동시에 그동안의 외부 자극으로 부터 받  
은 갈등들이 내부적인 과제로 돌아오게 된다. 이로 인해 불안한 생활이 또  
시작된다.

무관심하면서 안정이 찾아오니까 이제 내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 비중이 이쪽으로 쏠리다보니까 포기할거 포  
기하고무시하고 다른 거 알바 끝나거나 m 데리고 오면서 생각해요. 여름이  
다 가고 금방 겨울이 오고 겨울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하고.....

(2009/08/30, 참여자 6, 개인면담)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뜻도 없고 현기증 같은 나  
날.....죽을 때까지 삶의 외곡으로만 공기처럼 부유할 거란 생각 가슴으로  
사는 날이 없겠고 머리로만 살게 될 것 같은 징그러운 막막함

(2009/08/26, 참여자 1, 저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막막함이다. 갈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  
고, 원가족이 있지만 받아 줄 리 없다는 체념도 생겨 갈 방향을 못 잡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막막함에 대한 결정을 타인에게 전가 시키려 드는 것도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아무런 판단도 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이 내린 결정이 아닌데도 불  
구하고 타인이 내려준 결정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에효 이상하게 벌써 준비를 하려니.....마음이 무겁다.....이젠 정말 혼자  
맞서야 하는데. 어찌지? 어찌지? 막막해.....내색은 안 해도..... 다 관찮을  
줄 알았는데 이대로 그냥 엄마집으로 쳐들어갈까. 아마 날 죽이려 들거야.  
울 엄마.....대문도 안 열어 줄텐데.....어딜가나 말인가.....인천으로 갈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그냥 이상하게 가기 싫어졌다.....아무래도  
그래도 큰 곳이 낫나 싶었는데,....모자원.....모자원.....신청한다고해서 될  
것도 아니고.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오  
래 기다려야 될 거 같은데.....아부지.....아~ 머리아포..

(2009/07/28, 참여자 4, 저널)

어찌됐건 결정권은 그 분께 있다. 그러니깐 우리 딸이 돌이 3일 전이  
면 난 1년이 다 되어가네....무섭도록 그리고 반대로 너무 늦게 간  
시간인지도 모르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난 그 결정에 따르자.....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결정 못 내리는 내가 왜 이리 한심  
하고 못났을까.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 마음고생 언제까지 해야 할꼬

(2009/07/28, 참여자 1, 저널)

퇴소 전까지 놓지 않고 집중해야 할 정보는 다음 이사할 거처지이다. 다음  
거처지를 위하여 퇴소 전까지 미혼 양육모는 이곳 저곳 면접보러 다니게 된  
다. 면접이란 것은 시설의 종사자와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시설과의 만남이기  
도 하다. 때문에 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미혼양육모를 위한 공  
동생활가정이 국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sup>30)</sup> 이들은 서로 만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 살게 된 곳에 면접을 본 날. 또 새로이 이사를 해야하는 구나. 울산,  
천안, 청주, 춘천, 이번엔 서울이구나. 대체 난 언제 친정으로 갈는지.....  
면접보는 데서 h언니(같이 살았던 공동생활가정 언니)를 봤는데 오랜만에  
반갑고 아줌마 티가 팍팍~~ 역시 찡찡대고 있던 별이 녀석...(중략)

(2008/10/01, 참여자 1, 저널)

이상과 같은 자료를 분석 할 결과 퇴소가 다가오는 미혼 양육모의 심리 상  
태는 막막하고 불안하여 우울한 나날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영아: 개인생활공간 내에서만 허용되는 놀이

엄마가 공동공간에서 격리되어 개인생활공간서만 생활하니 영아도 자연스  
럽게 방 한 칸 안에서의 생활이 시작 되었다. 방 한 칸이 미혼 양육모와 영아  
의 경계선이 그어진 격리된 공간이다.

---

30)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자료 기준 .전국 19곳임.

n이 한참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에요 지나가다 사람들 보고 방에만 있으니까 밖에 내보내고 싶어도 방에만 있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거실에서 소리가 나면 쫓긋하기도 하고.....제가 카셋트를 산 게 음악도 들을 겸 소음 때문에 샀는데 n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아프더라구요. 이제는 시디 들고 하면서 지도 나름 몰입하니깐 옛날보단 덜 민감해요. 거실에 귀를 쫓긋하면 살짝 열어줘서 눈치보는거 이런 거 없이 울타리없이 같이 이렇게 하면 좋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동생활의 단점이지요

(2009/06/21, 참여자 5, 개인면담)

귀를 쫓긋하며 경계선 밖의 바깥세계에 귀를 기울이지만 엄마는 미안한 마음이 잠시 뿐이다. 오히려 경계선 안의 생활을 위한 준비로 카셋트를 구입하였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고 하듯이 그 생활에 익숙토록 영아의 탐색 활동과 놀이 터전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안에서는 바깥의 세계로부터 격리가 된 것이 아닌 스스로 단절시킨 것 마냥 평화마저 느껴질 정도로 영아는 순조롭게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계선 안에서 발달 할 수 있는 영역은 신체 발달에 한정된다.

신나게 웃기 시작한지 어연~~ 자기 표현이 확실해서 너무 좋다. 난 그렇지 못하는데.....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무게도 잘 늘고 있고. 요즘엔 기기도 잘 하지? 어느 순간 니가 엉뚱한 곳에서 허우적덜 때 놀라면서도 기특하다..... 너 언제 거기까지 갔누? 살살.재밌게 즐겁게..... 파이팅.....

(2009/06/18, 참여자 4, 저널)

방 안에서만 생활한다 . 별로 안 덥다. 안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음

악 틀어놓고 있으면 괜찮다. m이 웅얼이도 엄청 많이 한다. 모든게 갑작스럽게..... m을 안고 컴퓨터 하면 키보드..... 내가 마시는 물 병 마시는 커피잔..... 모든 것에 관심 가진다. 그래 그럼 그럼~

(2009/06/24, 참여자 6, 저널)

뿐만 아니라 엄마와의 적대적인 미혼 양육모의 영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경계선 안으로 밀어 넣는 경우도 나타났다.

직접 당해보니까 n이 미워요. 솔직히 너무 미워요.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그 엄마나, 애나. 우리 애 옆으로만 와도 저쪽으로 가라. 엄마한테 가라....했어요. n 얼굴 보면 확 쥐어 박고 싶어요~ 미워요. 더 더 미워졌어요. 머리통 한 대 쥐어박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챘는 지 방에서 나오다가도 들어가요...어쩔 수 없어요 지 엄마가 미우니..

(2009/06/02, 참여자 3, 개인면담)

요컨대 미혼양육모와 구성원들간의 무관심 속에서 격리된 채 개별 공간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모습은 호기심과 탐색으로부터 차단 당하고, 적극적으로 경계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도 신체발달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아의 발달을 경계선 안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서 막아 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나타 내 주고 있으며 생득적인 발달이기에 인위적인 환경과는 무관하게 진행 되어 감을 나타내 주었다.

한편 미혼양육모가 퇴소가 다가오면서 다음 거처지에 대하여 막막해 하면서 온 신경이 거처지에 가 있을 때 영아는 최소의 관심을 받고 필요한 최소의 반응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감기가 오래 되어 찾아온 불청객 외이도염...어쩐지 어느 때부터인가

귀를 굽적이더니.,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니가 고생이네.하긴.내가  
주의깊게 봤더라면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텐데.....그냥 대강 넘어갔지  
뭐야.....미안해 아들.....

(2008/12/14, 참여자 2, 저널)

영아가 아프다. 그러나 엄마의 관심은 온통 다음 거처지일 뿐이다. 다음 사례는 오래된 감기였는데도 엄마가 지나쳐서 결국 외이도염으로 전이 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 6의 사례에서는 영아가 울어도 엄마는 관심이 적은지 영아의 자극에 엄마의 반응도 적어 자녀에게 무관심하게 보여 졌다. 미혼양육모의 머리 속은 온통 새로운 거처지에 관한 생각뿐이다. 때문에 불안 전한 생활의 연속이 된다. 이러한 부모의 불안은 영아를 주변 사물과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다양한 감각과 조작을 경험 할 수 있는 범위를 통제 당한다. 또한 미혼양육모의 불안한 생활이 허공에 떠 있는 듯 영아도 멍해서 놀이는 기대하지도 못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득 표정이 애기 아니다. 모든 걸 다 아는 듯한 표정.....때론 무관심  
덤덤하기까지 ...무섭다. 한참 놀다가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 짜며 울길  
래 안았더니 웃는다. 안아달라는 거였나 보다. 애늬은이같이..... 표현을  
하지

(2009/08/19, 참여자 6, 저널)

내가 불안해서 애한테 집중을 못하니까 내가 애를 보면서 멍하고 애도  
어떤 땐 나를 볼 때 멍하고..애가 엄마가 하는만큼 반응을 보이고 표현  
을 하는 건데..... 제가 미안하죠 워낙 미진언니가 유난하니까 제가 안  
안 그럴려고 했지만 그렇게 애한테 미안은 하지요.

(2009/08/28, 참여자 5, 개인면담)

아래의 사례는 예측 했던 대로 엄마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서의 영아의 놀이는 자유롭게 적극적인 형태의 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영아들이 탐색

하던 활동이나 그나마 방관자적으로 지켜보던 놀이를 쉽게 포기하고 또 다른 사건이나 물건에 관심 갖는 사례가 나타났다. 영아는 자신이 하던 놀이가 방해 받을 때, 다른 영아가 혼을 내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일반가정에서 자란 영아는 일반적으로 큰소리가 나거나 혼을 내면 덩달아서 우는 것이 특징인데 미혼양육모의 영아는 무반응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와 참여자 3, 참여자 6과 퇴소가 다가와 여기저기 모자원을 알아보다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 참여자 3은 h가 연구자의 핸드폰에 관심을 갖고 놀던 h가 n에게로 다가가 n의 몸을 한번 '톡' 건드린다.

n: (h를 멀뚱멀뚱 지켜만 보며) .....

h: (웃으며)오아...무아?...(n의 다리를 만지작 거리고 머리도 만진다)

n: (멀뚱멀뚱 h가 h는 모습을 지켜만 본다)

n엄마: (더이상 n에게 못 다가오게 h의 손을 잡으며) 왜? h야? 안 돼!

h엄마: (화들짝 놀란듯이 다가와 h를 안고 컴퓨터 책상으로 가 앉는다)

선생님 xx모자원 어때요?

h: (멀뚱멀뚱 거리다 n과 우리 쪽을 보더니 팔과 머리를 한번 휘저으며 컴퓨터 자판기를 만진다. 금새 잊어버린 듯)...엄마? 엄마?.....

(2009/08/21, 연구자 현장관찰 노트)

아래의 사례에서 쉽게 잠들지 않는 y를 한 시간 가량 안고, 업고 다니다가 끝내 잠들지 않고 칭얼거리자 y엄마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이때 n이 주방으로 내려온 지 10분 채 안 된 상태에서 엄마와 밥을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y엄마가 소리를 질러댄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은 소리가 커서 잠시 힐끔 쳐다 봤다가 원위치로 돌아가 밥을 먹었다. n에게 있어서 y엄마의 분노는 새삼 새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이다. 이는 n 뿐만 아니라 h에게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영아들은 분노와 공격적 표현 언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식탁에서 n과 n 엄마가 밥을 먹고 있고 y는 엄마와 시름 중이다.  
y엄마: 자라~~ 좀 자라구~~  
y: (짹짹 거린다)  
y엄마: 잠 좀 자자구~~(y를 들쳐 업는다) 이제 고마 좀 해~  
y: (짹거린다).으이이이.....  
y엄마: 힘들어죽겠는데....한 시간째야...고마해라 이제....(짜증을 내며)  
y: (짹짹)이이이이이~  
y엄마: 예잇xxxxx ,(y를 내려 던지며 큰소리로) 그럴려면 니 아버지한테  
가! 가라구.  
n : (y엄마의 큰소리와 욕설에 잠시 힐끗 돌아보더니 무표정).....( 하던  
손가락질을 계속 한다).  
n엄마: (n에게).....자~~ 이것도.....먹어야지~  
(2009/07/01, 연구자 현장 관찰 노트)

이상과 같은 결과는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입소 말기쯤에 나타나는 미혼양육 모의 퇴소에 대한 불안함은 영아기 발달과제의 수행보다 강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다시 말하자면 퇴소기에 처한 미혼양육모의 영아는 이 시기에 기본적인 요구인 아픈 것에 대하여 관심을 받지 못 하였고, 방관자적인 탐색활동을 하였으며, 부정적인 정서로 표출되는 소리에 대해서도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 2.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양육환경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양육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혼양육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모성양육의 의지를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환경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부정적인 환경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과 심리적인 상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살펴 본 결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들이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는 영아와의 결속감과 모성양육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지원 및 영아와 생활할 거주 공간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기능이 약하고 이주과도기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아의 운동과 인지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혼양육모는 자립에 대한 압박감과 거처 문제로 인한 불안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종사자 및 동거하는 미혼양육모와 억압적, 공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물리적 양육환경 및 심리적 지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들이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는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는 영아와의 결속감과 모성양육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다양한 지원 및 영아와 생활 할 거주 공간을 확보했다는 안도감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영아와의 결속감 유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들의 긍정적 심리적 지원은 성장하는 영아와의 결속감이 모성애의 든든한 자원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양육모는 이 세상에 자녀와 단 둘이라는 결속감이 있다. 이는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면서 보다 많은 이웃과 원가족과 경제력, 사회적 기반을 포기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미혼양육모의 이러한 결속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우선 ‘가족’이라는 끈끈한 정이다.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였는데(강은화, 2005). 미혼양육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후회보

다는 가족 하나 얻은 뿌듯함과 든든함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다음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미혼양육모의 이러한 심리를 읽어 볼 수 있다.

재워놓고 다른 집에서 놓고 있다가 문득 울것같은 생각에 집으로 오면 이미 오는 길부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와서 달려오게 만드는 우리 딸 ...그런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이 엄마가 너무나 우리 딸을 사랑한다는거 엄마 뿐만 아니라 널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해줄꺼야. 이렇게 이쁜 딸 인줄 모르고 낳았지만 큰 후회를 할 뻔 했어. 아마 평생 후회를 했을거야. 간혹 너가 울기직전 삐죽삐죽 대는 입과 표정이 귀여워 울리기도 하지만. 잠투정 땡깡에 엉덩이를 때리기도 해도 넌 엄마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이라는거 이것 하나만 알아줬으면 한다.

(2008/12/12, 참여자 1, 저널)

한 생명을 내가 탄생시켰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것 이지만.....내 몸에서 빼와 살을 만들어 내 딸을 탄생시켰다. 내 몸은 소중 소중하고 고귀하다. 지금와서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생각이지만 한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에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만.... 여자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이다. 탄생시키는 자신이 추해보일 수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름답다. (중략).....

그래 난 힘들었고 난 아팠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주었다. 밝게 자라주는 거 같아서 고맙다. 건강히 자라주어서 감사하다. 엄마를 좋아해줘서 너무 사랑스럽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이성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 속으로 난 자식과 살다가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이제는 그 차이가 얼마든. 이제 내게 둘 다 소중한 가족이다. “가족”

(2008/12/26, 참여자 5, 저널)

위에서 제시한 ‘이쁜 딸인줄 모르고 낳았지만, 후회할 만한 일을 할 뻔 했다’ 라고 말하는 임신 기간중 낙태할 뻔한 경험이 있었던 참여자1의 사례에서 딸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못 볼 뻔 했던 딸을 키우면서 느끼는 부모됨의

기쁨은 엄마 목숨보다 귀한 딸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된 애정으로 길거리에서부터 딸의 울음소리에 달려가는 딸과의 영속적인 관계 형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참여자 5의 사례에서도 ‘뼈와 살을 만들어 내딸을 탄생시켰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경험을 통하여 여성에서 모성으로 변화된 자신과 이로 인해 결속을 맺어 가족이라는 끈이 된 딸을 보며 부모됨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Kirchner와 Seaver(1977)의 부모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적 동기가 영속성 추구, 출산과정의 경험, 애정과 인생의 충만한 경험이라고 한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나중에 커서 어떤 성향의 아이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 바랄게 .  
 나중에 너의 일기장을 봤을 때 “난 왜 아빠가 없을까? 라는 소심한 아이  
 보다는 “아빠가 왜 필요해”하는 당돌한 아이로써 떳떳하게 적어놓은 너의  
 일기장을 보고 싶구나 니 엄마가 너에게 모든 걸 설명하고 너를 설득시키  
 기엔 이 어미가 너무 지쳐있지 않을까? 이 지친 엄마를 위로해 줄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어주렴

(2008/10/5, 참여자 1, 저널)

또한 미혼모양육모가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면서 개인 과업으로 변화였지만 (김혜영, 안상수, 2009), 편한 길을 버리고 생명을 택한 자부심이 자녀에게서 얻는 행복으로 결속감을 더욱 깊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생명을 지킨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씩씩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미혼모들이 왜 비웃음거리가 돼야 하고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듯 낙태를 하고 아무런 죄 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 이전에 양육을 선택하든 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입양을 보내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킨 그들에게 사회적인 지지기반이 더 많이 만들어 졌

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8/12/14, 참여자 3, 후원자에게 쓴 편지글 )

미혼모라고하면 쳐다보는 그 눈빛들 좀 치워주실래요? 미혼모라고하면 쫓쫓하며 혀를 차고 미혼부라면 와.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건지.....여자는 혼자 애기 낳아 키우면 안 되고 남자들은 된단 말인가? 왜 당신들은 그걸 모르시는지.....미혼모가 된 사람들은 자식 버리지 못해 된 것이고, 미혼모로 만들어버린 새끼들은 자식을 버리고 지 살 길 찾아간 새끼들인데 왜 미혼모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건지.....아 그럴지.....남자들은 티가 안 나니깐..... 혹시 아나요? 당신의 애인이 과거에 자식 버린 우리 남편인지.....

(2008/10/11, 참여자 1, 저널 )

나는 애기 보느라 바쁘니깐. 후회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놀만큼 놀았으니 더 재밌게 놀 수 있었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어~ 니들은 열심히 놀아라.. 놀 수 있을 때 노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 거다. 내가 집에 처박혀서 열라 키운다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마. 니들이 받을 수 없는 무언가를 아기를 통해 받으니깐.....하루하루 살아가는게, 행복하고 즐거우니깐, 나를 보고 생긋 웃어줄 때, 그 때 기분은.....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야..

(2009/ 01/ 03, 참여자 7, 저널)

애기를 지키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아빠 뒤편까지 해야하니까 제가 못 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없을 때 봐 줄 사람이없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 무단횡단하면 이렇게 하면 죄짓는 거 같아요. 제가 아프면요 애기를 엄마가 아니면 봐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니면 지킬사람이 없어요.

(2009/06/18, 참여자 3 개인면담)

이상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미혼 양육모는 자녀와 결속감이 형성되어있으며, 그 속성은 가족이라는 끈과, 개인과업을 의연히 받아드린 자신에 대한 자

부심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자녀와의 결속감은 미혼양육모의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볼 수 있다.

## (2) 모성양육의지 독려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녀의 양육을 결정한 미혼양육모의 모성은 여느 모성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모성은 버림을 각오로 해야 하는 비장한 모성이다. 이들이 자녀의 양육을 택하면서 각오해야 할 것은 원가족으로부터 버림과, 아이의 친부로부터의 외면,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다니던 직장 및 학업을 중단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맞설 용기를 갖고 있어야만 된다. 이러한 각오가 준비된 미혼양육모만이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영아에 대한 애정과 출산시까지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은 영아양육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준다(박숙희, 2000).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아의 양육을 결정한 미혼양육모들은 영아를 키우면서 다양한 양육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이 영아와의 남다른 관계를 만들어 주며 양육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설득력있게 나타내 주는 모습들을 아래에서 볼 수 있다.

키는 80등을 넘고. 몸무게는 55등, 머리둘레가 60등...잘 크고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기뻐다. 우리  
딸래미 엄마가 많이 해 준거 없는거 같은데 알아서 잘 커주니 말이다.

(2009/02/27, 참여자 1, 저널)

위의 사례는 아이를 잘 키웠다는 긍정적 메시지에서 힘을 얻는 모습이다. 위에서 참여자 7은 아이와 함께 간 병원 정기 검진에서 의사선생님의 아이의 신체발달 건강 순위를 들으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이

의 출산과 양육을 혼자 힘으로 결정 하였는데, 잘 양육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늘 걱정 하다가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들으면서 스스로 만족감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사례는 돌잔치 하는 날 참여자 1이 쓴 저널인데 이 자료에서 돌잔치를 제공 해 준 복지 단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 내용이다.

'스페이스 휴'에서 우리 s돌잔치를 하였다. 기분이 참 묘했다고 해야하나... 그냥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버리고 못 할 거 같았던 돌잔치를 하고.. 오늘 하루 즐거웠으면서도 조금은 우울했던..만감이 교차한 기분의 그런 날이다. 우리 딸래미가 언제 이만큼 커서 벌써 애기 낳은지 1년이나 됐고.... 미루면 안 되는 생일 잔치를 4일이나 미뤄서 했지만 그래도 했다는 것에 감사해야지....한복 입은 s의 모습을 보니 내 어릴 적 돌사진과 너무 닮았더라...이 녀석.

( 2009/08/07, 참여자 1, 저널)

s의 돌잔치가 다가오면서 s의 엄마 즉 참여자 7은 돌잔치를 못 하게 될까 봐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하였다. 돌잔치 할 여력도 안 되는데다가 부를 친인척도 없고 친구들도 없었었기 때문이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 00 복지회에서 돌잔치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이벤트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대표가 미혼양육모의 자녀들을 위하여 00 복지회에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행사였다. 그러니까 s는 하지 못 할 뻔한 돌잔치를 이 식당에서 최초로 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참여자 1은 돌잔치를 하면서 핏덩이를 출산하고 막막했던 것이 어제인데 벌써 둘을 맞이해 잔치를 하게 되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돌잔치를 지원해준 식당과 복지회에 감사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행사 지원을 통하여 참여자 1은 s의 성장에 든든함과 뿌듯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남감이 늘었어요. 장남감 선물을 받았거든요. 오감발달매트와 물놀이 장난감이요. 아직 물놀이 장남감에는 흥미를 안가지지만 오감발달 매트는 잘 놀아요. 거울도 한번 보고 만지면 부스럭 소리에 또 만져보기도하며 해헤헤^^

(2009/02/09, 연구자 홈페이지 게시판)

자동차 큰거, 작은거, 보행기 앞에 달리것, 헌책 3권정도? b가 보다가 찢어진 팝업북, 장난감은 거의 안 산다. 살림살이가 장난감이라.....

(2009/08/10, 참여자 6, 개인면담)

아침에 부모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마사지를 (중략)그후 00사회복지협회에가서 케익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 차려준 뷔페식의 밥도 먹고 h의 책과 나의 화장품을 선물받고 케익 만든것도 가져가라고 하셔서 가져왔다. 너무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갔다온 보람이란 것을 느끼며 즐거웠다.

(2008/12/23, 참여자 3, 개인면담)

연구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간 장난감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답한 글이다. 오감매트는 기어 다니는 영아를 둔 엄마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던 영아용품이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같은 월령대의 영아의 엄마인 참여자 3도 갖고 싶어 하던 매트이다. 이런 용품을 지원받아 아이가 만지고 놀이하는 모습을 통하여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영아용품은 주로 외부의 사회복지단체 및 기관이나 같이 거주하는 월령대가 높은 아이가 사용하던 것을 물려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사례들은 장남감과 도서 및 아동의 인지를 자극 시켜 줄 수 있는 물품들을 어떻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받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을 받고나서 미혼양육모들이 자존심 상해하거나 불쾌해 않고, 기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참여자 6이 받은 장난감과 도서와 옷은 옆방의 아이가 입던 옷이고 장난감이다.

한편 물품을 지원받거나 행사를 지원 받는 것이 아닌 이들을 옹호 해주는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들의 행동들로 미혼양육모들의 양육의지를 증진 시켜 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곳은요 외부에서 강의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라든가, 의료진들이라든가...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나 안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외부에서 왔다가가면 우리에게 설문조사해요. 평가를 하는거죠 좋았는지 나빴는지, 다시 왔으면 좋겠는지 안 볼르길 원하는지..이런거 물어봐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언젠는 외부 진료 받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우리 엄마중 한 사람이 안 좋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이 모두 몰려가서 항의 했잖아요.

(09/07/24, 참여자 3, 개인면담)

위의 사례는 참여자 3이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고 처음으로 들어가 살았던 공동생활가정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하는 장면이다. 참여자 3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시설 종사자들의 미혼양육모들의 의사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다 보면 상담을 비롯 다양한 교육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 활동 및 상담활동 후 내용에 대한 평가를 미혼양육모들에게 직접하게 하고, 평가 결과를 즉각 실행에 옮기는 운영방식이 이들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진료 의사선생님으로부터 공동생활가정 엄마중 한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종사자들이 모두 가서 항의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는 시설 종사자들에게 든든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결과 미혼양육모들은 모성양육의지를 지원 해주는 요소로 자녀를 혼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키웠다는 자부심, 외부로부터 후

원 받은 영아용품들, 지원 받아 치룬 돌잔치, 미혼양육모들의 사회적 편견과 냉대로부터의 옹호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 양육 거주 공간 확보를 통한 안도감 :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역할

공동생활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들은 출산을 선택하면서 기본적으로 2군데 이상의 시설을 거치게 된다. 우선 출산을 앞둔 미혼모는 산후 조리와 출산을 위하여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미혼모 보호시설은 출산 전 후 최대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으며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이 제공된다. 주로 출산 후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지 않는 미혼모들이 많고, 직업재활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산후조리와 양육을 병행하는 자녀의 양육을 결정한 미혼양육모들에게는 오래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다. 때문에 미혼양육모는 자녀와 거주할 거처지를 물색하게 되고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하게 된다. 물론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직접 마련해서 퇴소하는 사례도 있지만 지극히 미약하고 대부분 국가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을 알아 보게 된다. 미혼모자 시설 중 최근 미혼양육모가 늘어나면서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도 증가 되었는데 주로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으로 입소하게 되지만 빈 방이 없으면 대기를 해야 하고 그때는 고시원이나 친인척, 친구 등에게 잠시 얹혀 살게 된다.

이처럼 미혼양육모들은 출산만 하고 홀로 나가는 미혼모들과는 달리 자녀와 함께여서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늘 주거에 대한 걱정이 많고 주거공간의 확보는 그 어떤 지원보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사례는 미혼양육모와 영아를 위한 주거 확보 당시의 생각들을 살펴보았다.

저야 혜택을 잘 받고 있지만요...이건 눈가림이라고 생각해요(입양기관을 말함)... 이것 을 위해서 사회에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여기도

있구...대전에도...있구....그 이면에 양육하고싶은 엄마도 많은데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을 안 알려줘서 엄마들은 몰라요~ 공동생활가정도 몰라요 이런데가 있다고 입양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입양 안 시키려는 엄마들도 많을걸요. 아이를 입양시키는 미혼모들이요.. 아이 낳는 날은 아파서 아이와 떨어지는것에 대해서 모르는데요 하루만 지나 봐요. 방문 걸어잠그고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도 엄만데요. 그래서 애기 낳은 다음날은요 우리도 근처에 안 가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되요

(2009/08/10 참여자 3, 개인 면담)

위의 사례에서 참여자 3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을 해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의 면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참여자 3은 입양모들의 자녀에 대한 상실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태가 우울할 것이라며 걱정을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이유는 참여자 3이 자녀를 출산하기 전, 출산할 장소 문제로 미혼모보호 시설을 알아보던 중 입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입소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몇 차례 경험한 바 있었기에 자녀와 분리되어야 하는 입양모들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양모들이 자녀를 입양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것 때문인데 미혼양육모자가 거주 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와서 짐 정리하고 피곤하네~~ 에휴~~ 내일 마무리 해야 겠다. 내 짐이 확실히 많긴하네...(중략)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은 옥상이다. 새벽에 옥탑방으로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아마 젊은 여자가 한껏 멋을 부리며 올라간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겠지만 수수한 차림으로 올라가는 40대 초반의 여자...오늘 하루도 열심히 돈을 벌

고 와 피곤한 기색이 물씬 풍기는...보고난 후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중략). ..s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편해 질 테니깐 자주 놀러가야지....잊지 못하고 추억이 가득하고 내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곳. ..살아가면서 평생 은혜를 갚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2008/10/10, 참여자 1, 저널)

참여자 1은 자녀를 출산하고 잠시 보호 받았던 미혼모보호시설에 대하여 's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자주 놀러가야지(중략).....추억이 가득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 곳을 살아가면서 평생 은혜를 갚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감사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양육모들이 출산의 고통을 함께한 미혼모 보호 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그 시설에 대한 든든함에서 오는 소속감으로 분석된다.

또한 미혼양육모들 중에는 주거 공간의 확보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

h의 백일 날.....우리 s 보다 3일 늦게 태어난 h.....오늘은 어머니 돌이서 뽀 받아서 즐거운 날이다. 왠지 안쓰럽고 미안하고 이 엄마들의 자존심 때문에 결과가 이렇기에 미안해 했던...그런 딸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내심 불편 했던 것이다. 이쁜 딸들...이쁘게 자는 모습들이 더더 이쁜 딸들.. 현재를 난 즐긴다. 런 도움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이 난 받을 수 있는 동안 받을 것이다. 아주 행복하게...~~

(2008/11/13, 참여자 1, 저널)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미혼양육모들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주거 공간의 확보에서 자녀와 인생을 출발 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으로서의 소속감을

얻었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안도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2) 미혼양육모의 영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별 공간과 공용공간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미혼양육모들이 생활하는 공동생활 공간은 보호기능이 약하고 이주과도기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아의 운동과 인지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호기능이 약한 이주과도기적인 공간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공동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공용 공간과 모자만 생활 할 수 있는 개인생활공간으로 구분된다. 공용공간은 공동생활가정 내 미혼양육모들과 영아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부엌 및 욕실겸 화장실, 거실 세탁실 등이고 개인 생활공간은 공동생활가정 내 모자가 배정 받은 방 한 칸이다. 여기에서는 공동생활가정 내 개인 생활 공간과 공용 공간을 통하여 미혼양육모들의 영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생활공간 : 언제 이사할지 모르는 이주과도기적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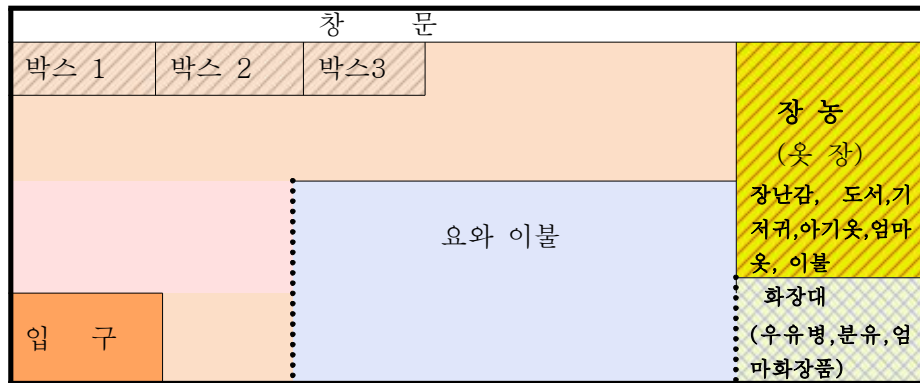
개인 생활공간은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이므로 특히 조용하고 독립성이 보장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사적인 공간이 공동생활에서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개인생활공간은 방 한 칸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방 안에 있는 생활용품 및 가구는 대부분 시설에서 제공하여 준 것이며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은 극히 드물다. 개별 공간의 특징을 살펴보면 표 14와 그림

3과 같다.

<표 14> 개인 생활 공간 특성

구분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3	참여자4	참여자5	참여자6	참여자7
시설	D	D	A	C	B	C	C
시설 공통 비치	- 박스 2-3개 -소규모 장롱 및 이불장 1개 -화장대 겸 책상 1개(크기와 모양 상이) -요와 이불 (같은 색상과 무늬)						
개별 비치	아기옷 수납장	4단서랍장 소형탁자	소형냉장고 방문모기장	없음	아기 책상	구형컴퓨터	노트북
기 타	-장롱 및 이불장 안: 도서와 영아 옷, 엄마 의류 -화장대 겸 책상 위 : 분유와 분유 케이스, 기저귀, 주방용품 -항상 깔려 있는 방바닥 위의 요와 이불 -박스 안: 장난감과 옷, 개인비품, 도서 등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생활공간을 살펴보면 방 안에 비치하고 있는 가구 및 생활용품으로 방 마다 소규모 장롱 및 이불장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으며, 화장대 겸 책상도 크기와 모양은 상이하지만 한 개씩은 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제공한 것으로 같은 색상과 디자인의 요가 항상 깔려 있으며, 참여자들의 방 마다 크고 작은 박스가 평균 2-3개씩 있다. 그림 3은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기거하는 공동생활가정 내 개별 공간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배치도이다.



[그림 1]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기거하는 공동생활가정  
개인생활공간 예시

이를 살펴보면, 우선 시야에 들어오는 물품의 종류와 수납부분인데 문 입구부터 보이기 시작한 박스들과 방의 1/3을 차지하는 요와 이불이다. 그리고 장농과 그 옆 벽면에 끼여 있는 화장대이다. 화장대 위에는 영아용품 중 식생활과 관계있는 먹다 남은 우유병 여러 개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우유병, 분유 통, 이유식 통, 등이 있고, 엄마의 화장품 몇 개, 커피 잔 등이 산만하게 올려져있다.

개인생활공간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박스가 많다는 점인데 이 박스들은 그 안에 영아의 옷과 엄마의 옷, 도서, 등을 보관하는 공간이며, 방바닥에 깔려 있는 요는 영아의 수유공간이자, 놀이 공간, 수면공간으로 사용되는 엄마와 영아의 종합적인 생활 장소이다.

또한 장롱은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개인물품이 수납된 공간으로 기저귀, 후원받은 장난감, 몇 권 안 되지 영아 도서, 계절에 맞는 엄마 의류와 영아의 의류, 침구류 등이 보관되어 있다.

개인생활공간에서의 특이사항으로 영아가 기거하는 방이라고는 하지만 영

아용품들이 눈에 띄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3층의 e 방으로 올라갔다. 3층은 방이 2개 인데 큰 방은 e 모자,작은 방은 t 모녀가 기거한다. t 방에는 옷 서랍장 위에 우유병이 놓여있고 옆에는 박스가 쌓여 있다. 특별히 t의 것이라고 보여지는 장남감이나, 도서들이 보이지 않고 방바닥엔 매트릭스만 깔려있는 것이 모두이다. e 방도 마찬가지이다. 큰 방에 빨래걸이와 구석에 뽕뽕이 말아 있고 박스 몇 개가 있다.

(2008/09/28, 연구자 현장 관찰 노트)

혼인 후 자녀 출산까지의 기간인 가족 형성기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크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이원숙, 2008).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저기 박스가 많다는 것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신체발달이 빠르며 운동발달이 빠른 영아에게는 적합한 환경이 못 된다.

이처럼 개인 생활공간에 박스가 많다는 점은 이사가 잦은 미혼양육모들이 마지막 거쳐지가 아니기에 또 다시 옮겨야 한다는 불안함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생활공간인 개별 방들은 언제 이사 갈지 몰라서 박스를 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 이주과도기적임을 알 수 있다.

나. 공용생활공간 : 영아들의 생활리듬을 보호 받을 수 없는 공간

공동생활시설에서의 공간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생활 공간인 방 한 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생활 공간이다. 즉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베란다 등 공용 공간에서 영아와 놀이를 하고, 개별 문화생활을 즐기며 함께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들과 소통을 하기도 한다. 개별 공간으로 방 1칸이 제공 되는데 이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용 공간으로 이용한다. 따라서 어떠한 공간이든 개별 공간인 방을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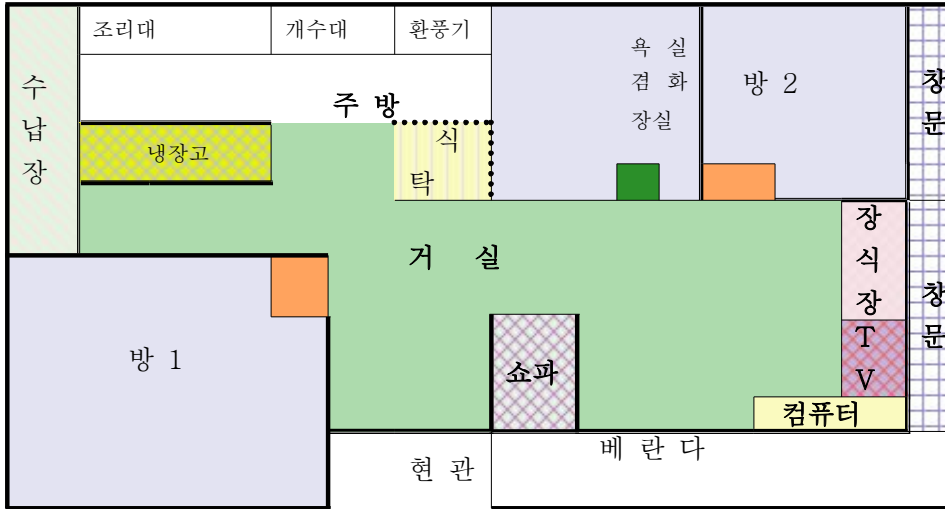
과 욕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하고, 장소별 방음 장치가 안 되어 있다. 이에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러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영아 양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공용생활공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5> 주요 공용생활 공간 특성

구분	A 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거실	-공간넓이:1.5평 -개별 빨래널이대	-공간넓이:2평 -TV -컴퓨터	-공간 넓이:4평 -TV -박스들 -컴퓨터	-공간넓이:2평 -TV -개별 빨래널이대 -박스들 -컴퓨터
주방	-냉장고 공동 사용 -2가족 사용 -사용 시간 자유 -개별 취사 -취사도구 제공 -부식비 제공	-냉장고 공동 사용 -4가족 사용 -사용 시간 자유 -개별 취사 -취사도구 제공 -부식 제공	-냉장고 공동 사용 -4가족 사용 -사용 시간 정해짐 -공동 취사 -취사도구 제공 -부식 제공	-냉장고 공동 사용 -3가족 사용 -사용시간 자유 -개별 취사 -취사도구개별구입 -부식 개별 부담
욕실(화장실)	-개별세면도구 -공용 세탁기	-공용 세면도구 -공용 세탁기	-공용 세면도구 -공용 세탁기	-개별 세면도구 -공용세탁기
베란다	-없음	-개별 빨래널이대	개별 빨래널이대	-없음

이를 살펴보면 공동생활 공간에서 거실이 차지하는 면적이 평균 2평 미만 이고, TV와 컴퓨터, 빨리 널이대가 놓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방은 4 곳 모두 공동 사용으로 가족 수에 무관하게 냉장고가 공용이다. 대부분 주방 사용 시간이 자유이고, 구비된 취사도구로 개별적으로 요리하며, 부식은 'D' 시설만 제외하고는 시설에서 부담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실 및 화장실에 4 곳 모두 세탁기가 있으며 세면도구는 시설에서 공동으로 제공 해 주는 곳이 2곳,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곳이 2곳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2는 공용 생활공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공용생활 공간 예시

이와 같은 공간 현황은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생활 영역을 알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우선 거실은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심이자 사회적 생활을 위한 공간이며, 개인생활 공간들을 연결해주는 소통 공간이다. 즉 대인 관계 및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열린 공간이다. 특히 미혼양육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의 거실의 역할은 영아들의 발달을 촉진 시켜주는 놀이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림 2를 살펴보면, 이곳은 방 2곳과 주방, 거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실에는 개별 방에 없는 TV와 컴퓨터가 있어서 구성원들의 동선이 빈번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TV를 시청하고 싶은 가족이 있을 것이고 컴퓨터를 해야 하는 미혼양육모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는 않으므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의 영아를 둘러싼 갈등 사례를 살펴보

면 아래와 같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CD를 사야겠다. 아이와의 모든 대화, 생활을 생중계하니.  
 환장하시겠다. 왜 거실에서 그러냐고요. 방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던지.....  
 왜 방문을 닫고 지내겠냐고, 저 소리 듣기 싫어서지.....애가 잠도 못 자게

(2009/05/25, 참여자 6. 일기 )

공간도 제일 넓게 쓰고 거실을 자기방처럼 쓰고 고요를 견디지 못하는.....  
 소리로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같은.....

(2009/05/10, 참여자 7, 저널)

거실서 떠들면 핸드폰 벨소리 음악 겸. 계단 올라오면서도 떠듬. 문 광광 닫고  
 바람 때문이라도 잡고 닫으려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자기 밖에 모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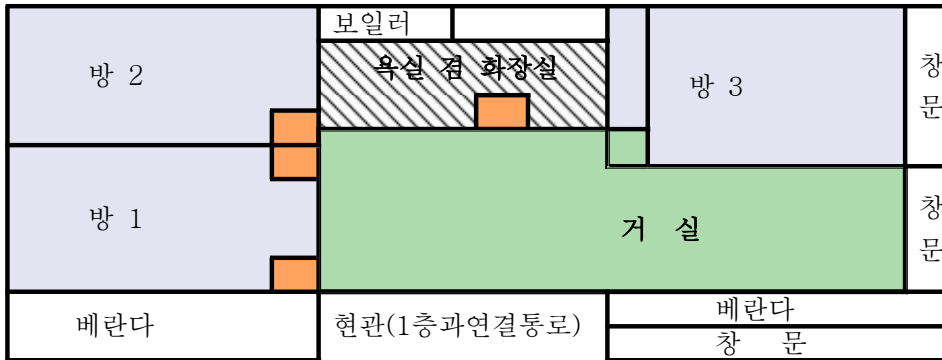
(2009/06.12, 참여자 5, 저널)

이상 살펴본 사례에서는 공동생활공간이자 각 공간의 연결 공간인 거실에  
 서 관계 연결도 시켜주지만 반면에 개인생활공간에 소음으로 전달되어 사적  
 인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다음에 제시하는 그림 3과 그림 4는 공동생활가정의 구조를 알려 주는 예  
 시이며 연구 참여자가 속해 있는 시설별로 큰 차이점은 없다.



[그림 3]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내부구조 예시(C시설의 1층 예)



[그림 4]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내부구조 예시(C시설의 2층 예)

위의 그림 3, 4는 전체 2층으로 된 A시설의 구조를 예로 나타 낸 것이다. 그림 1에서 1층의 구조는 주방과 욕실 겸 화장실, 거실, 사무실과 방 한 곳으로 한 가족이 기거를 하게 되어 있다. 반면 그림 2에서는 방 3 곳과 욕실 겸 화장실 1곳 거실로 되어 있고 주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방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공용 공간이며, 장소 별 방음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개인공간과 공동 생활공간의 경계가 모호하므로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사적인 영역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용공간에서 영아와 미혼 양육모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한다. 그러나 공동생활 가정에 기거하는 영아는 월령이 저마다 달라서 대부분 생활리듬이 다르다. 수면시간도 다르고 이유식 · 섭식 시간도 다르고, 놀이 시간도 다르다. 이에 영아들의 각자 다른 생체 리듬과 생활 리듬으로 미혼 양육모들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불만을 드러낸 것은 수면 중일 때와 놀이할 때이다.

미혼양육모들이 자신의 영아가 수면 중일 때 공용생활공간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일이 발생하면 극도로 민감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조용하지 않을래 우리 종알이 깨면 잡아서  
0000 갈긴다. 아무튼 깨기만 해봐 뒤질 줄 알아.

(2009/04/09, 참여자 7, 저널)

낮 시간에도 다른 아기가 자든 말든 자기 애기(h 엄마)안 자고 보채면  
거실 나와 떠들고 문 광광 닫고, 조용하고 문 살살 닫을 땐 오로지 자  
기 애기 잘 때 뿐이다. 이기적..(중략)

(2009/06/21, 참여자 6, 저널)

방해하니깐. 아기들마다 자는 시간이 달라 조심 조용해야 하는데 욕실물.  
방문. 현관 문 .계단 신발 소리.....거실에서 모든 생활 생중계. 계단에서  
애한테 말하기...등 스트레스가 많아요.

(2009/07/16, 참여자 5 ,개인면담)

이와 같은 결과는 미혼양육모들이 영아가 수면을 방해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일련의 저항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0-1세의 경우 수면 시  
간이 생애 발달 주기상 가장 길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  
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수면은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생리적 기제이다(정미라 외, 2008). 이에 수면을 방해  
받을 경우 미혼양육모와 영아 둘 다 스트레스를 받아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  
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서로 다른 월령으로 인하여 놀이 및 다양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마찰  
과 갈등이 공용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월령이 다 다르니...최근 참여자 5와는 사이가 좋아요. n도 m과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 제가 볼 땐 m과 잘 지내면서 안 보면 m 얼굴  
부주의 하게 하고 만지고, 머리며....n은 자기 장난감도 못 만지게 해요.

거실의 청소기하며 m이 만지면 “가” 하면서 손으로 m치고 암튼.....  
워든 못하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m꺼는 쉽게 막  
만지면서.....

(2009/07/16, 참여자 6, 개인면담)

s가 잠을 자려고 칭얼대는데 s엄마는 안절부절이다. 옆에서 e가 자꾸  
s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s엄마는 결국 s를 업고 바깥으로 나갔다. 좀  
처럼 s의 짜증이 없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들어와 s를 안고 이제 좀  
가라 앉았는지 젓병을 물리니까 뺀다. 겨우 진정 되어서 빨고 있는데  
느닷없이 e가 s의 젓병을 뺏어 버렸다. s는 악을 쓰고 울고 s 엄마는  
화가 나서 e를 밀쳐버렸다. 그 바람에 e가 이마를 바닥에 짚었다(중략)

참여자1:언제나 저래요 e엄마는 e가 잘 못해도 야단 안 쳐요 그러니 늘  
s만 당하지.....e가 s 장난감 갖고 노는 꼴을 못 봐요. s가 지거  
갖고 놀아도, 와서 탁 뺏어버리고 밀쳐버리고 한두번이 아니예요.  
애가 이제 잡고 일어서서 걸어 다닐려 하는데 밀어 버려서 다치  
기도하고.....속상해 죽겠어요....왜 야단을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2009/07/16, 연구자 현장관찰노트)

이제 혼나는거.....이런 건 괜찮더라구요. 저도 어허 n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제가 업고 나가버려요. 제가 업고 같이 티비를 봐요. 언니가 가끔  
가다 업고 그러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애를 업고 내가  
나가요.

(2009/08/19, 참여자 5, 개인 심층)

저 j는 싫어요. j랑 s가 같이 있으면 j가 s를 때려요. 자기 꺼 뿐만 아니라  
s거 장난감도 못 만지게 해요~ 밀치고 때려요. 이제 겨우 잡고 일어서는데  
자기 뽕뽕이(장난감) 잡고 일어서면 밀어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엔 문지방에  
머리를 짚어서 많이 울었어요 속상해요.

(2009/07/15, 참여자 1, 개인 면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더 개월 수가 높은 영아가 낮은 영아의 장난감을 빼앗아 버리거나, 잡고 일어나 걸으려하는데 밀어 버려서 발달을 방해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동생활공간에서 비슷한 월령대가 동시에 공용 공간을 이용하여서 발생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을 미혼양육모들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상호 발달을 촉진 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상호 불충분한 양육지식으로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스트레스가 쌓이며 이러한 갈등은 영아의 발달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건강과 안전에 부적합한 환경

영아는 안락하고 쾌적하며 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 해 주는 것이 필수이다. 그렇게 때문에 영아에게 있어서 최초의 가정환경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위한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아를 위한 안전과 영양적 측면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비롯하여 미혼 양육모까지도 불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인하여 영아들은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점 위주로 살펴 본 결과이다.

### 가. 위생과 안전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를 비롯하여 종사자들에게 있어 영아의 위생과 안전은 인식 정도가 낮고 불안하게 나타났다. 우선 수유기인 영아기에 있어서 우유병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화장실 세면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아기들의 우유병이 보였다.

거울 바로 아래 왼쪽에는 m의 우유병 다섯 개와 젓병 세정제, 우유병

뒀는 솔이 놓여있고, 오른 쪽에는 개월 수가 조금 높은 n의 이유식 젓병 3개와 손잡이 우유 컵, 젓병 세정제가 놓여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세탁기가 있는데 그 위에는 방금 씻어서 얹어 놓았다는 h의 우유병 6개가 놓여 있다.

(2009/04/17, 연구자 현장관찰 노트)

화장실이라고 더럽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여기에 처음 왔을 때는 다른 엄마들이 여기서 씻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살아 보니까 욕실겸 화장실이어서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주방이 있는데 내려가기도 귀찮고 또 젓병 세정제가 있으니 이걸로 소독하면 돼요. 세정제로 농도 조절해서 휘~ 그리고 말리면 돼요. 얹어서 말예요. 처음엔 샤워기로 뜨거운 물 틀어서 씻고요. 주방에 내려가도 젓병 세정제로 소독 할건데요 월.한번도 끓는 물에 소독 해 본 적은 없는데요? 똑같지 않아요?

(2009/04/17, 집단 면담)

살펴 본 결과 우유병이 있는 장소는 주로 주방이 아니라 제 3의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는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유병을 화장실 세면대에 놓고 사용하였으며 다른 시설에서는 개별 방에 있는 화장대 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우유병 소독을 대부분의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세정제로 한번 씻고 수돗물로 헹구고 마는 형식을 취하였다.

물론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우유병은 젓병 세정제로 씻어서 다시 한번 소독을 하기 위하여 끓는 물에 중탕을 하거나 젓병 소독기에서 소독을 한다. 그러나 이 곳의 미혼양육모들은 화장실의 샤워기로 물을 틀어 씻어 내리기만 하고 끓는 물에 소독은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는 사용한 우유병과 기타 부속 기구는 깨끗이 씻은 후, 5분 이상 끓는 물에서 열탕 소독하여야하여야 함에도(정미라 외, 2008) 불구하고 화장실의 샤워기로 씻어 관

리하는 태도는 영아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

한편 생리위생 공간인 욕실 및 화장실은 공동생활에서 거주하는 미혼양육모를 비롯 영아들의 주요 이용 공동생활 공간이 된다. 특히 영아기 때는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기 위하여 목욕을 자주 시켜줘야 할 뿐만 아니라 용변 후에도 욕실을 이용하기에 공동생활공간으로서의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다.

변기 위의 오줌방울.....긴 머리카락(사워하고 따로 버리지도 않아요).....  
머리카락은 거실에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화장지도 한번 안 갈아요.  
내가 다 갈지..... 처음엔 이 곳 화장실 깨끗했어요. 근데 남의 집 화장실  
처럼 쓰니까 냄새가 나고 더럽지요

(2009/07/03, 참여자 3, 개인면담)

일지에 적기 위한 청소기, 걸레질보다 작은 흔적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럽게 한 건 누구고 청소는 누가 하고....

(2009/07/03, 참여자 7, 저널)

아침에 똥 묻은 손 씻어야(기저귀 갈고) 'm' 밥 먹이지..... 급해서 욕실  
들어갔구먼 아침에 바쁜데 때 밀고 있네.....나가면 혼자 다 차지구만.....  
외출? 3시 넘어 했드만 그런데 아침부터 왜 호들갑이었을까? 출근 준비  
할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하네.....

(2009/07/01, 참여자 6, 저널)

욕실은 습기가 많으며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역이라 전염성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 균 등이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체액이나 신체의 분비물이 묻은 경우 즉시 빨거나 소독을 해 줘야 된다(정미라 외 2008). 그러나 영아와 함께 이용하는 이 곳의 욕실은 소변이 묻어 있거나, 때를 밀고 난 후의 흔적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미혼양육모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질병 및 전염병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병 및 전염병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살펴 본 결과 영아를 위한 질병 및 전염병 관리는 사후 처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을만하면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고.....이 겨울을 때려 죽일수도 없고 아프지 좀 마라 엄마 속이 뒤집어 지거든?(중략). 원인도 모를 칭얼댐에 오늘 하루도 마음이 힘겹다.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괜시리 이곳에 있기에 더 아픈 것은 아닐까 하는 바보같은 생각도 밀려든다. 아들이 아프지 마라.....

(2009/01/참여자 4, 저널)

미열로 시작해 한 이틀 미열보다 심하게 열이 났더랬죠. 열외의 증상은 보이지 않아 급한대로 해열제를 한번 먹인 뒤 열이 내리자 지켜보았는데 열이 쭉 지속되어 병원에 갔어요. 감기증상은 전혀 없는데 병원에선 열감기라고 하더라구요. 이곳에선 늘 감기가 끊이지 않아 중이염 증상도 동반해(중략)

(2008/12/04, 참여자 4, 개인면담)

이 곳은 감기 코감기 지긋지긋한 감기가 돌아서 다들 초죽음 초긴장 상태...n이 퇴원하자마자 m이 입원하고(모세기관지염) 밤에 애들 보채는 통에 우리 다 잠 못 자고 흑흑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애들이 자꾸 아프구..언니는 h가 감기 안 걸리게 꼭꼭 조심해요.

(2009/01/10, 참여자 2, 저널)

아침부터 애들이 병원을 찾아나섰다. 심각하다. 열나고 설사하고 토하고

3중 셋트네...새해부터 병치레를 하다니....얼마나들 클려고 하나....우리  
아기들 아프지말고 빨리 낫기를.....

(2009/01/30, 참여자 5, 저널)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의 영아들은 빈번하게 감기에 걸리며 한번 걸린 감기는 또 걸리면서 잘 낫지 않아 엄마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기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없지만 집단 생활에서 오는 단점이란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기 질병 및 전염병은 영아기에 상당히 민감한 영역이다. 민감한 영역이란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정미라 외, 2008).

그러나 예방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대응 모습이다.

y 수족구병.....같이 살아도 거의 부딪치지 않아 걱정 안했는데 살짝  
걱정되기 시작. 예방은 잘 먹고, 물도 많이, 잘 씻고 잘 자고 하면  
된다는데.....

(2009/06/23, 참여자 6, 저널)

여기 수족구 선생님들이 관찰대요. 나보고 유별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숨기더라구요. 사무실에 이야기 했다는데 사무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선생님들이 심각하게 인식을 못 해요. 다 처녀들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이 오르고 이런거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심각하게 애길 안 해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말해요~ n 엄마도 아무 것도 아니라면서 우리들한테는 말도 안 해줬  
어요. 저는 우연히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 한테 알려주고 조심하라고  
해야되지 않나요? 여기 선생님들도 이해가 안가요. 왜 수족구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지.... 벌써 몇 명 죽었다는데.... 그리고 유행이라는데.....

(2009/06/18, 참여자 3, 집단 면담)

n이 갑자기 열이38도라서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일도 안 나가고 이틀동안 집에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n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수족구 걸린 애들이 많아서 휴원이 되었는데 말예요. 너무 속상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중략) 생전 안 놀리다가 요 며칠 n과 놀게도 하고 어제는 우리 방에 와서 놀았고 보행기도 탕고, 오늘 아침엔 이유식도 같이 먹었는데 세상에나..... 너무하지 않아요?

(2009/06/18, 참여자 7, 집단 면담)

y가 수족구 걸려서 입원했어요. n일 있고 나서 며칠 뒤부터 y가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사무실에서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열이 나서 안 떨어져 큰 병원에 갔더니 수족구라는 거예요. 난 요즘 일 층에 안 내려가요. 우리 애기 전염될 까 봐. 그리고 y 엄마가 욕을 하면서 여기 안 들어와 버리겠다고 했어요 .

(2009/06/30, 참여자 3, 개인면담)

전염병이 유행 할 때 혹은 전염병에 노출 되었을 때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과 미혼 양육모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살펴 본 결과 특히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전염병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과, 일단 전염병에 걸려 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이 병원에만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미혼양육모들은 사무실에서 대응책이 나오길 바라고 있지만 내놓고 요구할 수 없는 미묘한 입장이라 격리만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시설종사자가 특히 영아기의 질병 및 전염성 질환의 관

리가 관리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전염 속도도 빠르고 일단 감염 된 후에는 증세가 깊어지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지식의 습득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다. 영양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아의 영양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을 살펴 보았다. 일생 중에서 신체의 성장 발육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며 활동량이 많은 영유아기는 단위 체중당 소요되는 영양소 및 열량이 성인보다 높다. 이러한 이유로 분유로 부족한 영양을 이유식으로 보충하여 준다. 이유식은 영아의 성장 단계에 알맞은 조리법을 적용하되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여 준비하여야 한다(정미라 외, 2008). 따라서 영아기의 이유식은 영아의 건강 상태와 소화 상태에 대한 충분한 관찰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식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선, 이유식을 어른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식을 만들어서 엄마와 함께 먹고 성인들의 입에 맞는 조미료와 양념을 하였다.

삼복 중 초복이 다가왔다고 하여 y엄마가 닭요리를 준비하였다. 닭가슴살과 감자를 섞어서 간장 조림을 하였는데, 감자의 크기가 가로세로 1cm씩 되는 사이즈이다. 감자를 냄비에서 볶으면서 마늘과 파를 등 갖은 양념을 넣고(맛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더니 감자가 익을 때쯤 미리 삶아 놓은 닭가슴살을 찢어서 함께 졸였다. 다 되었는지 y를 (7개월 말) 식탁에 앉혀 놓고 이유식이라고 먹였다. y 입보다 큰 감자와 찢어진 닭 가슴살을 손가락에 밥과 함께 얹어서 입으로 떠 먹였다. y는 별 거부없이 잘 받아 먹었고 y엄마도 저녁이라면서 먹었다.

(2009/07/11, 연구자 현장 관찰노트)

저 별도로 밥해서 안 먹어요. 우리 애 이유식 할 때 조금 많이해서 같이 먹어요~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이유식 따로 하고 어른 밥 따로하지 않아요. 누가 해 놓은 밥이라면 있으니까 먹을까. 이유식거리로 반찬하고 그걸로 떼우는 날이 많아요. 맛도 좋고.....다이어트도 하기도.

(2009/06/26, 참여자 3, 개인 면담)

살펴 본 것처럼 이유식에 닭가슴살 간장조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닭도리탕을 흥내 내어 만든 요리이다. 소금, 설탕, 파, 양파, 마늘 등이 가해진 음식은 어린 약한 소화 기관을 자극하여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몸에서 남은 찌꺼기를 소변으로 만드는 콩팥에 무리를 가할 수도 있다(정미라 외 2008). 그런데 공동생활 가정의 엄마들은 이유식의 간을 주로 자신들의 입맛에 근접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의 미각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유식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여 냉동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h 엄마가 냉동고에서 h의 이유식을 꺼내왔다. 정사각형의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 이유식은 한꺼번에 해 놓은 이유식이라고 한다. 닭가슴살과 야채를 넣어서 으깨어 만든 이유식인데 너무 얼었다고 전자렌지에서 해동 시켜 g에게 떠 먹였다. 냉동고엔 h의 이유식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기들의 이유식이 각 6-7개씩 쌓아 서로 섞이지 않도록 정리 되어 놓여 있다. h, y, n, m의 이유식 도시락인 것이다.

(2009/05/27, 연구자 현장관찰 노트)

이유식을 그때 그때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그때 그때 있을 수도 없고, 또 따뜻할 때 얼리니까 괜찮아요. 한 번 할 때 며칠 분 꺼 해 놓고 해동 시켜서 먹어도 금방 한 거랑 똑 같아요. 그리고 주방도 오래 사용할 수가없으니까

미리 이유식 해 놓으면 재료도 절약 되고, 나도 시간 절약하고 좋지요.

(2009/05/27, 참여자 1, 개인 심층 면담)

이상 이유식의 양과 보관방법을 살펴 본 결과 2-3일 분량의 이유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냉동 보관한 이유식을 영아에게 먹일 때에는 전자렌지에 넣어서 해동 시킨 다음 먹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유식은 하루 분량으로 만든다. 간혹 하루 분량보다 많이 하여 남은 이유식이 있다면 보관 방법으로 냉동실을 이용하지만 그것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생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식의 보관 방법은 제공이 편리한 성인중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유식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과정을 간소화시키기는 것이므로 신선도에서 떨어진 이유식을 제공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편 미혼양육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아의 편식을 유도하는 식습관을 형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한테 밥을 안 먹여요. 애 먹는 거요~ 보면 언제 키가 클지 모르겠어요.  
밥을 안 먹여요. बे지밀도 토틀러 밖에 안 먹여요~~ 애가 안 먹어서 ....  
애가 먹는 것만 주는데 그것만 먹여요~분유도 10개월도 안 돼 끊었대요.  
영양가가 없다고 그러면서 안 먹여요. 그래서 n은 편식이 심해요.

(2009/04/09, 참여자 3, 개인면담 )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혼양육모들은 영아 섭식 시 자녀의 의사에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영아가 먹지 않는 것은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동생활 가정의 엄마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주는 양육 경향이 있는데 이는 섭식시에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영아기 영양에 대한 정보 부족과 불충분한 지식으로 인하여 영아기 건강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나온 것이라 보여 진다.

이상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미혼양육모의 영아의 양육환경 중 영양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결과 성인중심의 미각과 성인 중심의 편리성으로 이유식을 제공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영아의 인지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조건

가. 자연적 또는 환경적 교수 전략이 차단된 물리적 환경

미혼양육모의 영아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을 살펴 본 결과 자연적 또는 환경적 교수 전략이 차단된 일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자연적, 환경적 교수란 영아의 발달을 자연스런 상황을 통하여 촉진해 줄 수 있는 모든 물리적인 환경 구성을 뜻하며 상호 작용이란 엄마와 영아, 사물과 영아, 엄마와의 주변사람들과 영아, 기타 물리적 환경과 영아와의 관계를 의미한다(장영희, 2007).

성인과는 달리 영유아기 아동들의 발달적 특징은 무엇을 가만히 앉아서 학습하기 보다는 주변 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흥미와 호기심,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반응하며 발달을 이루는 것이기에 물리적 환경요인이 중요하다(이기숙, 2008).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생활가정의 환경을 영아를 위한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야! 책 가져와라” 라는 말에 c 는 걸어가 자신의 방에 들어가더니 장롱 서랍을 열고[손잡이가 있어 열기 쉬운 서랍] 그림책을 갖고 왔다. (중략) 조금 있다가 c가 e에게 주려고 사탕을 갖고 왔는 데 그것 역시 장롱 서랍에서 꺼내 왔다.

(2008/09/11, 연구자 현장관찰노트)

새로운 시설로 이사한 h 엄마의 초대로 h의 방에 들어 갔다. h 엄마는

방에 들어서는 연구자에게 장롱을 열어 보이며 가득 쌓여있는 기저귀와 h의 도서, h의 장난감을 자랑하였다. “저는 부자가 된 거 같아요. 이렇게 많으니까요~!” 장롱 안에는 도서와 장난감 외에 우유병과 분유 h의 옷들이 걸려 있고, 이불도 한 쪽에 정리 되어 있다.

(2009/04/10, 연구자 현장관찰 노트)

모든 걸 서랍 안에 넣어 놔요. 일단 방이 좁기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하니깐 장롱이나 박스 안에 넣어 놓지요. 그래도 뭐 이젠 어디 뭐가 있는지 다 알아서 잘 찾아와요.

(2008/09/11, 집단 면담)

위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장난감은 서랍, 도서도 서랍이나 장롱, 하물며 사탕도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를 자극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요소들이 모두 감춰져 있기에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노출된 자극 앞에서 영아는 놀이나 탐색의 형태가 독립적이고 주도적인데 공동생활가정에서 기거하는 영아는 폐쇄된 환경에서 생활을 하기에 주도적이라기보다는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참여자 1의 모자와 참여자 2의 모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e (당시18개월)는 바로 앞에 있는 숟가락을 엄마에게 달라고 숟가락을 가리킨다. 참여자 2는 숟가락을 들면서 “이걸로 밥 떠줄까?” 라고 한다. 그러자 e는 고개만 끄덕인다. 조금 후 e가 입가에 밥알이 묻자 엄마에게 입 주변을 만지며 엄마에게 짜증을 낸다. 엄마는 “어? 뭐 묻었다고?” e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화장지를 꺼내 입을 닦아 주었다. 이를 본 연구자가 평상시 생활도 엄마에게 의존하는지 궁금하여 물어 보니 참여자 2는 한숨을 쉬며 말 한다.

“e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지않고 나한테 해 달라고 해요~

불안해 해요. 심하지 않았는데 요새 더욱 그렇네요. 자기가 가더라도 나를 꼭 끌고 가는 거예요”

(2008/12/23, 참여자 2, 연구자 현장 관찰노트)

h엄마는 너무 아이보다 앞서가요. 아이가 해 내지도 못 하는데 먼저 말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h는 스트레스 받지요. 그리고 h엄마는 아이에게 애정 표현할 때 너무 요란하게 해요. “아이구 아이구 아유 아유” 등 이런 표현들을 시끄럽게 하면서 아이가 뭘 말을 하려해도 ‘아이구 아이구 이쁜 내 새끼’에 파묻혀 버려요. 애가 불쌍해요.

(2009/ 5/12, 참여자 5, 개인 면담)

<7개월 된 y를 목욕시키는 장면>

엄마: 물 끼얹자! 자! 자!

y : (방긋 웃기만 한다).....

엄마: 꼬기 있네 꼬도 만져보자~(물고기 모양의 물인형을 밀어준다)

y: (물인형에 관심 없듯이 쳐다만 볼 뿐 잡지를 앓고, 엄마가 갖고 있는 목욕타올을 만지작 거린다)

엄마: (목욕타올 잡은 손에 다시 물인형을 얹어 준다) 이게 더 이빠~

이거 갖고 놀아라~~ 아이구 물고기가 수영하네~~ 우우~~

y: 물인형에는 관심없고 분홍색 목욕타올만 본다.

(2009/05/11, 참여자 7 동영상)

위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미혼양육모들은 주로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 지시적인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참여자 2는 자녀가 놀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또래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엄마를 데리고 가려 하는 태도에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 7이 자녀를 목욕시키는 장면에서 자녀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엄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7개월이 되었으면 웅얼이도 할 수 있는 월령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본인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관심 있는 장난감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엄마가 자녀의 흥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의사전달로 볼 수 있다. 반면 참여자 5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함께 거주하는 참여자 3의 자녀 양육 방식에서 과도한 언어적 자극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참여자 5의 눈으로 본 참여자 3이 자녀에게 대하는 애정표현에서 자녀의 반응을 무시한 채 앞서가는 과도한 애정표현으로 자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차단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는 인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영아의 언어는 상징적 표현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고 및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장영희, 2007)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미혼양육모들의 영아에 대한 언어적 인지적 자극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의 영아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자연적 또는 환경적 교수 전략이 차단된 물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부족하고 엄마와 영아의 언어적, 인지적 상호작용에서 엄마 혼자 지시하는 일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영아는 엄마의 자극에 있어서 수동적 반응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3) 미혼양육모의 영아양육에 따르는 심리적 상태**

#### **(1) 자립에 대한 압박감**

가. 양육과 자립의 갈등 : 취업하기엔 너무 어린 자녀

미혼양육모들은 공동생활가정에 기거하면서 양육과 자립에의 갈등으로 항상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있는 동안은 어

편 미혼양육모이건 자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물론 미혼양육모가 양육을 선택하였을 시점부터 자립을 각오하고 출발했겠지만 특히 공동생활가정을 통하여 보호 받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는 미혼양육모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동생활거주 미혼양육모를 시설 수급권자로 지정해 주고, 시설수급권자가 되면 영아의 양육은 영유아보육법<sup>31)</sup>에 의하여 보육 지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공동생활가정의 설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미혼양육모들이 자립 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둔다. 이에 미혼 양육모들은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직업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에 거주 하는 미혼양육모들은 애착이 중요한 시기인 관계로 양육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사례는 미혼 양육모들의 양육과 자립에의 갈등을 나타낸 사례들이다.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습들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자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미혼양육모들의 심리 상태이다

내가 지금 가장 느끼고 싶은 건 아침에 일어나 s를 어린이집에 맡기며 학원을 다니거나 돈을 벌고 퇴근하는 길에 학원 끝난 후 s를 찾아오는 것이다. 너무 사소한 거지만 어쩔 이런 것이 행복일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직 너무 어려서 옆에서 내가 있어주어야 하는 딸래미...그래도 우리의 래를 위해서 엄마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2008/11/27, 참여자 1, 저널)

눈물이 날 듯 말듯.....울기 싫어서 입술을 꼭 깨물고 참아보고 참아보

31)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함

고, 한숨 쉬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잠깐이나마 울고 왔다. 답답하다. 여태껏 잘 참아 온 것이 이젠, 버틸 데로 버텼나보다. 힘들다 이제는..... 오늘따라 유난히 추운 것 같기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일자리 있나 한번 보고, w 10시까지 맡기고 투잡할까? 이것저것 걸리는게 많다보니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되는거 같다. 어찌됐든 결정을 해야 내가 무엇이든 하는데 왜 이리 w가 걸리지? 미안함 때문인가...

(2008/12/06, 참여자 5, 저널)

공동생활가정과 미혼모의 집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직업 훈련을 잘 받아 직장을 다니게 되었지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대부분 늦게 마치는 거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는 밤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 주는 보육시설이 없어요. 7시면 모두 퇴근하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직장을 마음놓고 다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정거장이나 떨어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일을 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돈을 모아야 자립할 수 있는데 아이 때문에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불편해요.

(2008/06/23, 참여자 2, 개인 면담)

이처럼 미혼양육모는 자녀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고 다니며, 양육에 신경 안 쓰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요구 하는 등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들로 나타난 것에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있을 동안 최대한 빠른 자립을 위하여 서두르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립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생각만 자립이지 마음은 영아에게 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즉 양육을 우선으로 여기는 미혼양육모들의 심리를 나타낸 사례들이다.

큰일났어요. h가 나를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해요~ 어린이집에 잠시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울어서 선생님이 이런 아이 처음 봤대요~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안먹고 계속 울어서 결국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왜 이럴까요? 내가 잠 시만 없어도 울어요. 잘 놀다가도 울어요. 나도 h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어요~걱정되어서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옆에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 어린 것이 엄마 떨어져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구요(중략). h가 어린이집에 아직 적응을 못 해서 어린이 집에서도 감당을 못 하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조리사 과정 듣게 하고 돈 벌러 나가 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해요. 내 마음은 울면서 떼를 쓰는 h 생각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말예요~~

(2009/03/29, 참여자 3, 개인면담)

착잡해. 고민이 하나 더 늘어났다.....진짜 싫은데....우리 y 놀이방 보내는 거...생각조차 안 하는 건데.....아.....머리 아프다.....내가 등만 보여도 우는데.. 거실 나오면 방문까지 쫓아 나오는데.....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녀석을.....어떻게 떼어 놔. 딴 사람 손에.....아.....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을 해야 되나.....? 휴~~ 옆에선 뭐가 그리 좋다고 소리 지르고 웃는지..

(2009/06/20, 참여자 7, 저널)

결국엔 또 다시 휴학계를 내던져야 해서 학교로 갔다. 올해에는 어떻게든 졸업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현실은..쉽지가 않다..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지 정말 가슴속이 답답하고 미치겠다. 늘 웃고 있긴 하지만 머릿속은 언제나 복잡하고 답답한 걸(중략).....

복잡해...에휴...대학 졸업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드는지 모르겠다. 정말 남들 4년제 대학 다니는 시간이 드는 나에겐 그래도 휴학해야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딸래미..더이상 뭐 딸래미 나랑 마주해야할 시간을 적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저녁에 내가 누워있으면 내 배위에 머리를 기대고 눕는 딸래미...

(2009/08/31, 참여자 1, 저널)

미혼양육모의 자립에 대한 고민은, 고민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닌 그저 한번 해보는 고민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미혼모자 관련 보호시설에서 보호 받으며 생활 할 수 있는 최대의 기간이 5년이다<sup>32)</sup>. 5년 동안 시설에 있으면서 시설 수급자가 된다. 수급자가 되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sup>33)</sup>

이와 같은 이유로 시설에 있는 미혼양육모가 자립하여 보호받고 있는 기간 동안은 불가능한 일로 인식하고 있기에 양육에 비중을 두며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목소리가 날로 커져간다.....놀아주지도 못 하면서.....잘 놀아주지도 못 하면서.....하루 중 함께하는 시간이 자는 시간 빼고 별로 없는데..... 혼만 내는 나.....갑자기 이런 생각들이 날 우울하게 하네.....딸래미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갑자기 짜증 나면서도 해 주고 싶은 것도 많은데.....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내 자신에게 짜증이 난다.....

(2009/03/28 , 참여자 5, 저널)

이상 살펴본 사례들은 양육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미혼 양육모들의 심리이다. 앞으로 당연히 자립을 하게 될 것이고, 자립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직장 생활은 이어질 텐데 애착이 형성되는 영아기만이라도 자립을 보류하고 영아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립을 원하

32) 한부모가족지원법: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1년, 연장 1년), 모자원(3년)으로 최대 5년이지만 전국의 시설수는 대상자에 비하여 월등히 적다.

33) 4대보험 가입 직장에 근무 못함. 월 소득 금액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대략 50만원 미만일 경우 허용

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이 부담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나. 획일화된 자립교육에 대한 불만

미혼 양육모에게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교육의 의미는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의 획득이지만 입소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립을 위한 교육적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 해 준다. 표 16은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이다.

<표 16 >공동생활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현황

구 분	A 시설	B시설	C시설	D시설
자립지원 교육	원하는 자립교육 -조리사 -피부미용사	원하는 자립교육 -간호조무사 -조리사 -네일아트사	원하는 자립교육 -피부미용사 -조리사 -간호조무사	없음
자립위한 양육지원	-부모교육:간헐적 -양육지원: 없음 -보육시설연계	-자 체(종사자)대리 보육지원 -보육시설연계	-소아병원 진료 -양육개별상담 -부모교육 : 비정기적 -보육시설연계	없음
자기개발 교육	자율적 검정고시	자율적 검정고시	자율적 검정고시	없음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의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현황을 표 16 을 통해서 살펴보면 D시설을 제외한 3 시설 모두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미혼양육모가 원하는 자립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것이었으며 종류는 대체적으로 조리사, 피부 미용사, 간호 조무사 등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직업에 속하였다. 또한 자립을 위한 직접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단절 된 학력을 연결시켜 자존감을 높여 줄 수 있는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자립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미혼양육모들의 영아는 보육시설과 연계하여 보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개인의 판단과 자율적인 선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교육은 미혼양육모들에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 받아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 주위 미혼모들도 직업교육 받아서 자격증 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업으로 가는 것은 거처가 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도, 직업교육을 받았던 직업으로 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다. 아는 사람이 보석세공에 관해서 교육 받고 자격증도 취득했으나 거처 문제로 이사를 하여야했고 그곳에는 보석세공에 관해서 사람을 구하는 직장이 없었다. 결국엔 다른 쪽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배워 놓거야 언젠가는 살면서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살아가는 데는 그닥 와 닿지 않는다.

(2009/ 06/11, 참여자 2, 집단면담)

난 배우고 싶은 것이 간호조무사가 아니란 말예요. 그리고 조리도 취미없어요. 그런데 원하지도 않는 조리사 과정 듣게하고 돈벌러 나가지 않는다고 잔소리 들었거든요. n엄마만 봐도 그래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요. 교육 받으면서 직장 다녀야 하니까 더 그런거예요. 나는 간호조무사, 조리사 이런거 말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있음 즐겁게 배울 거예요. 애랑 둘이 살아야 되는데 대충 배워서 써 먹지도 못 할 거 배우는 건 싫어요.

(2009/05/21, 참여자 3, 개인면담)

위의 사례는 직업교육을 공동생활가정에서 연결 해 준 것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받았지만 회귀 직종이라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는 아직 자립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참여

자 3과의 면담에서도 나타난다. 참여자 3은 간호조무사나 조리사과정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적성에도 맞지 않고 배우고 나서 활용도 못 할 것 같은데 굳이 배우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혼양육모를 위한 자립교육은 주로 공동생활가정 위주로 되어있어서 종사자가 추천해 주는 직업교육은 적성에도 맞지 않고, 배우고 싶은 동기도 느껴지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으며, 원하는 직업교육이 아니면 공동생활가정에서 종용을 하더라도 안 배우겠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다음의 사례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연결 해준 자립 교육이 아니고 미혼양육모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며칠 동안 인턴 체험을 한 경우이다.

마지막날.....명랑운동회를 하며 정말 잘 놀 던 학생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웃었던.....명랑운동회 끝나고 퇴소식 후.....아이들은 가 버렸다..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고 보람이있던 일. 돈보다 경험이 더 좋았던 일 또하고 싶다....정말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을 끌게 한다.....보은에서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과 함께 서울로 와서 저녁을 사 먹고 헤어졌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경험이었던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아닌 내 직장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란다..

(2009/03/26, 참여자 1, 저널)

살펴본 것처럼 참여자 1은 본인이 흥미 있어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로 체험하였고 즐거운 경험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 참여자 1은 ‘정말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을 끌게 한다.....내 직장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란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 분야의 일을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립교육을 형식적, 획일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과는 상반되며 이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자립교육

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미혼양육모의 자립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에서의 교육의 형태와 미혼양육모에게서의 자립교육의 의미를 살펴 본 결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교육은 주로 공동생활가정과 연계되어 있는 직업 프로그램이며 피부미용, 조리사,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이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미혼양육모의 자발적 의지에 우선을 두고 있어 원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양육모에게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자립교육에 대한 의미는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의 획득인데 교육의 종류와 내용이 수요자의 욕구에 맞지 않는 것은 미혼양육모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교육 형태에 비추어봤을 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들의 자립 교육은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립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라는 것이 미혼양육모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불안한 거처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에 따르는 심리적 어려움을 살펴 본 결과 거처문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은 영아와 엄마가 입소해서 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sup>34)</sup>이며 교육을 받고 있던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6개월씩 2회 정도 연장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에서 미혼양육모의 거처에 대한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

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의 입소 기간이 2010년 1월 부터 2년으로 개정되었으며 연장 가능한 기간은 1년이었으나, 연구자가 연구한 기간중에는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었고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장가능하였음을 밝혀둔다(한부모가족 지원법, 2010).

전입신고를 하였다. 참 그동안 있던 등본들을 보니 주소들이. 몇 번이나 이사를 하였는가 모르겠다. 나도 어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옮겨다녀서야 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사할 때마다 드는 이사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고..정말 미칠 노릇이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집이 지금 이사한 곳이지만 그나마 마음이 가장 편한 곳은 이 곳이다...벌레만 없으면 솔직히 이 집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벌레들이 날 힘들게 하나 모르겠다 그나저나 너무 더워 죽겠네..에휴..

(2009/01/06, 참여자 1, 저널)

참여자 1을 통해 거처에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살펴 본 결과 참여자1은 거처를 자주 옮기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사할 때 힘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정착을 위한 국가에서 한부모가정에게 지원 해 줄 수 있는 주거 정책에 대한 미혼양육모의 생각이다.

전세임대 지원 해주는데 미혼모가 들어가기에는 바늘구멍이에요. 주택이 지급되지가 않아요 점수가 20인데 저는 1점밖에 안 되요. 미혼모라는 점 하나.....그 지역 주인이어야 하고, 지방세를 냈었던 적이 있어야하고, 그니까 우리하고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어요. 임대아파트 신청 해 놓고 4년, 십년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다시 애를 버리게 되고, 애를 키우다가 앞길이 막막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2008/11/2참여자 2, 개인 면담)

참여자 2는 영아와 함께 살 거처 문제에 대하여 영구 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인데 미혼양육모는 영구 임대 주택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미혼양육모는 한부모 가정이긴 하여도 가족 수가 작아서 점수도 낮고, 지방세를 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미혼양육모들은 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시설 수급권자로 생활하였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거처가 계속 불안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자녀를 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양육모 관련 정책은 한부모가족지원 법에 근거해서 시행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 중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우선 공급하는(한부모가족지원법, 2009) 것으로 명시 되어 있다.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미혼양육모에게도 영구임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된다. 하지만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격에 대한 포인트와 이로 인한 임대 주택을 선정할 경우 이러한 방식은 미혼양육모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해 준다.

대기자가 많아서 저도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저 말고도 많이 있어서 저도 모르겠지만 나가야될 거 같아요. 공동 생활 가정에 있으니까 속속들이 보이고 속 편하게 거지 같은데라도 혼자 마음 편하게 일 년 되니까 2년 있을 수 있어도 끝까지 있고 싶지도 않고, 수급자 보장만 있음 나가고 싶어요. 주택하고 직장만 있음 나가고 싶어요. 저희들은 이제는 애기들 지나고 보니까 대충 애 키우는 것도 알게 되가지고 기술이 늘면서 두려움이 좀 줄어들어서 자립이 우선인거 같아요 주택이나, 경제적 지원 같은거.... 내 집이란 생각 안 드니까 꿈이라는게 있으니까 굳이 뭐하고...위축되고...

2009/ 07/ 25, 참여자 6, 개인면담)

또한 참여자 6의 거처 문제에 관한 관점은 공동생활 가정에서 있을 동안은 거처문제로부터 벗어 날 수 있지만 공동생활가정이 수요대비 많은 것도 아니고 거주한 지 1년 쯤 되니 양육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였으니 자립하여 주택문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입소 기간은 길고 짧은 것이 문제가 안 되고 퇴소해

서라도 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을 문제 삼았다. 이는 공동생활에서 여러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다보니 잦은 마찰과 아이 양육에 대한 갈등으로 지쳐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시설로만 치면 세 번째 인데 자리 옮겼을 때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화장실가려면 울고불고 난리치고.....여기서도 일주일간은 정서불안을  
느꼈지요~퇴소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자리를 옮겨서 애기들이 불안해한대  
요. ooo집, 이모집 일 주일...거기서 고시원 갔을 때도 열나고, 불안해했어요.

( 2009/09/ 06, 참여자 3, 개인면담)

한편 참여자 7은 위의 사례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거처 문제를 걱정하였다. 즉 정착이 안 되는 거처문제에 있어서 영아가 정서적으로 불안 해 할까 봐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이 세 번을 옮겨 다니면서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퇴소하여 다른 시설로 이사 간 미혼양육모에게서 이사 할 경우 영아의 정서 불안 증세 현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경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이로 인하여 참여자 7은 거처 문제와 영아의 정서 불안은 상호 연결되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미혼양육모가 영아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으로서의 거처 문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이 영아의 정서 불안, 기본 생활 보당, 임대아파트 공급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지금 당장입소 기간에 신경 안 쓰는 마음 편거처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 (3) 공동생활 가정 내 불편한 대인관계

가. 미혼양육모와 종사자와의 관계; 상호 억압적인 관계

공동생활가정은 복지시설의 한 형태로 규정상<sup>35)</sup>시설장을 포함하여 두 사람의 상근종사자가 상주하도록 되어있다. 24시간을 상주하는 종사자이기에 기거하고 있는 미혼양육모들과 근무와 생활 주기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긴밀하다. 이들의 관계에서 특히 시설장 및 종사자는 미혼양육모가 가정<sup>36)</sup>의 양육 지원과 자립지원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미혼양육모들이 저축, 가사 일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생활 자세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미혼양육모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자세부터 지녀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미혼양육모가 자립한 이후에 자녀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보다는 경제적 수입을 잘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생각은 미혼양육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현재의 생활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을 때 자립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초점을 맞추쳐 나가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맞추어서 아무 것도 진짜 돈 한 푼 없이 나갈 순 없잖아요. 다 돈인데.....기본적인 생활습관, 밖에 나가서 생활하기에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거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제일 잘 이루어져야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완벽하게 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2008/08/12, 시설장. 개인 면담)

한데 지금은 알면서도 소리 나오지 않고 입소자들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길 바라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시죠. 참다 참다 싸운 걸 모르시고 그 운영자의

35) 미혼양육모 5인, 자녀5인으로 정원 10인 시설의 상근 종사자 배치 규정

36) 미혼양육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함.

입장. 중립.....그래서 힘들다는 건 알지만, 우리들 싸우고 싶겠어요. 누구는 다 누리고 누구는 피해만 볼 수 없잖아요.

(2009/06/26, 참여자 6, 개인 면담 )

이러한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미혼양육모들에 대한 불신과 관리 감독자적인 인식은, 입소 기간동안 생활보호를 일방적으로 받아야 할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미혼 양육모들과의 상호 적대적 입장과 억압자적인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억압자적이란 미혼양육모가 자신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상황을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장이 나가래요.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마침 전부터 알아보던 자리가 생겼다고 해 나왔지요~(중략)그러게요. 그 곳은 원래 그래요. 지 멋대로예요 그곳에 있는 \*\*엄마도 나오고 싶어해요. xxx 자격 있다던 그 엄마 말예요. 그 엄마가요 A에 온 지 2달도 안 됐는데 자격증 있어서 재단이 노인 워 시설 하나 한다고 해서 취업할까싶어서 원장한테 아주 잘 했거든요~~ 밤해달라는 것도 묵묵히 해 주고 이것저것 잡 일도 도맡아서 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비 오는데 원장이 사우나에 있다면서 비 오는데 우산갖고 빨리 오라고 했대요. 사우나 있는 곳은 거리는 안 멀지만 그곳으로 가려면 마을 버스도 갈아타야 되고.....복잡한데.....아이는 어찌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지.....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원장이 태도가 돌변해서 눈치 보여 더 이상 못 있겠대요~~그래서 이곳에 자리 생기면 들어오려고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2009/04/11, 참여자 3, 개인 면담)

저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원장이 매일매일 잔소리해요~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유독 나한테만 그래요 내 말은 무시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 하게하고 ... 눈치 보여서 못 살겠어요. 나가라는 건가 봐요. 안 그래도 미움 받았는데 이젠 노골적

으로 잔소리를 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원장이 시켰던 것을 잘 안해  
줬거든요~ 밥 해 달라는 거.....원장은 자기 밥 해 주는 사람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전폭 지원해줘요. 예를 들면 부식비도 그렇고 이런저런  
후원 들어오면 우리는 안 줘도 먼저 챙겨주고 그래요. 그리고 애도 더 이  
뻘 해 주고요. 편애가 심한 거죠.

(2009/03/09, 참여자 3, 개인면담)

굉장히 서운했어요..그리고 외출 시간과 귀가 시간도 이젠 보고하래요.  
왜 국장님은 표정하나 안 바뀌고 화난 듯한 음성으로 우리한테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p 엄마 말만 듣나 봐요.

(2009/02/28, 집단면담)

나의 잠을 깨워 주질 말아요. 정말 좀 낫춰 주시징~~우리 s가 어젯밤에  
잠을 잤단 말예요. 기상 시간이면 어김없이 깨우니.....애를 키워봤어야  
알지요.

(2008/09/05, 참여자 1, 저널)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미혼 양육모들은 시설의 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아가며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들이 미혼양육모에게 억압자로  
비춰지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미혼양육모들의 태도도 억압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억압적 유형은 전통적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자극에 대한 재  
인 역치가 고양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데(Brown, 1961), 지각적, 투사적 그  
리고 학습 과제 등 다양한 과제에서 지속적인 위협인지로부터 회피하려는 유  
형으로 미혼양육모들이 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다.

나. 미혼양육모와 미혼양육모의 관계; 상호 불신적이며 공격적인 관계

미혼양육모와 미혼양육모들 사이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상호 공격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미혼양육모들이 생애사적으로 배경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고 있는 위치부터는 생활면에서 같은 처지이다. 이는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위치적인 공감대만 형성 될 뿐 공동생활하면서 오히려 이들의 관계는 상호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속 시끄러운 .....내가 조용하면 조용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더군. 같은 처지이면서.....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질려 버리겠다. 가까이 지내는 게 부담스럽다. 아무렇지 않게 무심히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따지고 드는지 모르겠다.

(2008/11/11, 참여자 1, 저널)

공동생활이란 게 참 어렵고 쉬운(?) 일이다. 제각기 상처를 안고 이곳에 입소를 했는데....물론 자신의 상처가 있는데 다른 이의 상처가 보일 리가 있냐만은 그래도 나보단 힘든 상황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이곳의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또한 나의 입지란.....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누가 가르쳐 줬으면 하는데.....

(2008/10/20, 참여자 5, 저널)

우리가 먼저 들어가긴 했지만.....p 엄마는 원래 안 들어오고 이름만 올려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방에 우리 물건들도 좀 넣어 놓았고, 빨래 널이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그 방 앞에다 두었는데 그것도 치우라고 하고 e네 방이 제일 크면서 우리보고 불만이 많다는 등.....모두들 같은 처지인데 사이좋게 서로 잘 보듬어 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p엄마가 너무 짜증나게 해요. h엄마한테까지 전화해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했대

그래서 언니가 (h엄마) e엄마한테 전화해서 잘 해주라고 했대요. 그래서 e엄마가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줬대요~이 언니 오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2009/02/ 02, 참여자 1, 개인 면담 )

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혼양육모들은 제각기 상처를 갖고 들어와 생활하지만 공동생활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소한 일들로 서로가 상처 되는 말들과 일들을 만들게 된다. 이는 부모기의 주요 과업이 상호 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이기에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Collins, 1999) 심리적 부담감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여진다. 아래의 사례 역시 부모의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나타난 갈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애기를 방에 놔두고요.....(h를) 모기장에 걸러가지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거예요. 문을 안 닫구요.....h가, 계단 앞으로 오는 것을 봤을 꺼 아니에요? 딱 굴러떨어질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오면요.....교양 있고 가식적인.....그런거 너무 싫어요.(중략)

큰 일 날 뻔한 것도 있지만요.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문을 딱 닫아 버리더라구요. 방문을요.....계단 내려 온 게 아니구요, 계단 유리문으로 굴러 떨어지기 직전이었다니깐요. m엄마는 사람들 앞에서요.....가식적인게 제일 싫어요.....왜 할 말이 없냐면요....사람이 너무너무 싫다구요....정이 떨어지구요....나가게 되면요. 저 혼자 안 나가요.....한명 붙잡고 나갈 꺼예요.

(2009/06/24, 참여자 3, 개인 심층면담)

낮에 m이 자는데 h가 안 잔다고 업고 거실 나와 떠들고 방문 광광 닫고 h가 자면 문 살살.....담배 냄새 신경 쓰인다. 머리카락 천지고 냄새 단점은 당연히 말하며 내가 진지하게 말하면 입 삐죽거리거나 하고.....

(2009/06/29, 참여자 6, 일기)

늦게 올라와 저도 시끄럽게 하여 문 열고 일보더니 방 문 닫아 e 놀라  
울었다. 어느 정도의 신경도 안 써 준다. 자기 얘기였어 봐. 지애기 자고  
있어 봐.....성질 난다. 벌써 몇 번째인지. 본인이 그리 넓게 거실쓰고  
다 열어두고, 볼 일 볼 땐 남이 그 시끄러움을 어찌견디는지 모르든 듯함  
자기 자식 밖에 없다.

(2009/07/02, 참여자 2, 저널)

계단에서 h가 떨어질 뻔한 사건, 흡연, 늦은 밤 소음, 화장실 사용 소리 등  
은 위의 사례에서 미혼양육모가 불만으로 느끼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요인들  
은 영아의 수면 방해와 건강을 위협하는 공기, 불안정한 시설로 비롯된 추락  
직전의 상황들에서 일어났으며 이는 불만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불어 참여자3의 경우처럼 퇴소할 때 절대 혼자 나가지 않겠다는 증오심까지  
만들어 상호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생활 거주 구성원들의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불신감과 갈등이 발  
생하여 공격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사례는 자녀 때문이 아니고 규정  
때문도 아닌 기질과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한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  
유가 드러난 경우이다.

주말마다 외출하려는 거 같아요. 처음엔 봐줬는데 이제는 저 j는 못 봐줘요.  
그리고 나는 j엄마한테 애 맡길 때 돈을 주고 맡겼어요. 나도 j 봐 준다면  
나도 돈 받을 거예요. 안 봐 줄거지만...암튼 둘이는 같이 못 봐요.

(2009/07/15, 참여자 1, 개인 면담)

완전히 적응도 덜 되었는데 민아 언니 들어오고 와 가지고 민아 언니가 공

격적이잖아요 그게 좀 넓으나 좁으나 차이인데 강하고 해서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 막 그래서 좀 혼돈스러웠어요. 겨우 적응 해 나가는데 늦게 온 사람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정신과 상담까지 받게 되었어요. 치료기간이 10주인데 4주 받고 말았어요. 그만큼 적응하는데 힘들었어요. 그 전에는 워낙 느린데다가 뭐 어찌구 저찌구 자기방식은 옳고 내거는 틀리고 하니까 뭔가 기저귀 갈고 씻기기도 했는데 반쯤 넋이 나갔었지요.

(2009/06/03, 참여자 6, 개인면담)

이처럼 공동생활가정에서 미혼양육모들의 사이에서는 상호 불신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양육모들의 고유의 기질과 성격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자녀의 욕구 충족에 대한 갈등, 공동생활에서 지키거나 해야 할 규정들의 불이행 등에서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원가족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혼란스러움

공동생활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의 영아양육을 위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 지원을 기대하지만 기대와는 어긋나서 미혼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특히 미혼부와의 관계보다 원가족과의 관계형성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미혼부와의 관계 형성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결국 나도 다른 여자와 같은 여자인걸....너도 아니라고 하지? 하지만 너도 결국 다른 남자와 같은 남자인걸,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라 결국엔 다 똑같으니깐..

(2008/10/31. 참여자 1, 저널)

이제 정말 지치고 지친다. 고놈의 끼..... 아. 진짜 짜증나..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이러고 살다가는 평생 노이로제 걸리겠다.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내가 그랬음 이해 못 했을 행동들...뻔뻔함... 정말 질린다.....

(2009/04/15, 참여자2, 저널)

살펴본 결과 참여자 1과 참여자 2는 자녀의 미혼부에 대한 감정이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떠난 친부였기에 이별 당시 정서 상태와 자녀를 출산하고 난 이후에도 한결 같음을 나타내주어 미혼부에 대한 애정 철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픈 심리가 내재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혼부에게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례는 미혼부와의 관계가 과거야 어찌 되었건 현재는 미혼부를 위의 사례처럼 매우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날이 애 아빠 할아버지 제삿날이어서...우리 자식 보고싶다고 하긴했어요 그 말 듣고 이빠보이더라구요 희망이 생기더라구요..그때부터 이빠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은 이빠죽겠어요. 복수의 덩어리로 쓰고..

(2009/06/02. 참여자 3 개인면담)

그래 니네 아빠는 단재 신채호선생의 조선상고사 읽을 정도로 멋진놈이었다. 학교 들어 갈 때쯤 아빠 없다고 놀림 받을까 걱정. 물론 지금은 m 아빠랑도 연락 되지만 어찌 될 지 모르고...

(2009/06/07. 참여자 6 저널)

참여자 3은 제삿날이어서 자녀를 보고싶다는 친부의 말에 희망이 생겼고

나아가 친부를 이빠하는 마음까지 생겼다고 하여 마음을 많이 개방한 것처럼 볼 수 있다. 하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서 복수의 덩어리로 쓴다 라는 말은 참여자 3의 아이 아빠로는 아직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의미이다. 이 부분에서 참여자3이 말한 복수의 의미는 임신부인 자신을 철저히 버렸으며 홀로 출산의 고통을 안겨 준 것을 절대 잊을 수 없으니 그에 대한 고통을 복수로 돌려주는데 영아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지를 두고 봐서 화해를 하겠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혼부의 잦은 거짓말과 잦은 여성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가운데 임신이 되었기에 미혼부의 현재의 행동으로는 자녀의 아빠라는 관계를 형성시키기에는 위험요소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6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혼부와는 애증적인 관계이지만 매우 중요하거나 관계형성을 거부하는 관계는 아니다. 다만 임신과 출산 때 친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이 현재까지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자녀와의 관계 형성은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혼양육모의 원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혼부와는 관계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2009/02/05, 참여자 1, 저널)

참여자 1과 통화했다 1월말부터 2월 초까지..며칠 기분이 다운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친정 엄마와 다툼 일이고, 한 가지는 대학 복학이 어려워졌고 부담스럽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구정 때 고향에 내려가 엄마와 대화 중 학교 다닐 거면 힘들겠다고 s가 엄마게 말했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s 친정 어머니께서 s를 낳은 거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질타를 하더라는 점. 그래서 전반적인 일로 번져 심하게 다투고 왔다고 함.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함. 갑자기 취업을 하겠으니 연구자에게 일자리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미니홈피를 방문해 본 결과 일기 내용도 혼자만 알아먹을 수 있게 전보식으로 짧막한 한

줄...그것도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고 통화결과 엄마와 학교 문제인 것을 알았음.

(2009/02/05, 참여자 1과 저널에 내용에 대한 상담한 내용 연구자 저널)

참여자 1은 친정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보호 시설에 들어가 자녀를 낳았다. 아이를 낳고 나서 용서해 줄 줄 알았던 친정엄마는 미혼모보호 시설까지 찾아와 아이를 입양시키려하였고 이를 안 참여자 1은 친정엄마와 관계가 잠시 단절되어 지금까지 용서를 해 주지 않고 있고, 명절 때 친정으로 가긴해도 자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친정과 그 주변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여자 1은 친정 내려갈 때마다 아기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혼자 갔다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저널에서 참여자 1은 친정 어머니에게 가서 복학 이야기했다가 자녀를 낳은 시점부터 다시 돌아가 질타를 받고 자립하기 위하여 모질게 마음 먹은 것을 저널에다 기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원가족에게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를 기대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하여 원망감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사례 역시 부모와의 갈등이 깊은 것을 보여주며 주로 갈등의 주요인은 경제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 가끔 명절이나 내려가면 많이 부딪치고요. 엄마랑 부딪치는 것은 애 때문에 빌미가 되어서 제가 수급비타서 준 거도 있구 e대게 어려워요 내려가면 육아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돼요 . 집이 여유가 되어서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또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니까 스트레스고 어차피 독립할거면 미리 독립하는 게 나을 거 같고.....

(2009/07/20, 참여자 6 개인 면담)

참여자 6의 원가족, 즉 친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공동생활가정에서 수급비로 받은 것을 다시 친정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참여자 6은 자녀의 존재에 대한 거부는 없어서 이런 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지만 원가족은 참여자 6에게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참여자 6이 부양해야 할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기에 이런 부분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살펴 본 결과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을 위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친부와는 애증적, 관계 형성 보류지만 잠시라도 희망이 있는 관계로 나타났고, 친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아직까지도 자녀의 존재를 인정 못 받고 거부 당하며 원망하는 관계로 형성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가족에게로부터 경제적 원조나 사회적인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혼양육모는 영아를 위하여 원가족과의 관계를 어떠한 형태로든 맺고 싶긴 하지만 과거에 얽매어, 혹은 미래가 암울하여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적응과정과 미혼양육모들이 영아를 양육하는 환경은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발견한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 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적응하는 과정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동안 입소초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겪으며, 이후 적응되면서 친밀감과 탐색의 시기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차 공동생활가정에 적응하면서 미혼양육모간 불안감과 경계심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고, 퇴소준비기에는 대체로 우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미혼양육모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퇴소하는 기간까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인 정서상태의 변화는 기대감, 친밀감, 불안감, 우울함이었으며, 같은 시기에 영아는 두려움과 안정감, 경계심, 무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양육모가 겪는 양육과정에서의 두려움 및 불안감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영아의 부정적인 정서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아의 민감성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하고, 우울하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며, 이런 환

경에서 자란 자녀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불안, 우울 및 부적응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 결과(문경주, 오경자, 2002, 문영경, 민현숙, 2008, 정미경, 김영희, 2003, 최정미, 우희정, 2004, Crick & Booth, 1991)와 같은 맥락으로 미혼 양육모의 정서 상태가 영아의 발달과 학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부모나 다른 환경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아동의 욕구를 좌절시키면 후에 경계선 성격장애와 같은 만성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성격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Kernberg, 1986)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미혼양육모의 부정적인 정서변화에 따른 영아의 정서 변화는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즉 영아의 정상적인 발달욕구가 좌절 되고, 주변 환경 및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행동이 나타나지 않고,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생활이 지속된다면 향후 영아의 정서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언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영아의 어휘수가 증가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다(이형민, 2008, Bus, Leseman, & Keultes, 2000; De Jong & Leseman, 2001)는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미혼양육모의 낮은 민감성은 향후 영아의 어휘와 의사소통능력발달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심각성이 제기된다.

한편 미혼양육모의 불안정적인 심리 변화는 영아의 놀이형태를 소극적인 양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양육모가 퇴소기로 접어들수록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불신감의 증가와 우울한 행동특성은 영아를 주변 성인들로부터 거부 및 소외당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공동생활가정에 적응하면서 구성원들간 상호 불신적인 관계가 형성 되어 공격적인 시기가 되면 영아들 스스로가 미혼 양육모들의 눈치를 보고 탐색활동을 중단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공동공간의 출입은 물론이고 미혼양육모자의 개인 공간에서 격리되어 생활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즉 미혼양육모들간의 불신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는 영아들의 활동장소가 방 한 칸으로 축소되고, 물끄러미 외부세

계를 향해 응시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는 초기의 물리적인 낯선 환경과, 중반기 이후의 인적인 환경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질의 성향 중에서 불쾌한 기분이 많은 영아가 놀이에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놀이를 지켜본다고 하는 김민정(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공동생활가정에 기거하는 미혼양육모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갈등과 이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 정서 상태는 영아에 대한 방관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영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결정적 시기로서의 영아기에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영아들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 양육환경 및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혼양육모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지원하며, 영아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공동 생활가정에서의 영아 양육 환경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들의 양육환경은 특징적인 양상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생활가정 생활 미혼양육모들의 영아 양육에서 긍정적인 환경요인으로는 다양한 지원과 생활할 거주 공간의 확보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들에게 안정적인 양육의 장기화를 위해서 영아의 연령과 발달에 따른 심리적, 물리적 지원과 함께 단계적 양육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미혼양육모들의 자녀양육과정에서 미혼양육모들이 영아를 양육하면서 얻는 긍정적 심리적 자원은 성장하는 영아와의 결속감과

영아를 양육하면서 받는 다양한 지원으로 모성양육의지가 더욱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와 함께 거주할 공간이 확보됨으로 이들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양육자들의 일반적인 특징과 자녀양육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박숙희, 2001)에서 미혼양육자들은 자녀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양육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생의 희망을 가진다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도(김혜선, 김은하, 2006)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혼 양육자에게 출산 후 입양이 아닌 자녀양육을 결정하게 하고, 양육을 결정하였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혼양육자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는 미혼양육자들은 어려운 양육을 선택하였지만 성장해가는 영아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결속감으로 든든한 가족애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긍정적인 정서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녀 양육 결정 후 미혼모들이 느끼는 심리정서적 변화를 양육미혼모와 비양육미혼모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양육을 결정한 양육미혼모들이 후회스럽기보다는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나 일단 결정한 일이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김혜영, 선보영(2010), 강은화(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황주미(2009)의 1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에서 기쁨과 불안함의 공존, 신비감, 경이로움 등 긍정적인 정서로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영아의 출생으로 인하여 가족이 완성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을 실감하고 어머니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

다는 연구(손승아, 2000, 이자형, 1996)와도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비록 연구대상이 미혼양육모는 아니지만, 영아를 키우며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혼양육모들에게 영아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 기반이 되는 심리적 자원을 지속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미혼양육모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물리적, 심리적 자원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기능이 약하고 이주과도기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아의 운동과 인지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은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 시키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영아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사적인 영역을 보호받고,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을 촉진 시켜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개인생활공간과 공동생활공간의 경계가 모호하여 영아의 수면이 방해받고, 미혼양육모와 영아의 일상생활 행위들 간 잦은 마찰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 공간은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는 이주과도기적인 형태로 나타나 공동생활가정 내의 공간 구성에서 이 시기 영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구성 및 배려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생활가정이 전반적으로 복잡하고 분주한 곳으로, 영아가 거주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되지 못함으로써 영아의 기본적인 발달권<sup>37)</sup>이 저해 되고 있다고 해석할

---

37) 아동권리협약에 실린 4가지 권리 중 하나. 어린이들이 그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재인용 2002)

수 있다. 영아기의 물리적 환경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주변세계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가장 사적인 개인 생활 공간의 예만 보더라도 어머니의 일상생활용품과 영아생활용품이 뒤섞여 있고, 방 마다 펼쳐져 있는 똑같은 색상의 요와 이불은 수유공간이자 유희공간이며, 수면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영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주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아의 장난감 및 도서 등은 서랍이나 장롱, 박스 안에 있는 등 대부분 영아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절한 물리적 환경이 제공 되어질 때 영아가 더 많은 탐색활동을 하고 영아의 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권세경, 이순영, 2005; 유연화 외, 2004; 이세희, 2006)에서 볼 때 이를 수정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가 영아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제공하고 집 안의 물건에 이름표를 붙이는 등과 같이 환경적인 언어 자극을 다양하게 제시할수록 영아의 어휘력이 발달한다는 연구(Wachs & Chan, 1986)와 어머니가 주변의 물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자극을 제공하며 외부 환경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수록 영아의 언어능력 및 어휘력이 증가한다는 연구(이형민, 2008) 등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그러나 영아기 성장과정에서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은 보육기관의 형태보다는 발달적 적합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미혼양육모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아양육을 선택했고 이로 인하여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및 앞으로 생활해야할 자립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양육모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미혼양육모 뿐만 아니라 인간성장발달과정에서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아에 대한

배려에 대하여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에서 일정기간 살아가는 영아를 위하여 그들이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환경조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영아용품의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성인중심의 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아를 위한 양육환경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위한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서 미혼양육모를 비롯하여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적절한 지식 및 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이유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식 공급의 전달 체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식품 재료가 부족하다든가, 영아들이 이유식 용기가 모두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는 점, 화장실 세면대가 우유병의 세척대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 전염병에 걸린 영아가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혼양육모가 영아 발달이나 건강 안전에 관한 지식 등 양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 초기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4개월 영아를 자녀로 둔 중산층 영아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지식의 정도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중 50%이상의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자녀양육지식 정도가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이는 사회계층적 배경과 무관하게 초보 엄마는 양육환경과 양육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미혼양육모의 불충분한 양육 지식은 영아에게 불안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동생활 가정의 상근 종사자들이 적절한 양육지식을 갖고 긍정적 양육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미혼양육모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미혼양육모들의 영아에 대한 양육지식의 부족이나 이로 인하여 부적절한 육아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근 종사자들도 이를 수정해 주거나 올바른 양육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공동생활 가정의 한 영아가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격리 조치를 하거나 소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다른 영아에게 전염되고 심각해지자 입원을 시켰던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하여 사후 처방적으로 대처하는 방식들은 영아의 건강이나 안전 등 기본적인 양육지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양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미혼양육모들을 위한 적절한 양육 지식과 기술을 알려주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미혼양육모를 위한 환경적 지원과 보다 전문화된 보육 환경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영아의 건강 지도와 관리, 시설 설비의 청결한 관리, 식습관 지도, 식재료의 위생적 관리 및 사용,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를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기거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배치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는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립에 대한 압박감과 거처 문제로 인한 불안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혼양육모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자립교육과 영

아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거처의 보장이 요구 된다.

공동생활가정에서 기거하는 미혼양육모들은 양육과 자립에의 갈등으로 주저함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립교육은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단편적인 자립교육이 많아 실질적인 자립지원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혼양육모들은 영아기의 애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시설에 있는 동안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나오므로 경제적 이유만으로 영아의 양육을 포기 할 수는 없다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자립에 대한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아 형식적인 고민거리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자 하여도 창업 , 야간 근무해야하는 업종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한 것이 아니며 간혹 영아를 양육하며 근무 조건이 맞는 곳으로 취업을 하려해도 미혼모라는 이유로 무산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김혜영, 선보영(201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즉 미혼모가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정도에서 양육미혼모가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때는 ‘취업할 때’ 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양육할 때 경험하는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아기 양육비 등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하여 취업할 때 양육모라는 불리한 입장으로 인해 자립에의 길이 멀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지원과는 별개로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의 필요성이 제기(김혜영, 선보영, 2010) 되어 이를 지지해 주고 있다. 이는 미혼모들이 사회적 냉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게 하였고, 반대로 미혼모의 양육을 선택하면서 자립이 개인 과업으로 변화하였다는 김혜영, 안상수의(2009) 연구보고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

와 일맥상통한다.

지속적 자립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소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우선시 할 것인가, 경제적 자립 능력 배양을 우선시 할 것인가는 늘 따라다니던 미혼 양육모들의 심리적 기저였음을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양육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자립은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니다. 즉 보육에 대한 부담만 줄여주면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보육 이외에도 법적위치에서 오는 제한된 자립범위로는 퇴소 후 빠른 자립을 기대하기란 현재의 입소 기간 중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과 능력은 부모의 개인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며 양육부담은 사회구조적, 제도적 요인에 따라 완화되기도 한다는 유연규의(2009) 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두고 자립하기가 힘든 미혼양육모들에게는 영아기 양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한다. 더불어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립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자립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에 있어서 심리적 어려움으로 거처문제 역시 큰 스트레스로 나타나 영아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인다. 미혼 양육모들은 공동생활가정에 거주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지만 입소 해서 거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 관계로 퇴소 후의 다음 거처에 대하여 늘 불안 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소 기간의 문제를 떠나 갖은 거처의 이동으로 영아의 정서 불안과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공동생활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착된 생활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퇴소기의 미혼양육모의 거처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심각한 고민거리임이 나타났다. 이에 미혼양육모는 거처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영아의 발달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아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발달 한다. 그러나 퇴소시기가 다가오자 거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미혼양육모의 정서 심리 상태는 불안의 연속이었다. 부모의 불안은 영아를 주변 사물과 환경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다양한 감각과 조작을 경험 할 수 있는 범위를 통제 당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 및 인성 특성 또한 영아를 대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의 질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거처문제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는 자녀에게 방관자적인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므로, 주거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는 미혼부모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한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으며, 실제 한부모 가족의 주거 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들이 본 연구를 지지해 주며(김혜영 외, 2006, 김혜영, 선보영, 2010), 현재 미혼양육모의 주거 및 거처 문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안에서 다루고 있지만 관련법의 지원 범위 안에서는 다양한 제한으로 사면초가이다. 또한 공동생활 가정의 입소 기간도 원칙상 1년<sup>38)</sup>이기에(보건복지가족부, 2009) 두려움으로 시작해 불안으로 이 시기를 대부분 보내게 되는데 임선희(2008)의 시설입소 미혼 양육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 지지에서 주거 불안정에 대한 불안한 심리 양상이 높게 드러나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혼양육모의 이러한 고충은 부정적인 태도와 인성 특성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Belsky & Vondra, 1993; Bettes, 1988)의 의미를 깊이 고려하여 영아의 생존 권리<sup>39)</sup>을 보장 해주는 차원에서라도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입소기간은 최소한 0세에서

---

38) 본 연구가 진행되는 2009년12월까지의 1년 거주 할 수 있었지만 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부터는 2년 이내로 개정됨(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시행령.2010)

39) 아동권리협약 실린 4가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 어린이들의 삶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을 다루고 있다. 적절한 생활수준, 주거, 영양, 보건 등의 권리이다.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3세(만2세)까지인 영아기 전반을 연장기간과 무관하게 보장 받아야 할 것이며, 주거지원으로 한부모가족지원 법 내에서 특별 주거안정지원 대상으로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는 영아를 양육하면서 공동 생활 가정 내 종사자 및 동거하는 미혼양육모와 억압적, 공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과의 관계도 상호 갈등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혼양육모의 상호지지적인 사회 관계망의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미혼양육모와 종사자와의 갈등이 상호 억압적인 관계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결과는 미혼모의 심리정서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김지혜와 안재민(2004)은 미혼모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지지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정서적 지지이므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심리정서적인 면에 좀 더 의지하며, 사회복지사나 전문가와 관계형성을 맺고 있는 경우도 지지수준이 높지 않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비록 연구대상이 미혼모로 미혼 양육모는 아니었지만, 동일한 환경에서 미혼모가 양육을 결정하면서 미혼양육모로 전환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지지 수준은 지속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미혼양육모와 미혼양육모의 관계를 살펴본 것에 의하면 자녀의 양육을 선택하여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상호 공격적인 양상을 띄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는 제한 된 공간과 자원으로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이 되어야한다는(Collins, 1999) 심리적 부담감과 공동생활 공간의 공동 관리에 대한 역할에의 갈등에서 비롯

된 결과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구성원간 상호 지지적인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미혼양육모의 상호지지적인 사회 관계망의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혼양육모의 미혼부 및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상호 갈등적인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혼양육모가 출산을 결심하면서부터 친부와, 원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여 경제적 도움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지조차 낮아 영아가 가운데 있는 한 상호 밀접한 관계로 거리를 좁히는 데는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과 단절된 상황이라도 미혼양육모는 자녀 양육을 원하기에 특히 미혼부에 대한 지지는 높지 않아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정마리아(1997)의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을 다룬 연구에서 미혼모는 가족, 친구, 그리고 시설 관계자에게서 보통의지지 수준을 경험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혼부에게서 적은 지지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이복숙, 전영주(200)의 연구에서도 입양미혼모 5명과 미혼양육모 5명을 대상으로 한 생애사 연구에서 미혼모 발생배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성장가족(원가족)의 관계에서 심리적, 정서적 지지가 결핍되었고 가족의 응집력이 낮았으며 부모로부터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문화적 관계인 가족의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미혼양육모와 성장하는 영아를 위하여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혼양육모는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 종사자와, 미혼양육모와의 관계가 상호 억압적, 공격적인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원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갈등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와 영아를 위한 상호 지지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2.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 후 적응 과정에서 시기별로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감과 두려움의 탐색기에는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할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갖는 특징적 양상을 보여주었다. 미혼양육모와 영아 모두 환경에 점차 적응하면서 주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주변 탐색 행동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혼양육모간 불화감도 형성 되면서 상호 불신적, 공격적인 행동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영아들은 눈치 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인을 경계하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 준비기인 입소말기에 접어들면서 미혼양육모는 퇴소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피하며 우울해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은 영아에게 매우 제한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갖게 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양육환경은 시공간적으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들이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성장해 나가는 영아와의 결속감과 영아를 잘 키

왔다는 주변의 격려, 외부로부터 지원 받은 다양한 육아용품 및 후원 등으로 모성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와 생활 할 거주 공간의 확보로 얻는 안도감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미혼양육모가 공동생활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발견된 환경으로는 물리적 환경 구성에 있어서 보호기능이 약하고 이주과도기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영아의 운동과 인지발달을 촉진 시켜 줄 수 있는 영아용품 및 환경 구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양육모와 영아가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영아용품의 위생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낮았으며, 성인중심의 식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가 영아를 양육하면서 겪는 심리적 상태에서는 자립에 대한 압박감과 거처 문제로 인한 불안함이 있었으며, 공동생활 가정 내 종사자 및 동거하는 미혼양육모와 억압적이고 공격적인 관계를 맺고, 원가족과의 관계도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가 전혀 없는 상호 갈등이 악순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 및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지원을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내의 영아와 미혼양육모를 시설 내로 한정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미혼양육모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몇 군데의 시설을 대상으로 질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행하였는데 이는 전체 미혼 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의 특징으로 일반화 시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의의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미혼양육모의 영아 양육 과정을 영아의 성장과 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미혼 양육모의 양육 지원을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회복지학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 하여 정작 양육에서의 중심인 영아가 배제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미혼양육모의 양육지원은 영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미혼 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질적인 평가를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미혼양육모 복지는 대부분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미혼양육모공동생활가정의 운영규정에 관련된 사항중 미흡한 아동관련 규정을 확대하고,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어야함을 강조 한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미혼 양육모 공동생활가정을 성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여 시설 관련 법규나 운영방침 등이 성인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이는 복지 수혜 대상의 출발점을 양육을 선택한 미혼양육모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관점이라면 미혼양육모의 양육지원 관련 제도나 정책을 입안 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셋째, 미혼양육모의 영아기에 대한 발달적 지원은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 예산의 경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권고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영아관련 제반 복지적 과제는 발달 지향적인데 이를 지원하는 것은 좁게는 미혼양육모의 어려움을 경감시켜주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 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넓게는 국가적으로 사회편익 또한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을 예방적 의미에서 수행 될 경우 사 후 처방보다 훨씬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 밖인 재가 미혼 양육모로 확대하여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연구도 필요함을 제언 할 수 있다.

둘째,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의 영아의 발달적 과제라든가, 엄마와의 상호작용 등 영아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다.

셋째, 미혼양육모 공동생활가정 내 영아 지원 관련 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할 수 있다.

넷째, 미혼양육모의 양육 특성에 관련 된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제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미혼양육모의 양육 현황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미약하나마 미혼양육모의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었다. 하지만 미혼양육모들의 연령 및 학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양육 유형과 양육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보다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위하여서 미혼양육모의 양육 특성에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할 수 있다.

다섯째,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양육모가 증가 할 수 있도록 미혼양육모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 할 수 있다.

여섯째, 미혼양육모의 영아를 대상으로 발달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할 수 있다. 이는 미혼양육모의 양육환경 특성상 영아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영역별로 세분화 되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곱째, 현재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 현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 할 수 있다. 현재 시설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혼양육모들에 대한 정책으로 자녀 관련 가장 요구도가 높은 부분이 부모교육인데 이들에게 맞는 전문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미혼양육모에게 적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함을 제언 한다.

## 참 고 문 헌

- 강영실 (2002). 미혼양육모! 어떻게 도울까. 제 7회 서울시 여성복지 세미나, 서울시 여성 복지연합회.
- 강은화 (2005). 미혼모의 양육권 보장을 위한 논의 ; 입양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2(3), 39-59.
- 곽형식 외 (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 형설출판사.
- 고숙경 (2002).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수연 (200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권세경 외 (2005). 물리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영아의 탐색 및 놀이 행동과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육과학연구**. 36(1), 219-236
- 김귀덕 (2001). 미혼모복지대책에 관한 연구:미혼모발생요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문신, 김광웅 (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수용 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3-13.
- 김민정 (2004). 유아의 혼자 놀이와 기질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 (2007). 양육미혼모의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지, 조복희 (2000) 걸음마기 아동의 보육기관에서의 초기 적응. **생활과학논집**, 4(1), 1-43.
- 김성혜 (2008). 어머니의 배경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와의 상호작용.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정 (2008). “스웨덴의 일가족양립정책”. 일가족양립정책의 국가별 심층사례 연구한국여성개발원.
- 김수정, 광금주 (2009). 어머니의 무표정한 상황에서 6개월 영아 반응과 15개월경, 사회 정서적 행동간 관련성. **인간발달연구**, 16(2), 1-21.
- 김신정, 양순옥, 정금희 (2004).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의 실태. **아동간호학회지**. 10(4), 468-478
- 김정인 (2001).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유아의 감성조망수용능력과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 (2000). 유아의 발달심리. 서울: 창지사.
- 김지수 (2008). 만 1세 영아의 보육시설 초기 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숙 (2003).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식사행동과 교사의 급식지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 안재진 (2004)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 김연숙 (2009)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대한 실험연구 : 20~40개월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경 (2007). 미혼모의 출산,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순, 김은영 (2008).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하는가?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윤아, 이형하, 김혜선 (2008). 미혼양육모의 양육체험. **청소년복지연구** 10(1); pp.1-20.
- 김현진 (2002). 미혼모 시설의 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미 (1998). 유아의 기질에 따른 실외 놀이 형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수 (2002). 미혼모복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교. 석사.
- 김혜선, 김은하 (2006). 미혼양육모의 양육결정 체험 :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1) pp. 373-393.
- 김혜영, 안상수 (2009). 미혼부.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제52차 여성정책포럼;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자료집>.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2008). '미혼모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47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개선 방향
- 김혜영, 선보영 (2010). 양육미혼모의 삶과 자립지원 방안. <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영,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승미 (2002), 미혼모가 된 과정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현정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현조 (2002). 한국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대한민국정보 (2006). 제 1차 저출산 교령사회기본계획.
- 류방란 외 (2006). 한국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 분석-교육복지지표개발. 한국교육 개발원.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선화, 구차순, 박미정, 김현옥 (2009). **한국사회와 아동청소년복지**. 서울: 양서원
- 문영경, 민현숙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불안,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pp 165-171
- 문의승, 임애덕 (2006). 미혼모, 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논문집 26 집 393-422.
- 민은홍 (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원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경자 (2001) 1세 영아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대한 Q-sort 분석. 대한 가정학회지, 39(1), 137-147
- 박복순 (2008) 한부모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숙희 (2001). 미혼모의 아동양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박성연, 케네스루빈 (2008). 걸음마기 아동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09-124.
- 박성희 (2002). 미혼모 실태, 의식분석과 그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란 (2002). 한국 미혼양육모 복지의 발전방향<제7회 서울시 여성복지세미나 자료집> 서울시여성복지 연합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  
(2008). 한부모가족지원법  
(2009). 가족지원과 내부자료  
\_\_\_\_\_ (2009). [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변미희, 권지성, 안재진, 최운선 (2007).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1차 결과발표 세미나>, 서울: 한국입양홍보회.

- 서유현 (2002). 유치원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아 (2000). 첫 어머니 됨의 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손현숙 (2009) 예비보육교사의 영양지식과 식습관 및 유아 생활지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송정애, 정혜은 (2007). 가족복지론. 서울 : 양서원
- 심영란 (2002). 미혼모의 욕구와 복지적 서비스에 관한 연구:시설내의 미혼모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통일안보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현정 (2002). 영아의 새로운 환경의 적응 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양육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애란원 (1999). <애란원 소식> 봄호.
- 우현경, 홍용희 (1998). 걸음마기 유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과학연구, 27, 29-50
- 유범희 (1998).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ies)의 발전과정. **精神分析** : 第 9 號 1998J Korean psychoanalytic Study Group Vol. 9(1), 93~106.
- 유유박 (1980). 한국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유연규 (2009). 외국의 미혼모 양육 지원정책과 한국에 대한 함의<제52차 여성정책포럼;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연화 (2004). 영아보육일과에 나타난 질적 보육의 장애요인 분석. **경북대학**.

8. 307-330.

- 유혜령 (1998). 교수 매체 환경과 유아의 경험양식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자  
유선택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8(1), 131-151
- 윤미향 (2006). 취업모의 취학 전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 순천향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순임 (1995). **현대상담·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  
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 이경하, 임영신 (2006). 18-22개월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영아 교  
사의 역할. **한국영유아교육교육학회**, 10(1), 55-78.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 (2002). **유아교육개론**. 서울: 양서원.
- 이기숙 (2008). **유아교육과정**. 파주 : 교문사
- 이명선 (1996). 위암환자 가족들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7(2),275-287
- 이명희 (2007).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이미정 (2008). 미혼모를 외면하는 한국의 현실, 제47차 여성정책포럼 : 미혼  
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 (2010).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관련 통계, 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  
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미화 (2009).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2008-02.
- 이복숙, 전영주 (2005). 미혼모 생애사 연구<여성연구논집> 16: 1-32.
- 이성원 (2009) 미혼양육모의 부모 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순형 (2009).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서울 : 학지사.

- 이숙재 (2001).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 이숙희 (2001).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세희 (2006). 저소득층 가정환경과 영아의 언어발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시백 (2002). 미혼모의 복지개선방안 연구. 한국성문화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 이영석 (2006). 영아전담보육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숙 (2008). **가족복지론**. 서울 : 학지사
- 이은경 (2003).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놀이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자형 (1996). 초산모의 신생아 돌보기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 간호과학 1996;8(1):97-108.
- 이장호 (1995). **상담심리학**. 박영사.
- 이재정 (2003). 양육미혼모의 욕구에 대한 질적 분석과 사회복지실천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이종수 (2003). 미혼 양육모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지현 (1998). 유아의 기질 및 성에 따른 유아의 놀이 행동.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섭, 김상윤, 조선희, 추정선(2001). **아동발달심리**. 서울: 학지사
- 이현숙 (2008). 영아의 개인 특성과 기관의 환경 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 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09.

- 임선희 (2008). 시설입소 미혼 양육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사회적지지 실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애덕 (2005). 미혼모· 미혼양육모와 입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연구. 제주산업정보대학. 논문집 제26집. 393-422.
- 장영희, 김희진, 엄정애, 권정윤 (2007). 생애초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발달지원 프로그램개발 방향. 교육인적자원부. CR 2007-12.
- 정귀희 (2002). 미혼모 복지제도의 실태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 정마리아 (1997). 미혼모의 사회적 지지와 희망. 여성건강학회지, 6: 18-33
- 정미라, 배소연, 이영미 (2008).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서울 : 양서원
- 정미라 (2007).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보장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수탁 연구. CR 2007-2.
- 정미경, 김영희 (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정옥분. 정순화 (2008). **부모교육**. 서울 : 학지사.
- 정용순 (2002). 미혼 양육모에 대한 사회적응 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화순 (2008). 미혼모 지원정책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연구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혜경 (2008). 영아의 또래 간 갈등에 대한 교사 개입, **한국영유아보육학**, 53, 29-49.
- 존.가트맨 (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서울 : 한국경제신문
- 주숙남 (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00). 『인구주택 총조사』 .
- 통계청 (2008). [인구동향조사].

-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사.
- 차삼숙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화 (2006). 양육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승희 (2010). “자녀를 입양보낸 미혼모의 상실”[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정미, 우희정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3), 361-369
- 최양자, 김귀분 (2004). 미혼모의 경험, **여성간호학회지**, 10(4), 331-341.
- 최형숙 (2010). ‘미혼모들이 경험한 입양상담 서비스’[제60차 여성정책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방안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2009). 지역사회의 미혼모자 지원 성공사례 워크숍.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애란원.
-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6). ‘양육그룹홈 입소자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 (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87). 미혼모 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경자, 방경숙, 권미경, 김정수 (2001) 영아건강증진을 위한 부모역할 프로그램의 개발 및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3). 417-431
- 한상순 (1998).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보호, 춘계학술대회, 한국모자보건학회.

- 한영란, 양순옥 (1997). “미혼모의 임신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보건학회지. 11, 194-208.
- 한인영 (1998). “미혼모의 발생현황 및 복지방향”. 한국의 미혼모 문제와 대책  
 춘계학술대회. **한국모자보건학회** 1-17.
- 홍용희 (1998a). Preschool 학급에서 대집단 시간 교수하기 : 오케스트라 지휘  
 자로서의교사. 유아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한국 유아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83-111.
- \_\_\_\_\_ (1998b)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교육연구의 질적 접근 : rm 방법과  
 쟁점. 교육인류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33-53.
- 황옥자 · 윤미현 (1996). “한국미혼모 특성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논집:인문  
 사회과학. 35, 219-24.
- 황주미 (2009)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특성과 어머니됨의 변화 과정. 배재대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 허남순 (2005). **미혼모자 종합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 국민일보 (2001). ‘10대 미혼모 늘고 직접 양육도 늘어’. 9월 27일.
- 동아일보 (2004). ‘세계한인입양인대회 폐막/어머니 나라 뜨거운 사람 품고 갑  
 니다’. 8월9일
- 파이낸셜뉴스 (2005). ‘새해 달라지는 것; 노동. 교육. 복지. 여성’. 12월 26일.
- Ainsworth, M. (1978).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  
 M. Caldwell & H. 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rch, Vol. 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cker, W. C. (1958).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in M.L. Hoffman and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 Y. :Russell Sage  
 Foundation.

- Becker, (1964). *Outsiders*. New York : Free Press.
- Belsky, J. & Vondra, J. (1993). Developmental origins of parenting: Personal and relationship factors. In T. Luster & L. Okagaki, L.(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p. 227-250). Hillsdale: Lawrence Erlbaum.
- Bogdan, R. C., & Biklen, S. K.(1991). **교육연구의 새 접근 : 질적연구**, 신옥순(역), 서울: 교육과학사
- Bogdan, R. C., & Biklen, S. K.(2003).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4th ed). Boston, MA:Allyn and Bacon Publisher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 (Attachment, Vol. 1)*. New York : Basic Books.
- Bus, A. G., Leseman, P.P. M., & Keultes, P.(2000). Jointbook reading across cultures: A comparison of Surinamese-Dutch and Dutch parent-child dyads.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2*, 53-76.
- Bronfenbrenner, U. (1994). *Human ecology: Concepts and perspectives*.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자료집. 3-28
- Bruining, Mi Ok(1997) A few words from another left-handed adopted Korean lesbian edited by T. Bishoff & J. Rankin. *Seeds from a silent tree: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Glendale, CA:Pandal Press.
- Brown, W. P. (1961). Conception of perceptual defens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Monograph, 35*, 1-107.
- Cantilon, B. & K. Bosch(2002) Social Policy Strategies to Combat Income Poverty of Children and Families in Europe. LIS Working Paper No.

- Cohn, J. F., Campbell, S. B., & Ross, S. (1991). Infant response in the still-face paradigm at 6 months predicts avoidant and secure attachment at 12 months. *Development and Psychology, 3*, 367-376
- Collins, D., Jordan, C., & Coleman, B. (1999). *An introduction to family social work*. F. E. Peacock Publishers, Inc.
- Creswell, J. W., & Miller, D. L.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2nd*. London: Sage Publications.
- De Jong, P. F., & Leseman, P. P. M. (2001). Lasting effects of home literacy on reading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9*(5), 389-414.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Douville, L. (1994). *3A's of child care: Attention, approval, affection*.
- Dunham, P., & Dunham, R. (1992). Lexical development during middle infancy: A mutually driven infant-caregiver process. *Development Psychology, 28*, 414-420.
- Fagot, B. I. (1997). Attachment, parenting, and peerinteractions of toddler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489-499.
- Frankel, K. A., & Bates, J. E. (1990). Mother-toddler problem-solving: Antecedents in attachment, home behavior, and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61*, 810-819.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 Gonzalez, L.(2005). The determinants of prevalence of Single Mothers : ACross-Country Analysis. IZA Discussion Paper No. 1677
- Hamilton, G. N. (1988). Self and others : Object relations theory in practice. Northvale, New Jersey: Aronson.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Jones, S(2007) Excercising Agency, Becoming Single Mother: Decision-making Processes of Unmarried Women. Marriage & Family Reivew. Vol.42(4).
- Kadushin (1980). Child Welfare Services, N. Y, : Macmillan Co.
- Kirchner, E. P. and Seaver, B. (1977), "Developing measures of parenthood motivation", University Park, PA: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InSTITUTE for Research on Human Resources.
- Kivijarvi, M., Voeten, J. M. & Raiha, H., Kaljonen, A., Tamminen, T., & Piha. J.(2001). Maternal Sensitivity Behavior and Infant Behavior in Early Interraction.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6). 627-640.
- McCartney, K., Scarr., Phillips, D.,& Grajda, S. (1983).Day care as invention : Comparisons of varying quality programs, *Journal of Qpplied Developmental P sycholigy*.
- McGee-Brown, J. H.(1995). Multiple Voice, contexts, and methods: Making Choice in Qualitative evalu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ettings. In Hatch, J. A(Ed.), *Qualitative Research in Early Childhood Settings*(pp.173-190).Wespurt: Praeser.

- Mitchell C, (2009) Supporting unwed mothers and their children: challenges, strategies, and benefits to mother, child and community
- Mitchell C. (2009) 미국의 미혼모와 자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편견은 줄이고 지원 서비스는 늘리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NAEYC & NCTM (2002). Early childhood mathematics: Promoting good beginning. Position statement.
- Pipp, S., Easterbrooks, M. A., & Hamon, R. J. (1992). The relation between attachment and knowledge of self and mother in one-year-old infants to three-year-old infants. *Child Development*, 63, 738-750.
- Peshikin, A.(1988). Understanding complexity: A gift of qualitative inquiry. *Anthropology & Education Quarterly*, 19(4), 416-424.
- Rescorla & Alley, A.(2001). Validation of the Language Development Survey(LDS): A parent report tool for identifying language delay in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47, 243-259
- Saxon, T. F., Colombo, J., Robinson, J. E., & Frick, (2000). Dyadic interaction profiles in infancy and preschool intellig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1), 9-25. 유앰포럼.
- Shukla A, Forsyth H. A. Anderson C. M, Marwah S. M. (1972). Infantile overnutrition in the first year of life; A field study in Dudley, Worcestershire. *Br Med J* IV507.
- Snow (1998). *Infant Development* 9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pradly, J. 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Y: Holt, Rinehart & Winston.

- Spradly, J. P.(2006). **참여관찰법**. 신재영(역) 서울 : 시그마프레스.
- Stanley, J. & A Taylor(2008). *Single Mothers in Australia: Changes and Challenges*. 제1 차 싱글맘 정책을 위한 외국전문가 초청 Workshop 자료집. 사단법인 유애포럼.
-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2005). *Social Insurance in Sweden*. Sweden.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 Simon, R.J., Altstein H, & M. S. Melli(1994) *The case of transracial adoption*. Wasjomgtpm. D.C: Ameri Tn University Press.
- Thelen, E. (1990). Dynamical systems and the gener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J. Colombo & J. Fagen(Eds.),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ancy:Reliability, stablith, predic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omasello, M., & Farrar, M. (1986). Joint attention and early language early language. *Child Development, 57*, 1454-1464.
-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eo in the peer group: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 Wierzbicki, M, 1993.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boptees: A meta-analysis. *journal of coinical child psychology 22:447-454*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 Zigler, E. (1981). On growing up, learning and loving. In H. E. Fitzgerald(Ed.), *Human Development, Annual Editors*. Guilford, Conn. : The Dushkin Publishing Group.

<웹사이트>

<http://www.forsakringskassan.se/sprak/eng/foralder/>

<http://www.surestart.gov.uk/>

<http://www.familyassist.gov.uk/>

<http://www.everychildmatters.gov.uk/>

<http://www.cleiss.fr>

<http://www.naeyc.org/resources/position.statements/psmath.>

<http://www.naeyc.org/resources/position.statements/psmath.> htm.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정지원센터 <http://seoulhanbumo.or.kr/>

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educare.or.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고용지원센터 <http://www.work.go.kr/jobcenter/>

# ABSTRACT

## A Ethnographic Study on Infant Nurturing Process

### Unmarried Nurture Mother's in Korea

-Based on the Unmarried Nurture Mother's Residing  
in a Group Home-

Youn, Jang-Suk  
Dep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a unmarried nurture mother and a infant adapted a group home and the nurturing condition. These following questions adjacent to the nurturing condition of unmarried nurture mother were tested.

First, how was the adaptive process of a unmarried nurture mother and her infant for a group home?

Second, how was the nurturing condition of a group home?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August 2008 to September 2009 and by interviewing 7 unmarried nurture mother with a infant younger than 2 years living in a group home. Fo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in depth and participant observation was employed.

Data from each interview material and participant observation note, participant journal, short clip, recoded data and facility related information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from the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terview contents were document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categorized and analyzed. This body of research provides the adaptive process and nurturing condit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participants. The data collected from participants was classified as high rank by comparing the cases and their specific statement of experience.

Based on the data analysis, the conclusion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a unmarried nurture mother and a infant show certain feature at each stage of the adaptive process in the study.

At the beginning of entering a group home, a unmarried nurture mother and a infant had an ambivalent feeling toward the entry. They had a set of relieving mind since they secure the place to stay and fear and excitement towards the new environment. After that stage, unmarried nurture mother and a infant gradually got used to the place and get friendly with the others and the environment. Also they started to observe the surroundings.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distrust between unmarried nurture mother could be formed and showed provocative and distrust action pattern. These actions caused the fear of infant and children and they tended to get wary of an adult to within limited area. During the end of residence period at a group home, a unmarried nurture mother avoided all the relationship and got depressed out of fear and anxious towards the discharge. It allowed the infant and children forming only limited

mutual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cause a trouble.

Second, living in the limited area with another family, the unique condition of a group home causes the certain characters of nurturing condition.

The positive features of nurturing in a group home were revealed from the study. Encourage from the others for raising a infant, and infant equipments and support from outside enforced the maternal instinct of a unmarried nurture mother Relief from securing the place to stay sometimes could become the turning point of new life.

On the contrary, there were certain features that could negatively affect on. By means of physical environmental composition, the protective function is very low and since the house is operated as a moving transitional place, the equipments for infant are not sufficient and the environment is not proper for a infant and a child. Also, baby equipments are not properly sanitized, the recognition about infectious disease is low and food was adult oriented. On the other hand, it has negative mental side. The unmarried nurture mother living in a group home is suffering from the pressure of getting independent and the insecurity of place to stay. It led to an aggressive and suppressed relationship with the other unmarried nurture mother and operator in a group home, and the vicious cycle of no financial support and/or social support from a family is maintained.

## - 부 록 -

- <별 첨 1> 연구참여 동의서
- <별 첨 2> 인구학적 특성
- <별 첨 3> 개인 면담 질문지
- <별 첨 4> 집단 면담 질문지

## <별첨 1> 연구참여 동의서

###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미혼양육모의 양육 체험

연구자: 윤 장 숙(010-8751-xxxx)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본 연구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미혼 양육모의 양육 경험을 연구하여 미혼양육모의 양육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미혼양육모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미혼양육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느낌, 생각이나 감정 및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 할 것이며, 각 면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일 것입니다.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할 것입니다. 또한 면담 내용은 녹음 및 기록 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메일이나, 미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쪽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녹음되었거나 기록 된 내용, 편지, 인터넷 상에 올린 글 등은 추후 익명으로 인용되고 연구가 끝나면 녹음테이프와 필사자료, 메일은 폐기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로 인한 이득, 위험 및 불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이득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발생할 다른 미혼양육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정보 및 보다 나은 양육 지원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자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인은 면담과 메일, 쪽지 등의 요구에 자의로 응하고 면담 내용을 테이프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에게 어떠한 비용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통해 알고 있으며, 이 연구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본인의 익명을 보장하고 연구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 받았습니다.

2008년    월    일

연구참여자 서    명 : \_\_\_\_\_

연    구    자 : 윤 장 숙 (인)

<별첨 2>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대상자 번호	#	이름	날 짜	2008. . .
번호	항	목	내	용
1	엄마 나이와 성별		(                    세),	( 남,        여 )
2	영아 연령과 성별		(                    개월),	( 남,        여 )
3	미혼양육모의 원가족관계			
4	거주지 이주 과정			
5	부모의 종교		부(                    ),	모(                    )
6	부모의 학력		부(                    ),	모(                    )
7	현재 생활하고 있는 시설과 기간			
8	현재 받고 있는 양육 지원			
9	현재 받고 있는 교육			
10	아이의 출산 결정 시기			
11	임신기간 건강상태			
12	분만유형			
13	아이의 양육 결정 시기			
14	양육비 현황(수입과 지출내역)			
15	아기용품(생활용품,장남감, 도서 등)			
16	하루 일과			

<별첨 3> 개인면담 질문 목록

## 개 인 면담 질문 목록

1. 미혼 엄마로써 양육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 미혼 양육모로써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어려움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 양육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2. 아빠가 부담스러워하는 아이의 양육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부모됨의 의미를 어떤 때 발견하십니까?
4. 우리아이가 미혼모의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5. 앞으로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걱정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6. 앞 날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7. 아이가 성장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양육 환경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주로 후원은 어떤 경로로 받습니까?
9. 출산전 미혼모가 양육과 입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언을 구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10. 아이의 양육에 대한 정보는(건강상태, 보육시설, 아기용품 구입 등) 어디서 얻습니까?
11. 제가 물어보지 않은 것 중에서 미혼 양육모의 경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첨 3> 집단 면담 질문 목록

## 집 단 면 담 질 문 목 록

1. 기초수급권자를 반드시 유지하고 싶은가요? 하고싶다면 . 유지하는데 문제점과 어려운점은?
2.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3. 바뀐 제도(아이사랑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4. 자녀에게 가장 실망이 컸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지?
5. 자녀에게 훈육을 어떻게 하는지..... 화를 심하게 냈을 때가 언제인지? 왜?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6. 자녀가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까?
7. 모자원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8.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제도 및 지원은?
9. 시설에 거주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가요?
10. 시설에서 하고 있는 취업관련 제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11. 공동 생활하면서 아이문제로 가장 예민할 때는 언제인가?
12. 공동 생활하면서 생활전반에 관해 불편한 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있다면?